

나주(금성)오씨대종보

羅州(錦城)吳氏大宗報

2025 | 제 25 호



나주오씨대종회
www.najuoh.or.kr

네가 옳으면 나는 그른가?

정신과 마음을 통일하려 애쓰면서도,
모든 것이 같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조삼이라고 말한다.
무엇을 조삼이라고 하는가?
옛날에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말했다.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를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내었다. 그래서 다시 말했다.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명분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성내는 다른 반응을 보인 것도 역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은 모든 시비를 조화시켜 균형된 자연에 몸을 쉬는데,
이것을 일컬어 양행兩行이라 말한다.
-『장자』 「내편」의 ‘제물론’ 중에서

세상의 시비분쟁은 대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굳건한 믿음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장자가 볼 때 이런 믿음은 대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시각에서 발생하는 오류다. 장자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우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서 바라볼 것을 권유한다. 원숭이들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준다고 할 때는 화를 내었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할 때는 뿔 듯이 기뻐했다. 이는 원숭이들이 아침과 저녁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아침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부분에서 벗어나 전체를 바라보는 열린 시각을 장자는 ‘양행兩行’ 또는 ‘천균天均’이라 말한다.

표지 사진—금암사 琴巖祠



금암사는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마명마을에 있는 도암 韜庵 오희길吳希吉(1556~1625)을 모신 사우祠宇이다. 1788년(정조 12) 월계사月溪祠로 창건, 1868년(고종 5) 훼손되었고, 1960년에 후손 오구근吳龜根이 금암사로 다시 일으켰다 3칸 건물로 팔작지붕이고 흙처마이다. 강당 '사가정'과 묘정비廟庭碑가 있다.

도암의 자字는 길지吉之이고, 증조부는 오세훈吳世勳이고, 할아버지는 오원吳源, 아버지는 공주판관을 지낸 오언기吳彦麒이다. 명종明宗 11년, 현재 고창향교 터인 교촌리에서 태어나 16세에 장성 학자집안 행주기씨 기호관奇孝寬의 딸과 혼인하고, 21세에 처당숙이자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제자인 금강錦江 기호간奇孝謙에게 배우고, 장성 하곡齋谷 정운룡鄭雲龍과 고창 호암壑巖 변성온卞成溫과 교유했다.

1589년 호남 인재들의 씨를 말인 기축옥사(정여립 역모사건)로 구금되었으나, 그가 보낸 절교 편지를 본 선조가 의인이라며 석방하고 후릉참봉厚陵參奉에 제수했으며, 1591년(선조 24) 전주의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으로 전근되었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다른 사고들이 불타자, 경기전의 태조어진과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여러 사서와 제기 등을 내장산 동굴로 옮겼다. 1593년 조정의 명령으로 태조 영정을 아산현에 옮기고, 『조선왕조실록』과 사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596년(선조 29) 태조의 영정과 『조선왕조실록』, 제기 등을 강화도로, 이듬해 묘향산으로 옮겼다가 1614년(광해 6) 11월 태조의 영정을 경기전에 봉환하고 제사를 올릴 때 수현관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정월 태인현감을 제수받았으나, 6월에 무고로 체직되고, 1618년(광해 10) 7월 위성원종공신일등대위聖原從功臣一等에 참록, 다음해 8월 허균의 무고로 거제도에 귀양을 갔다. 1620년(광해 12) 유배지에서 『도동연원록道東淵源錄』을 수찬하고, 다음해 『명대의변明大義篇』, 『천명도설天命圖說』, 『안산지리안誌』, 『백운지白雲誌』 등을 지었다. 1625년(인조 3) 유배지에서 향년 70세로 사망했다. 저서로 『도암선생문집韜庵先生文集』 3권 1책이 있고, 묘소는 전북 순창 금과면 고례리에 있다.

나주(금성)오씨대종보 제25호(2025)

발행일 : 2025년 3월 22일 | 발행인 : 오중순 | 편집인 : 오양근
편집위원 : (서울) 오대균·오형근·오중문·오중선
(호남) 오동근·오기주·오현교·오도근

발행처 : 나주오씨대종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608호(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대종회 홈페이지 : <http://www.najuoh.or.kr>
대종회 블로그 : blog.naver.com/najuohorkr
전화 : 02-2275-5574 / 팩스 : 02-563-5574

[호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55, 2층(세영개발)
전화 : 062-941-1333

◆ 본지에 기고한 글은 '나주오씨대종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Contents

송조사상을 받드는 나주오씨 이야기

02 인사말/ 오중순_대종회 회장

04 추도사/ 고 승제 오인수 전 회장_오근성_상임고문

○ 대종회 소식

06 2024년 정기총회 개최 11/ 2025년 종무회의 개최

14 나주오씨장학회 창립 총회 개최

16 장학금 수여_오희정 17/ 대종회 소식 26/ 문중 소식

146 오수·오성산악회 산행일지 및 산행 사진

○ 기 고

33 통정대부 병조참의공 오상욱/ 오희근

36 병암 오상순, 하서 김인후 선생 신주神主 위패位牌를 쓰다_ 오낙균

39 악수에 대한 예절禮節_ 오기선

○ 세미나 중계

42 도암韜庵 오희길吳希吉의 학문과 역사정신_ 오경후_동국대 교수

○ 나주오씨 인물 동정

57 오경수 부회장, 소촌아트팩토리 특별초청창기회전 및 가곡집 발간/ 편집부

58 오희 교수, 노르웨이 과학문화아카데미 아벨상 심사위원 위촉 등/ 편집부

59 오경희(장탄문중), 마포구 부구청장 취임/ 편집부

60 오승기 감사, (사)한국경찰유족회 초대 회장 취임/ 편집부

61 오로라(명곡공 문중), 2023년 제12회 변호사 합격/ 편집부

○ 나주오씨대종회 창립 25주년 특집

64 나주오문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 꿈과 희망을 주는 대종회/ 오형근

○ 오문시단/에세이

89 오경수_ 마음 길 따라 90/오창렬_ 경칩 무렵

91 오중문_ 그 옛날, 시가 되지 못한 92/김수은_ 나에게 동화란

○ 나주오씨장학회 창립 보고/ 119

○ 세금상식

94 알고 나면 쉬운 세금 상식! 취득세

○ 오씨 본관별 인구현황, 전자족보 등록 안내, 나주오씨대종회 조직기구조

62 오씨 본관별 인구현황 (2015년, 통계청)

96 나주오씨 홈페이지·전자족보 등록 안내

103 나주오씨대종회 조직기구조

○ 나주오씨 선조의 시제일·사당 제향일/ 애경사 소식

63 사당 제향일 98/나주오씨 선조의 시제일 101/애경사 소식

○ 향렬자 정규, 나주오씨대종회 회칙 및 운영 규칙

100 나주오씨 향렬자 정규

127 나주오씨대종회 회칙 131/ 나주오씨 종사연구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132 나주오씨전자족보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 대종회 역대 회장단 명단, 대종회 임원 명부 및 오수·오성산악회 임원 명단

102 역대 회장단 명단 133/ 대종회 임원 명부 142/오수·오성산악회임원 명단

○ 대종회 공지사항

104 본관을 나주로 통일합시다 105/대종보 제26호 원고모집 안내

153 연회비·협찬금 납부 안내

□ 2025년도 정기총회 자료

109 1. 2024 회기 사업집행 보고

111/ 2. 2024 회기 결산(총괄)

114 3. 2025 회기 사업계획

115/ 4. 2025 회기 예산안

대중회가 젊어져야 최고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오씨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종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사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2025년 정기총회를 충효의 고장 대전 뿌리공원에서 개최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종친 여러분!

대중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대중회장에게 취임하여 호남지역본부 상견례를 시작으로 서울경기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고 대중회가 애족하고 더욱더 대동단결하자는 결의를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선조님들께 감사드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선양사업에 노력하자는 많은 의견을 주셔서 대중회가 더 화목하고 대동단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종무회의를 이곳 뿌리공원에서 개최하여 2024 회기 사업집행 보고 및 결산보고, 2025 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후손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창립발기인 전원이 동의해주셔서 '나주오씨장학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은 종친이 참여하고 나주오씨 가문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화목 단결하는 대중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문중의 많은 청·장년들이 참여하는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젊은 남녀 종친을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중회장 오 종 순

둘째, 여성 종친들이 많이 참여하는 대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녀 인구 구성비도 반반이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크게 신장하고 있으므로 많은 여성 종친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자들과 기업가들을 적극 영입하여 대중회 조직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으로 미흡한 지식 정보도 받아들여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조성 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장학회 창립을 계기로 장학회 규정 및 제반 사항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확고한 장학회 운영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장학사업이 대중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주오씨 선조님들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고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각 문중별 종친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친 여러분 !

선조님들이 물려주신 업적을 자손 만대에 영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대중회의 임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항상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인선仁善 전임 회장님을 비롯하여 근성根篁 상임고문님, 수석부회장님, 서울경기·호남·영남 본부장님과 여러 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증서를 받으신 오희정 양 축하드리오며, 나주오씨 일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2일

고故 송제松齊 오인수吳仁洙 전 회장님, 삼가 명복을 빕니다

故 송제松齊 오인수吳仁洙 전 대총회장님께서서는 1938년 나주시 동강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인의 선친은 우리 문중 대소사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복제復齊 오대선吳大善(1891~1976) 님이시며, 나주향교 전교典校·호남유도회장 등을 역임하셔서 지역 유림계에 우리 가문의 위상을 널리 알리신 분입니다.

고인께서는 일찍이 목포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초등학교 교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시고, 교장선생님으로 정년을 다 하실 때까지 열과 성의로 후진 양성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인성교육에 남달리 진력하셨기에 수많은 제자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이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총회 발족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대총회 대소사에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셨으니 이는 선친 때부터 이어져 온 집안 내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풍에서 우리 대총회 호남지역 본부장직을 무려 8년이나 맡아 봉직하면서 어려운 실무를 잘 처리하셨습니다.

7대, 8대 회장님을 맡으신 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잘 마무리하셨으며, 특히 송조와 종친 간의 화목 단결을 강조하시고 적극 추진하셔서 오늘날 우리 대총회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금년, 우리 종친 모두에게 황망한 소식이 전해졌으니,

오인수 회장님께서 2024년 12월 30일에 이미 타계하셨다는 비보였습니다.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은 고사하고 문상을 드릴 기회까지 없었으니 얼마나 민망하고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고인께서는 평소 자신은 친지들의 관혼상제에 적극 참여하시면서도 남에게는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순수 가족장으로 장례를 마치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



니 두고두고 아쉬울 뿐입니다.

2020년 11월 19일로 기억합니다. 영남지역 오익곤 본부장님의 부고를 접하고 부산에 있는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갔었을 때 뵈신 고인께서는 환우 중이신지라 거동이 불편하시고 수척하셨지만, 원거리인 부산까지 문상을 오셨습니다.

이때는 코로나가 한창 창궐한 시기라 부득이 장례식장 밖에서 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오늘따라 더욱 생생하고 그립습니다.

2022년 정초에는 광주시 월산동에 거주하시는 아파트로 제가 문병 겸 새해 인사로 찾아 뵈었습니다.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차츰 회복되어 가고 있으니, 따뜻한 봄날에 만나자고 하시면서, 후임 회장을 맡아 고생이 많다는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눈에 선한데 그날이 마지막 뵈옵는 날이 될 줄이야.

새삼 인생 무상함을 느낍니다.

언제 뵈어도 매사에 합리적이고, 인자하시며, 종친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하여 주시던 그 모습이 오늘따라 더욱 생생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고 오인수 전 회장님께서 평소 강조하신 승조와 종친 간의 친목 도모의 유지遺志를 우리 종원 모두는 잘 받들어 실천하는데 더욱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승에서의 모든 번민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극락세계에서 영면하시기를 머리를 숙여 빌겠습니다.

삼가 대중회의 뜻을 모아 명복을 기원합니다.

2025년 3월

나주오씨대중회 전 회장·상임고문 오근성



2024년도 정기총회(2024.03.24.)

2024년도 나주오씨대종회 정기총회는 대종회 주관으로 2024.03.24.(일) 오후 1시 대전 중구 뿌리공원 입구 소재 <孝문화마을>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서울경기 수도권,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양산 등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하여 승조사상 함양과 단합 그리고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도근도根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종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금년 정기총회는 대종회 제12대 회장단이 구성되어 새출발하는 뜻깊은 날임을 전하고, 대종회 회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정기총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했다.

참석회원 전원은 국민의례와 선조님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참석자 전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경기지역본부와 영남지역본부 참석자들은 형근榮根 사무국장이 소개하고, 호남지역본부 참석자들은 도근 총무부회장이 소개했다.

이어서 대종대상 효부상 표창,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2024년도 대종대상大宗大賞 효부상孝婦賞 수상 대상자인 박미자朴美子 여사는 송은당공의 18대손인 근문根汶 전 대종회 고문과 1965년 결혼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박봉으로 시부모님과 시동생 6남매를 잘 보살피며 성장 출가시켰을 뿐 아니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슬하의 두 남매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특히 병환으로 몸져누워 계시고 거동이 불편한 시부



모님을 10여 년간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한 아름다운 효행과 현모양처로서 주위 사람들로 부터 칭송이 자자한 효부로 사회의 귀감이 되어 효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2023년 정기총회의 유사를 맡아주신 석문공종중 대표(오병현秉炫)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고, 대총회 재무부장 및 재무부회장으로 2013년부터 11년간 재임하였고 오수산악회 총무로서 2012년부터 12년간 활동을 하면서 대총회에 봉사한 공로로, 종선鍾善 재무부 회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인선仁善 대총회장은 이임사를 겸한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모두 나주오씨의 훌륭한 선조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 얼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더 빛나고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대총회의 염원인 장학사업

을 성공적으로 잘 키워서 후손들이 자자손손 나라의 기둥이 되어 잘 살 수 있도록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대총회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여 종원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도록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자족보시스템의 완성도를 지속해서 제고하여 나간다면 나주오문羅州吳門의 보물이 되고 76만 오씨吳氏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인선 대총회장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상임고문님을 비롯한 전체 임원님들, 특히 근성根箠 전 회장님, 양근梁根 수석부회장님, 대균大均 서울본부장님, 동근東根 호남본부장님, 동우東宇 영남본부장님, 형근榮根 사무국장님 이하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임사를 했다.

이어서 정기총회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의



안 보고 및 인준“ 절차에 들어갔다. 인선 대중회장은 참석회원들에게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제가 몸이 불편하여 형근 사무국장에게 의사진행을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어 참석회원 전원 동의를 얻은 다음, 형근 사무국장에게 의사진행을 위임함으로써 이후 형근 의장대행(사무국장)이 의사진행을 맡았다.

형근 의장대행은 제1호 의안인 “예산·결산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먼저 승기承紀 감사가 ‘2023회기 감사보고’(대중보 78쪽 게재)를 했으며, 참석회원 전원은 ‘2023회기 감사보고’를 원안대로 인준했다.

계속해서 형근 사무국장이 ‘2023회기 사업 집행보고’, ‘2023회기 결산’, ‘2024회기 사업계획’, ‘2024회기 예산안’을 보고하고 이 제1호 의안은 지난 종무회의에서 충분히 심의·의결된 사항이므로 제24호 대중보에 실린

회의자료(대중보 79~84쪽 게재)의 내용을 인준하여 줄 것을 요구했고 참석회원 전원은 제1호 의안을 원안대로 인준했다.

형근 의장대행은 제2호 의안인 “대중회 회칙 개정 및 전자축보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칙 제정의 건”을 상정하고, 형근 사무국장이 의안 보고를 했고, 이 제2호 의안 역시 지난 종무회의에서 충분히 심의·의결된 사항이므로, 제24호 대중보에 실린 회의자료(대중보 92~94쪽 게재)의 내용을 인준하여 줄 것을 요구했고 참석회원 전원은 제2호 의안도 원안대로 인준했다.

형근 의장대행은 제3호 의안인 “임원 선출 및 상임고문 추대의 건”을 상정하고, 지난달 25일 종무회의에서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2인이 차기 임원으로 선출되었고, 상임고문이 추대되었음(대중보 95쪽 게재)을 설명했으며, 참석자 전원은 제3호 의안인 “임원 선출 및 상



임고문 추대의 건”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이어 인선仁善 대총회장이 대총회 종기宗旗를 신임 종순鍾淳 대총회장에게 전달하는 ‘대총회 종기 전수식’이 참석자 전원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신임 종순 대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 ‘승조·친목·성실·봉사’의 종훈宗訓 아래, 우리 다 함께 화합과 단결된 분위기 속에서 노력하고 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고 후회 없는 대총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라고 말하고,

“첫째로, 대총회 회원 간의 화합에 최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대총회가 한마음으로 서로 믿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친목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대총회가 젊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총회는 젊은 세대가 적극 참여하여야 나주오문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로, 나주오씨대총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단소리든 쓴소리든 작은 한마디라도 소홀함이 없이 경청하고, 대총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종원들의 의견을 물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총회 제12대 회장단을 구성하게 된 신임 집행부를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으며, 신임 집행부는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사회자는 2024년도 정기총회의 폐회를 선언했다.

참석자 전원은 귀향하기 전에 버스주차장에서 호남지역본부에서 미리 준비한 음식과 음료수를 같이하며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내년 정기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2024년도 정기총회의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다.



역대 총회 개최 문중

개최연도	개최문중	개 최 장 소
2003	도암공	전북 고창군 늘봄가든
2005	송은당공	나주시 동강면 동강초등학교 대강당
2006	석문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07	사정공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사회복지관
2008	칠송공	광주시 상공회의소
2009	장탄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0	송계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1	금양군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2	송은당공	나주시 동강면 동강초등학교 대강당
2013	석문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4	사정공	전남 나주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2015	칠송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6	장탄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7	송계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8	금양군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19	송은당공	나주시 동강면 동강초등학교 대강당
2020		코로나19로 총회 미 개최
2021		코로나19로 총회 미 개최
2022	대중회	공주 <호텔 동학산장> 대회의실
2023	석문공	광주시 광산구 삼도초등학교 대강당
2024	대중회	대전 <효문화마을> 대강당
2025	대중회	대전 <효문화마을>



2025년도 총무회의 개최(2025. 02. 23.)

2025. 02. 23. 일요일 오후 1시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뿌리공원 <효문화마을>에서 2025년도 총무회의가 개최됐다.

금년 3월 정기총회에 앞서 개최된 이날 총무회의에는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 각지에서 집행부 임원, 총무위원 및 가족 등 67명이 참석하여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시부터 2025년도 총무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총무회의는 도근道根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회자는, 총무회의는 회칙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항에 따라 재석인원 1/3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총무회의는 회칙 제12조에 따라 집행부 임원(당연직 총무

위원) 77명, 총무위원 77명 등 총 15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 뒤, 오늘 총무회의에는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30명, 호남지역본부에서 29명, 영남지역본부에서 3명 등 62명의 총무위원이 참석하여 성회成會하였으므로 2025년도 총무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작년 연말에 유명을 달리하신 故 오인수 상임고문님과 선조님들께 드리는 묵념 순서를 진행했다. 이어 형근榮根 사무국장이 영남지역본부와 서울경기지역본부 참석자를, 도근 총무부회장이 호남지역본부 참석자를 한 사람씩 소개하는 순서가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은 한 사람씩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어서, 종순鍾淳 대총회장은 개회사를 통



해, 오늘 종무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우東宇 영남지역본부장, 대균大均 서울경기지역본부장, 동근東根 호남지역본부장과 기주基柱 종사 연구위원장, 종무회의를 준비한 양근梁根 수석 부회장과 집행부 임원들께 감사를 표하고, 또 서울경기지역본부와 호남지역본부 2024회기 결산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현교玆敎, 승기承紀 두 분 감사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종순 대종회장은 우리 대종회가 창립한 지 25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대종회 조직이 좀 더 젊어져야 한다고 역설力說하면서, 대종회 회의 진행이 자칫 딱딱한 분위기로 흐를 수 있는데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회의안건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의장이 제1호 의안인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종무회의 자료 3면에 수록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정기총

회를 개최한 문중과 개최장소를 설명한 다음, 우리 대종회는 2003년부터 7개 문중이 돌아가면서 정기총회 유사를 맡아주신 덕분에 매년 정기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각 문중 사정으로 인하여 문중 주관으로 정기총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의장은 금년 정기총회는 대종회 주관으로 이곳 대전시 중구 <孝문화마을>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이어, 의장은 제2호 의안인 '예산·결산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제2호 의안의 첫 번째 순서로 승기 감사는 '2024 회기 감사보고'를 통해 대종회 회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종무 사항과 회계 사항을 감사한 결과, 종무 사항은 특별한 하자가 없었으며, 회계 사항은 항목별 지출이 적정하게 처리되었



으며 회계처리상 하자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의장은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2024회기 감사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이어, 형근 사무국장이 제2호 의안의 두 번째 사항인 '2024회기 사업진행보고·결산보고' 및 '2025회기 사업계획·예산안'을 차례로 보고하였다. 보고사항을 심의한 결과, 의장은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마지막으로, 형근 사무국장이 '공지 및 협조 요청 사항'을 설명했다.

첫 번째 사항으로, 2025년 4월 6일(음3.9) 1세조 중랑장공(諱偃) 시제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서울 오수산악회에서도 전세 버스를 이용하여 단체로 참석할 예정임을 알렸다. 두 번째 사항으로, 현재 대총회에서 전

자족보 데이터베이스에 1981년에 발행한 나주오씨대동보(신유보) 자손록을 전산입력 작업하고 있는데, 이 신유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1981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수단 입력 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므로, 많은 종친들이 대총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족보 신규 등록신청>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어 사회자가 종무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소 단상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야외 날씨가 쌀쌀한 관계로 각 지역본부에서 미리 준비해 온 음식물을 야외에서 먹기가 곤란하므로 귀향 버스에서 들도록 하기로 하고, 다음 달 정기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2025년도 종무회의의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다.

※2025년도 종무회의 행사를 마치고, 그 장소에서 바로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 행사가 이어졌다.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 개최(2025. 02. 23.)

2025. 02. 23. 일요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뿌리공원 입구 <孝문화마을>에서 우리 대총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는 직전에 진행된 대총회 2025년도 총무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총무회의 개최장소에서 총무회의에 참석한 집행부 임원 및 총무위원 등 62명이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장학회 창립총회는 도근道根 대총회 총무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사회자는 창립발기인 62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하고 장학회 창립총회 개최를 선언했다.

종순鍾淳 대총회장은 나주오씨장학회 창립발기인 대표 자격으로 개회사를 하면서, “우리 대총회가 1999년 12월 5일 창립해서 25년이

지났다. 대총회가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2월 총무회의 시 장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오늘 장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고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순 창립발기인 대표가 장학회 창립의 필요성 등이 담긴 <나주오씨장학회 창립 취지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종순 창립발기인 대표가 임시의장으로서, 창립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임시의장이 제1호 의안인 ‘나주오씨장학회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하고, 형근榮根 대총회 사무국장이 나주오씨장학회규정 제정(안)을 보고토록 요청했다. 형근 사무국장이 나주오



씨장학회규정 제정(안)의 주요 조항들을 자세히 설명·보고하였으며, 임시의장이 의안 보고에 대하여 창립발기인 전원으로부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이어, 임시의장은 제2호 의안인 ‘임원 선출 및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고, 형근 사무국장이 임원 선출(안) 및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토록 요청했다. 형근 사무국장이 제1호 의안으로 통과된 나주오씨장학회규정 제6조 1항 및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당연직 임원으로 선출되는 회장에 종순鍾淳(대총회장), 부회장에 양근梁根(대총회 수석부회장), 감사 2인에 현교玄敎·승기承紀(대총회 감사), 사무국장에 형근榮根(대총회 사무국장), 간사에 종선鍾善(대총회 장학사업부장) 등 6인의 ‘임원 선출(안)’을 보고하고, 아울러 같은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총회 각 지역본부장의 추천으로 위촉한 대균·동렬·재열·재교·종문(이상 5명, 서울경기지역본부), 동근·기주·성수·도근·순교(이상 5명, 호남지역본부), 동우·민곤(이상 2명, 영남지역본부) 등 12명의 운영위원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했다. 임시의장은 사무국장이 보고한 ‘임원 선출(안) 및 운영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창립발기인 전원으로부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이어, 사회자가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했다.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 행사를 마치고 회의장소 단상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창립발기인 모두는 나주오씨장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큰 박수로 나주오씨장학회의 창립을 뜨겁게 축하했다.

장학금 수여

- 성명 : 오희정喜晶
(사정공 20대손, 2005년생)

- 추천 사유

위 종원은 조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승조정신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향학열이 높고 품행이 단정하며 그 장래가 촉망되므로 나주오씨대중회 회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문을 빛낼 인재로 선정되었다.



고창문화원, “도암 오희길의 학문과 역사정신” 학술발표회 (2024.09.27.)



고창문화원은 「근현대 고창지역 유학자의 삶과 학문의 세계 고찰」 주제로 다섯 번째 학술발표회를 개최했으며, 동국대학교 오경후 교수가 “도암 오희길의 학문과 정신사상” 주제로 한 도암공의 생애, 도동연원록과 사상, 조선왕조실록 수호와 절의를 다루는 학술발표를 했다.

이날 학술발표회는 고창문화원이 주최 주관하고, 만수당(도산서당), 무장 용오정사, 아산 기산사, 진주정씨 계당공파종중, 평산재(휘서농장), 나주오씨 고창마명종중, 하동정씨 고창 월산서당, 안정나씨 고창종중, 고창 (유)명지엔지니어링, 서울 (사)알레테이아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대중회에서는 종순 대중회장, 낙균 부회장, 도근 총무부회장이 참석하여 학술발표회를 축하했다.

조선왕조실록이 600여 년의 오랜 세월 속에

도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임진왜란이라는 전란 속에서 목숨을 걸고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깊은 산중으로 안전하게 피신시켜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하여 1973년 12월 31일에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은 조선에는 도암공 오희길 선조님과 같은 책임관리와 많은 선조님들이 함께 밤낮없이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기에 가능했다.



서울경기지역본부 2024 임원·종무위원 단합대회(2024.10.12.)



서울경기지역본부와 수도권친목회는 2024. 10.12.(토) 정오 12시 선릉역 1번 출구 중화 요리전문 <동보성 연회장>에서 2024 추계 임원·종무위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합대회 행사는 서울경기지역본부 임원·종무위원·종원 및 가족 등 44명이 모여 식전행사로 10분간 상영한 “나주오씨대중회 25년 발자취” 동영상을 보면서 대중회의 역사를 되새겨보고 즐거운 시간을 시작했다.

이날 단합대회는 형근榮根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되었고, 사회자의 개회 선언에 이어 수도권친목회 소개와 참석자 소개가 이어졌으며, 참석자 한 사람씩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다.

특히 故 용근用根 고문님의 동생(선자)·딸(영

숙)·아들(재열) 부부 가족, 근태 부회장 부부와 딸(정아) 가족, 경근·전열·순열 세 부부, 그리고 이날 처음으로 단합대회 행사에 참석한 종친으로 2024.10.0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상철(‘67, 부사공) 종친 등 여러 분이 큰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기선起善 친목회장의 인사말, 대균大均 본부장의 인사말, 형근榮根 사무국장이 애경사·대중회 소식·회원 동정·문중 소식·동호회 소식·대중회 3대 중점사업 등 공지사항을 전달했고, 이날 단합대회 행사에 협찬한 종친들을 소개하면서 감사를 표했다.

대중회 소식으로, 6/23 장탄 문중 영근 고문 별세 소식, 2/25 종무회의 개최 소식, 3/24 정기총회 개최 소식, 4/25 기세조起世祖 중랑장

대중회 소식

공(휘 언僞) 시제 소식, 6월 13일 승기 감사의 (사)한국경찰유족회장 취임 소식, 9월 27일 고창문화원에서 “도암공 오히길의 학문과 역사 정신” 주제로 열린 학술발표회 소식, 2024년도 오수산악회 산행 소식, 대중회 홈페이지·전자족보 재구축 소식, 2025년 2월 종무회의 종료 후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 예정 소식, 도선산 묘역 정비·정화사업 등을 전했다.

이어서 중화 코스요리로 점심 식사하면서 화기애애한 대화로 따뜻한 혈육의 정을 흠뻑 느끼며 중식 시간을 함께 했다. 점식식사를 마친 후 단상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내년에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이날 단합대회 행사를 모두 마쳤다.

▷참석자 : 44명

근성(상임고문)/ 기선(친목회장), 종만(洙), 광구(根), 동(敎), 교철(이상 고문)/ 양근(수석부



회장), 대균(본부장), 승기(泳)(감사), 형근(사무국장), 종문(홍보부회장) (이상 집행부 임원 실무진)/ 근신, 맹근, 근태 부부, 신근, 근국, 경근 부부, 채근, 동렬, 전열 부부, 초섭(烈), 재열(석문) 부부, 양균, 홍구(敎), 창교, 재교, 종석 (이상 부회장)/ 홍수, 성근, 순열 부부, 영례(烈.女), 점석(烈.女), 형교, 봉균(이상 종무위원)/ 선자(根.女), 영숙(烈.女), 정아(烈.女), 연균, 상철(敎) (이상 일반종원)

서울경기지역본부 2024년 송년 모임(2024.12.21.)

▶일시: 2024.12.21.(토) 정오 12시

▶장소: 선릉 '이태리부대찌개'

○ 참석자: 기선(친목회장), 광구(根)·교철 (이상 고문), 양근(수석부회장), 대균(본부장), 승기(泳) (감사), 형근(사무국장), 건열(조직부회장), 종문(홍보부회장), 정숙(敎)(여성부장), 근신·맹근·근태·신근·채근·동렬·남렬·전열·초섭(烈)·홍구(敎)·재교(이상 부회장), 홍수·점석(女.烈)·봉균(장탄)(이상 종무위원), 석균(종원)

이상 26명

○ 행사내용: 서울경기지역본부 2024년 송년회 모임은 형근 사무국장의 참석자 소개에 이어 기선 수도권친목회장은 “우리 대중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2025년에도 대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어서대균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인사말과 2025년 대중회 행사 일정 공지 및 대중회 주요 사업 소개 등이 이어졌다.

2024 서울경기지역본부 임원회의·간담회



● 종순 대중회장, 서울경기지역본부 방문 (2024.05.11.)

종순 신임 대중회장이 상견례차 서울경기지역본부를 방문했다.

대중회 사무실에서 상호 인사하고 신임 회장 모두 발언 마친 후, 인근 식당(어로장)으로 이동하여 대균 서울경기본부장 인사말, 동근 호남본부장 인사말, 근성 상임고문 격려사에 이어, 형근 사무국장이 참석자를 소개한 후, 대중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와 함께 건설적인 이야기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식사와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다시 대중회 사무실로 이동하여 집행부와 임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참석자〉 근성 상임고문, 기선 고문, 종만 고문/ 종순 회장, 양근 수석부회장, 대균 서울경기본부장, 동근 호남본부장, 승기 감사, 형근

사무국장, 건열 조직부회장, 종문 홍보부회장 / 근신, 맹근, 근태, 경근, 현식, 동렬, 순열, 정렬, 남렬, 경남, 전열, 초섭, 재열(석문), 양균, 홍구, 종석 (이상 부회장), 홍수, 영례, 점석, 재열, 연균, 종대('63) (이상 종무위원) : 33명

● 종순 대중회장, 영남지역본부 방문 (2024.09.29.)

종순 대중회장이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양근 수석부회장, 대균 본부장, 형근 사무국장 등 3명, 호남지역본부에서 동근 호남본부장, 도근 총무부회장, 순교 재무부회장 등 3명과 함께 상견례차 영남지역본부 방문했다.

범어사 입구에 위치한 〈풍년오리박사〉에서 영남지역본부 동우 본부장을 비롯한 임원 열세 분을 만나 상견례하고, 형근 사무국장이 서울경기지역본부와 호남지역본부 임원들을 소

대중회 소식



개하고, 동우 영남지역본부장이 영남지역본부 임원들을 소개했다.

종순 대중회장 인사말, 동우 영남지역본부장 인사말, 형근 사무국장의 대중회 소식과 대중회 중점사업 등 소개 등 점심식사를 같이하면서 참석자 상호 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무엇보다도 영남지역본부 임원들이 종순 대중회장과 서울·호남지역본부 임원들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어 따뜻한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간담회를 마치고, 앞으로도 회장단이 자주 영남지역본부를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참석자〉 종순 대중회장, 양근 수석부회장, 대균 서울경기본부장, 동근 호남지역본부장, 동우 영남지역본부장, 형근 사무국장, 도근 총무부회장, 순교 재무부회장/ 경호(善), 몽룡(善), 병한(善), 일태(善), 두한(善), 근혁(善), 문곤(洙), 석곤(洙), 민곤(洙), 승곤(洙), 동하(根), 기호(烈) : 20명

● 서울경기지역본부 임원회의(2025.01.11.)

• 일시: 2025.01.11.(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대중회 사무실

• 토의 안건

1. 2024회기 주요 사업집행 보고 및 2025회기 사업계획(안) 설명
2. 2025년 2월 총무회의 개최 준비의 건
3. 2025년 3월 정기총회 준비의 건
4. 제25호 대중보 발행의 건
5. 2025년 기세조 중량장공(휘언) 시제 참여의 건
6. 전자족보시스템 일부 보완 및 추가개발 의뢰의 건
7.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 준비의 건

〈참석자〉 : 양근 수석부회장, 대균 본부장, 승기 감사, 형근 사무국장, 건열 조직부회장, 종문 홍보부회장, 정숙 여성부장/ 맹근, 근태, 신근, 경근, 현식, 동렬, 정렬, 남렬, 전열, 초섭, 재열(석문), 양균, 홍구(이상 부회장) : 20명

대중회 소식

● 서울·호남·영남 3본부 실무책임자 간담회 (2025.01.18.)



- 일시: 2025.01.18.(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대전시 유성구 소재 <어선재> 음식점
 - 토의사항
1. 2025년 2월 종무회의의 준비사항
 - 금년 종무회의일은 회칙상 2/8(토)이나, 종무회의의 준비 여건상 부득이 2주 후 2/23(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대전시 중구 <孝문화마을> 가계약 조치함.
 2. 2025년 3월 정기총회 준비사항
 - 2003년부터 7개 문중이 돌아가면서 정기총회 유사를 맡아주신 덕분에 매년 정기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각 문중 사정으로 인하여 문중 주관으로 정기총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년 정기총회는 대중회 주관으로 대전시 중구 <孝문화마을>에서 개최하고, 내년 이후 정기총회 개최에 대하여는 금년 정기총회 이후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음.

3. 공동부담 집행경비 정산 방법 개선

-대중회 집행경비 중 서울·호남본부 공동부담분을 서울본부에서 우선 집행하고 다음해 정기총회 이후 1년이 지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가급적 경비집행 시마다 공동부담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음.

(대중회 정기총회, 종무회의 등 각종 행사 경비, 총회지원금, 장학금, 종보발행비, 사무국장 활동비 등)

4. 2025년도 대중회 중점 사업 추진

- 전자족보(신유보 자손록 전산입력 추진 / 대중회 관리업무 전산화
- 장학기금 조성사업(종무회의일에 장학회 창립총회 개최 추진)
- 도선산 묘역 정비·정화사업
(실행 가능한 마스터플랜 준비)

5. 2025년 제25호 대중보 발행계획

6. 대중회 재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강구

<참석자>

[서울경기] 양근 수석부회장, 대균 본부장, 승기 감사, 형근 사무국장, 종문 홍보부회장 (이상 5명)

[호남] 종순 대중회장, 동근 본부장, 현교 감사, 도근 총무부회장, 순교 재무부회장 (이상 5명)

[영남] 동우 본부장, 민곤 종무위원(총무) (이상 2명) : 총 12명

2024 호남지역본부 임원회의·간담회

▶호남본부 임원회의(2024. 1. 22. 월, 11:00)



- 참석 대상: 호남본부 임원(참석자: 회장, 본부장, 산악회장, 감사, 은열 전 본부장, 총무, 재무, 낙균, 동석, 종선, 승중. 총11명)
- 장소: 호남본부 사무실
- 협의 내용
 - 24년 종무회의와 총회를 위한 현안 협의
 - 24년 신임 종무위원 추천에 관한 건
 - 호남본부와 대중회의 제반 행사에 다수 문중 대표자의 참석 방안
 - 전자족보 홍보와 수단 접수에 관한 건

▶호남본부 임원회의(2024. 2. 16. 금, 11:00)

- 참석 대상: 호남본부 임원
- 장소: 호남본부 사무실
- 협의 내용
 - 24년 종무회의와 총회 참석을 위한 현안 협의

▶호남본부 전 임원과 추천 종무위원 간담회 (2024. 4. 16. 화, 1:30)

- 장소: 상무지구 <해동활어> 식당

- 참석 대상: 호남본부 전 임원과 종무위원
(참석자: 회장, 본부장, 기주, 현교, 성수, 은열, 낙균, 남근, 동석, 종선, 승중, 종희, 승훈, 면기, 명숙, 순교, 도근. 총 17명)

- 협의 내용
 - 대중회 회장 취임 첫 인사차 마련한 자리
 - 제반 종사에 젊은 후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대중회 활성화에 방안에 관한 건
 - 기세조 시제(4월 17일. 음 3월 9일) 참배와 묘역 성역화에 관한 건
 - 4월 24일(수) 양평공 시제 참배에 관한 건



▶대중회 3본부 임원(실무책임자) 간담회 (2024. 8. 17. 토, 11:00)

- 장소: 호남본부 사무실/금호식당
- 참석자: 회장, 양근, 대균, 동근, 동우, 형근, 현교, 승기, 도근, 순교, 건열, 종문, 종선, 계충 13명
- 협의 내용
 - 대중회의 활성화를 위한 심층적 협의

대중회 소식

▶호남본부 임원회의(2024.11.12.(화) 11:00)

- 장소: 호남본부 사무실
- 참석 대상: 호남본부 임원
- 협의 내용
 - 대중회와 호남본부 활성화를 위한 현안 협의
 - 젊은 후손들의 적극적인 동참 권유로 승조 정실 실천과 친목단합 도모에 관한 건
 - 대중회와 호남본부의 각종 행사에 각 문중의 적극적인 참석 유도에 관한 건

▶송년 오찬 (2024. 12. 13. 금)

- 장소: 호남본부/새송정떡갈비
- 참석 대상: 호남본부 임원과 신임 추천자 4명 등 총16명 참석
- 협의 내용
 - 25년 대중회 회장의 대중회 운영 방향에 관한 인사말
 - 2025년 신임 임원 추천자와 상견례 (동원, 승준, 금열, 현권)
 - 2024년 송년 오찬

▶집행부 임원회의 (2025. 1. 8. 수, 11:30)

- 장소: 호남본부 사무실
- 참석 대상: 호남본부 집행부 임원
(참석자: 회장, 본부장, 총무부회장, 재무부 회장, 동원, 금열)
- 협의 내용
 - 신년도 단배식
 - 2025년 종무회의 제안 건 및 참석에 관한

협의

- 2025년 정기총회 개최 준비의 관한 협의 (대전 효문화마을 예정)
- 제25호 대중보 원고(종무회의 날까지 기고 요망. 3월 총회시 800부 인쇄 배부 예정)

▶25년 종무회의와 총회 사전 모임 (2025. 2. 6. 목, 11:30.)



- 장소: 호남본부 사무실
- 참석 대상: 호남 임원(참석자: 회장, 본부장, 현교, 도근, 순교, 동원, 금열)
- 협의 내용
 - 25년 종무회의 준비에 관한 건 (간식 준비와 다수 참석자수 확보 방안)
 - 25년 고문, 부회장, 종무위원 추천 건
 - 신임 고문 추천(4명: 영택 정언공문중 회장, 은열 전 호남본부장, 천년 봉사손, 창희 부 회장)
 - 신임 부회장(1명: 총회 종무위원)
 - 신임 종무위원 (5명: 동원, 승준, 금열, 현권, 승기)

2024 영남지역본부 임원회의

▶영남종친회, 2024년 1차 임원회의

- 일시: 2024년 1월 27일
- 장소: 부산 범어사 입구 풍년오리박사
- 참석자: 이사 16명
- 논의사항:
 1. 2023년 시제 행사 및 정기총회의 결과 보고
 2. 종무회의와 대중회 일정공지 및 참석자 파악
 3. 송조당 입구 표지석 설치 건의



▶영남종친회, 2024년 2차 임원회의

- 일시: 2024년 10월 26일
- 장소: 부산 범어사 입구 풍년오리박사
- 참석자: 이사 16명
- 논의사항:
 1. 2024년도 결산보고
 2. 시제 및 정기총회 (11월 3일) 개최 승인



▶영남종친회, 2024년 송조당 시제 및 정기총회

- 일시: 2024년 11월 3일
- 장소: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 소재 <송조당>
- 행사내용:
 1. 영남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나주오씨 송은당공파 후손 50여 명이 모여 시제를 지냄.
 - 초헌 오동우, 아헌 오경호, 종헌 오기호
 - 시제 이후 정기총회를 실시
 - 오동우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경과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2. 송조당 입구 표지석을 완성하여 모두 만족



기세조 중랑장공, 2세 예빈시정공 시제 봉행(24.4.17. 음 3.9.)

■ 기세조 중랑장공(휘 언) 시제 봉행

수헌은 태열 종친, 아헌은 정섭 부사공문중 회장, 종헌은 종선 삼도농협조합장, 축관은 현교 대종회 감사가 분정하여 봉행하였다.

■ 2세 예빈시정공(휘 계진) 시제 봉행

수헌은 상열 도암공문중 회장, 아헌은 필렬 칠송공문중 회장, 종헌은 희성 석문공문중의 후손, 축관은 현교 대종회 감사. 산신제 제관은 안모 부회장으로 분정하여 현교 대종회 감사의 집례로 모셨다.

이날 문중별 참배자는 부사공문중에서는 정섭 부사공문중 회장, 종선 삼도농협조합장, 종희 종무위원, 춘섭. 승기. 효섭. 호열. 흥남. 공열. 동교. 산열 등 후손들이 다수 참배하였고, 그리고 금양군문중에서는 안모 부회장, 칠송공문중에서는 필렬 칠송공문중 회장, 현교 대종회 감사가 참배하였고, 송계공문중에서는 기주 전 광주향교 전교, 효열 6.15 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상임대표, 장탄문중에서는 동석 부회장, 일균, 형교, 재균, 종순 등 후손들이 참배하였으며, 석문공문중에서는 은열 나성군중중회장, 도근 총무부회장, 희성 부회장 그리고 도암공 문중에서는 상열 도암공문중 회장과 태열, 남열, 순열, 영식 등 고창의 도암공 후손들이 참배하였다.



금성군·서윤공 시제 봉행(24.4.23. 음 3.15.)

■ 금성군 시제 봉행

수헌에 행근 대종회 고문, 아헌은 도근 총무부회장, 종헌은 성수 오성산악회장, 축관은 현교 대종회 감사, 집사는 순교 재무부회장과 종경 후손으로 분정하여 광교 광주향교 재단이사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 서윤공 시제 봉행

수헌은 은열 양평공종중 회장, 아헌은 현교 대종회 감사, 종헌은 정균 전 대종회 종무원장, 축관은 기주 전 광주향교 전교, 집사는 순교 재무부회장과 종경 후손으로 분정하여 광교 광주향교 재단 이사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이날 문중별 참배자(무순)는

금양군문중에서는 성수 오성산악회장, 동근 호남본부장, 안모 부회장, 부사공문 중에서는 종선 삼도농협조합장, 송계공문 중에서는 기주 전 광주향교 전교, 칠송공 문중에서는 필렬 칠송공문중 회장, 현교 대종회 감사와 종순 후손이 참배하였고, 장탄문중에서는 광교 광주향교재단 이사, 정균 전 대종회 종무원장, 동석 부회장, 순교 재무부회장, 형교, 재균, 일균, 후손들이 참배하였으며, 석문공문중에서는 행근 대종회 고문, 은열 나성군종중 회장, 도근 나성군종중 총무, 참판공 문중에서는 경교 종무위원, 승중 부회장 그리고 지봉공 문중에서 종경 후손이 참배하여 당일 총 23명이 참배하였다.

나성군·나원군·금양군 시제 봉행(24.4.24. 음 3.16.)

■ 5세 나성군(휘 자치. 시호 양평공) 시제

수현은 은열 나성군종중 회장, 아현은 상열 도암공문중 회장, 종현은 천년 나성군종중 봉사손 그리고 축관은 현교 대종회 감사, 집사는 순교 대종회 재무부회장, 동석 대종회 부회장으로 분정하여 광교 광주향교재단 이사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 6세 나원군(휘 세훈) 시제

수현은 태열 종친, 아현은 승중 부회장, 종현은 형교 종친, 축은 현교 대종회 감사, 집사는 부회장인 순교와 동석으로 분정하여 의전장인 광교 광주향교재단 이사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 7세 금양군(휘 겸. 시호 정간공) 시제

수현은 성수 오성산악회장, 아현은 희열 대종회 고문, 종현은 홍수 종친, 축은 현교 대종회 감사로 분정하여 광교 광주향교재단 이사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문중별 참배자는, 금양군 후손 성수 오성산악회장, 동근 호남본부장, 홍수 종친, 안모 부회장, 부사공 문중 종선 삼도농협조합장, 칠송공문중 필렬 회장, 현교 대종회 감사, 장탄문중 희열 고문, 광교 광주향교재단 이사, 정균 전 종무위원장, 동석, 순교 부회장, 형교, 재균, 종순, 석문공문중 은열 나성군종중 회장, 도근 총무부회장, 참판공문중 경교 종무위원, 승중 대종회 부회장, 도암공문중 상열 도암공문중 회장, 후손 태열, 남열, 순열, 영식 등이 고창에서 참석, 총 25명의 후손들이 참배하였다.



양평공(나성군) 정향제(24.10.17. 음 9.16.)

수헌은 은열 나성군종중 회장, 아헌은 동근 호남본부장, 종헌은 천년 나성군종중 봉사손, 진설은 필렬 칠송공문중 회장, 축은 도근 대종회 총무부회장, 봉향은 안모 대종회 부회장, 봉로는 종선 삼도농협조합장, 사준은 종상 종친, 전작은 종희 전 보건대학교 교수, 찬인은 희열 대종회 고문이 분정하여 배향하였다.

이날 참배한 각 문중별 후손들은 부사공문중에서는 종선 부회장, 종희 종무위원, 효섭, 종남 후



손, 금양군문중에서는 성수 오성산악회장, 동근 호남본부장, 안모 부회장, 흥수 종무위원, 칠송공문중에서는 필렬 칠송공문중 회장, 현교 대종회 감사, 천년 나성군종중 봉사손, 장탄문중은 희열 대종회 고문, 동석 대종회 부회장, 순교 대종회 재무부회장, 참의 공문중에서는 순종 대종회 부회장, 명곡공문중에서는 만균 명곡공문중 회장, 낙균 대종회 부회장, 석문 공문중에서는 은열 나성군종중 회장, 도근 대종회 총무부회장, 송계공문중에서는 인국 전 송계공문중 회장, 정옥 송계공문중 회장, 동원 종친, 현권 종친 등 총 23명의 후손들이 참배하였다.



금양군 정향제 봉향(24.10.11. 음 9.9.)

후손들이 세운 광산사(광산구 세동길 9-14)에서 이날 정향제를 광주향교 유림이 주관하여 제 관분정을 하였다. 금양군문중의 파조인 휘 겸謙은 시호가 정간공이며, 1550년(명종 5) 금양군으로 봉군되었고, 1564년 좌찬성에 올라 왕으로부터 궤장을 내려받고 기로소에 들어갔다. 조선 중종 27년(1532)에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주요 관리를 거쳐 선조 4년(1671)에 우의정에 이르렀으며, 지춘추관사가 되어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수헌은 강백원 전 영암군수, 아헌은 정영기 광주 원로유림, 종헌은 정영배 화담사 보존회장, 축은 민헌기 성균관유도회 시본부 기획실장, 진설은 길빈 나주오씨대종회 부회장, 봉향은 노재성 광주유림, 봉로는 지달엽 광주유림, 사준은 순교 대종회 재무부회장, 봉작은 효열 나주오씨대종회 종무위원, 전작은 종회 대종회 종무위원, 찬인은 희열 대종회 고문, 그리고 전 광주향교 유진창 수석장의가 집례하여 봉향하였다.



석문공 시제 봉행(24.11.2. 11월 첫째 토요일)

석문공문중의 파조인 석문공(휘 이익以翼)은 1646년(인조 24) 사마시 합격, 1652년(효종 3) 증광 문과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의 전직, 예조좌랑, 병조좌랑 겸 지제교 함평현감을 역임하였다. 이날 사당인 빙설당(광주광역시 광산구 동호동 272)과 공의 양부인 충의위공(휘 희유)의 제실인 염수제에서 후손들이 지극 정성으로 아래와 같이 배향하였다.

석문공 시제는 수현은 근원 종친, 아현은 선근 종친, 종현은 병현 석문공문중 회장, 사준은 도근 대종회 총무부회장, 축관은 묘갑 종친, 집사는 항근과 필열 종친이 분정되어 배향하였다.

이날 석문공과 함께 배향하는 석문공의 양부인 충의위공(휘 희유)의 시제는, 수현은 병현 석문공문중 회장, 아현은 봉열 종친, 종현은 창희 대종회 부회장, 사준은 도근 대종회 총무부회장, 축관은 묘갑 종친, 집사는 항근과 필열 종친이 제관으로 분정되어 분향하였다. 석문공과 함께 배향하는 석문공의 큰아들인 송주공(휘 봉석)의 시제는 수현은 은열 나성군종중 회장, 아현은 민기 종친, 그리고 종현은 상열 종친, 사준은 봉열 종친, 그리고 축관은 도근 대종회 총무부회장, 집사는 항근과 필열 종친이 맡아 배향하였다.



도림사 향사 봉행(24.4.28. 음 3.20.)

■ 도림사 향사 봉행

조선 후기 성리학 대학자인 노사 기정진과 난와 오계수, 후석 오준선 두 분 선조님이 배향되신 도림사에서는 이날 나주향교와 광주향교의 유림들이 주관하여 제관을 분정하여 봉행하였다.

초헌은 김평호 전 나주향교 전교, 아헌은 박천수 전 나주향교 유도회장, 종헌은 강기술 전 광주향교 부전교, 축관은 최영훈 충의사 별유사, 진설은 병현 석문공문중 회장, 봉향은 근헌 석문공 후손, 봉로는 종퇴 장탄문중 총무, 사준은 도근 총무부회장, 봉작은 동석 부회장, 전작은 장민 후손, 집례는 김윤한 성균관 광주유도회 동구지회장, 찬인은 유만권 전 광주향교 총무수석장의, 그리고 김하배 광주향교 장의가 참배하였으며, 도유사는 강대욱 전 광주향교 전교, 별유사는 광교 광주향교재단 이사과 길빈 부회장, 그리고 종손인 종채가 참배하였다.

문중별 참배자(무순)는 장탄문중에서 종채 종손과 영창, 영준, 종퇴, 동석, 종민, 종환, 장민 등이 참배하였고, 칠송공문중에서는 현교 대종회 감사, 석문공문중에서는 길빈 부회장, 은열 나성군종중 회장, 병현 석문공문중 회장, 도근 나성군종중 총무, 근헌, 종인 등 총 20명의 후손들이 참배하였다.



통정대부 병조참의공 오상욱



오 희 근¹⁾

참의공參議公 휘諱 상욱相昱공의 자字는 명거明舉이다. 1798년 정조正祖 22년 무오년戊午年 말띠 생으로 나주 복만동福蔓洞(2014년 빛그린산단에 수용됨)에서 아버지 칠은공七隱公 휘諱 혜원惠源, 어머니 풍산홍씨豐山洪氏 사이에서 4남 중 2남으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관해공觀海公 휘諱 시활時活이며, 증조할아버지는 거거재공居居齋公 휘諱 대훈大勛이고, 석문공파石門公派 파조派祖 휘諱 이익以翼의 5대손이다.

공의 슬하에 장환, 두환, 암환, 석환 4남과 4녀를 두었으며, 5대 직계손이 나주오씨대종회 고문인 광구光久와 동률東律. 근우根吁 삼 형제이다. 공의 6대 외손 변우석(변재련·오향란 부부의 아들. 광구 삼 형제의 생질)은 유명 연예인이다.

공은 필자의 5대 종조부從祖父가 된다. 공은 성균관에서 2년간 공부한 후 37세 되던 해(순조純祖 34년. 1834년 갑오 식년시甲午式年試. 문과(대과) 병과丙科 11위(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39명, 총 49명 중 21위)로 급제(합격)하였다. 38세 때 1835년 헌종 원년에 조봉대부朝奉大夫 행行²⁾ 봉상시奉常寺 참봉參奉 겸 부정자副正字를 제수받아 첫 관직에 나간 후 25년간 관직 봉직하였다.

1836년 헌종 2년에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교서관校書館 교리敎理에 올랐으며

1838년 헌종 4년에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형조좌랑刑曹佐郎을 제수받았고

1844년 헌종 10년에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에 임명되었다.

1845년 헌종 11년에 통훈대부通訓大夫 행行 예조좌랑禮曹佐郎을 제수받은 후, 이어서 1846년

1) 오희근吳熙根: 수재화가.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대한민국수재화작가협회, 전 삼화콘텐츠공업(주).대동콘텐츠공업(주) 상무이사, 기술고문.

2) 조선시대 품계와 관직이 일치 하지 않은 관원에게 주던 칭호.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 행行 자를 관직명 앞에 쓰고, 반대의 경우 품계보다 높은 관직의 경우에는 수守 자를 관직명 앞에 썼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행수법行守法)

헌종 12년에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행 보안도保安道 찰방察訪으로 나갔다. 1846년 헌종 12년에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행 보안도 찰방 겸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을 역임하고, 1851년 철종 2년에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행 병조좌랑兵曹佐郎에 올랐다. 1852년 철종 3년에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행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에 제수된 후, 이어서 1852년 철종 3년에 통훈대부通訓大夫 승문원承文院 판교判校 겸 춘추관春秋館 편수관編修官에 올랐다. 1855년 철종 6년에 통정대부通政大夫(정삼품 상계正三品 上階)에 제수된 후 마침내 1857년 철종 8년에 공의 생애 최고의 관직,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참의兵曹參議 당상관堂上官에 올랐다.

공의 정실正室 울산김씨는 전남 장성 출신의 조선 중기 대유학자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후손으로서, 1858년 철종 9년에 외명부外命婦 품계가 숙부인淑夫人³⁾에 이르렀다.

공은 장성부長城府 내동면內東面 올곡리栗谷里(전남 장성군 진원면 올곡리)로 이거移居하였다. 나주목 함평현 복만동에서 장성 올곡리로 이거(이사)한 것은 당시 올곡리에 조선 후기 대성리학자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선생 기정진⁴⁾(1798~1879)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의 사적비에 ‘노사 선생과 같은 해(1798년. 무오생)에 태어나 함께 공부하였다(蘆沙 奇公과 同年而生하고 同學이 成하다: 노사 기공으로 동년이생하고 동학이 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957년 발간된 『나주오씨가세보 단羅州吳氏家世譜 單』(정유보丁酉譜)의 공의 행장行狀 기록에 의하면, “공은 타고난 풍채가(인물이) 반듯하고 중후하게 잘 생겼으며, 생각하는 마음이 넓고 깊으며 잘 정돈되어 있었다(天姿端厚 器局峻整: 천자단후 기국준정). 부모 형제에 효도와 우애가 두텁고 깊었으며 친인척과 문중의 종친들과도 화목하였고, 일찍 과거에 올라 친구들이 높이 받들고 존경하였다. 격변기인 당시에 어진 정승과 이름있는 고관들이 자기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벼슬에 오른 뒤로는 집에 있는 때가 하루도 없었다. 벼슬에 있을 때는 그 직책을 다하여 좋은 일을 하여 쌓은 업적과 덕망이 뛰어났다. 보안찰방保安察訪으로 있을 때 자신은 절약하고 공사公私에는 공정하여 폐단弊端이 많은 역졸驛卒들을 엄히 다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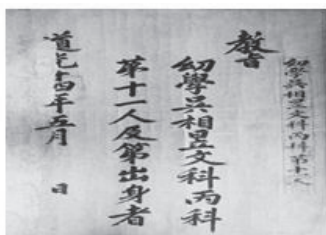
부모의 천성을 닮아 낙천적이요 일을 처리할 때는 공평하였다. 평소에 뽐내는 일이 없으며 몸가짐과 차린 모습을 바라보면 감히 사람들이 비의非義⁵⁾한 일로 업신여기지 못하였다.

1859년 철종 10년 기미년己未年 6월 4일, 62세를 일기로 한양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공의 묘와 사적비는 빛그린산단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동쪽 응유산鷹遊山(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동 16-4번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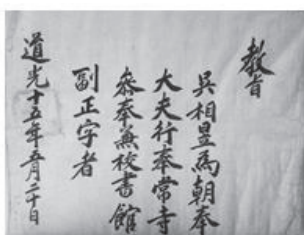
3) 조선시대에, 정3품 당상관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외명부의 품계(국어사전).

4) 자는 대중大中, 호는 노사蘆沙, 시호는 문간文簡.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로서 노사학파의 종조이다(위키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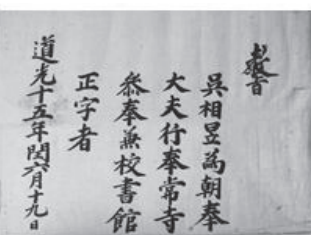
5) 정의롭지 못한 일 (필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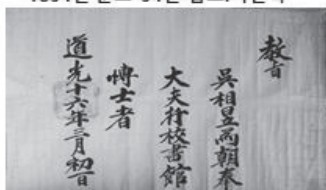
(교지1) 대과 (병과) 11위 급제
1834년 순조 34년 갑오, 식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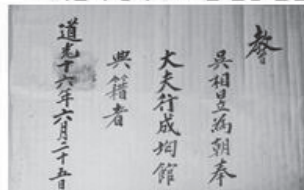
(교지2) 조봉대부 행 봉상시 참봉 겸
교서관 부정자 1835년 헌종 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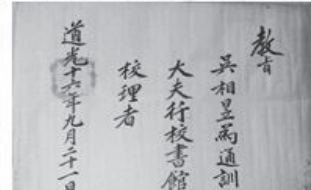
(교지3) 조봉대부 행 봉상시 참봉 겸
교서관 정자 1835년 헌종 원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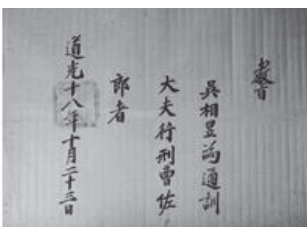
(교지4) 조봉대부 행 교서관 박사
1836년 헌종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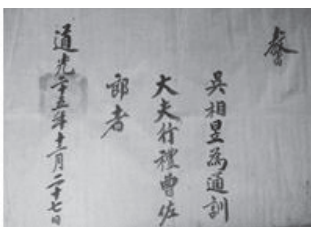
(교지5) 조봉대부 행 성균관 전적
1836년 헌종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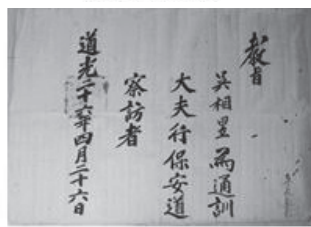
(교지6) 통훈대부 행 교서관 교리
1836년 헌종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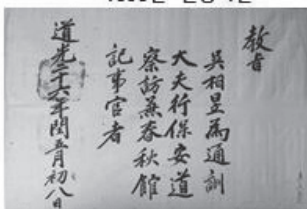
(교지7) 통훈대부 행 형조 좌랑
1838년 헌종 4년



(교지10) 통훈대부 행 예조 좌랑
1845년 헌종 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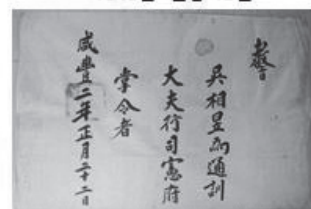
(교지11) 통훈대부 행 보안도 철방
1846년 헌종 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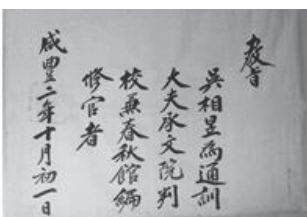
(교지12) 통훈대부 행 보안도 철방
겸 추추관 기사관 1846년 헌종 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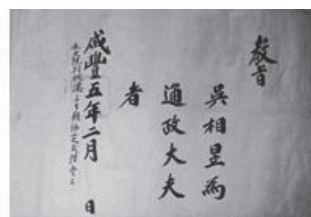
(교지14) 통훈대부 행 병조 좌랑
1851년 철종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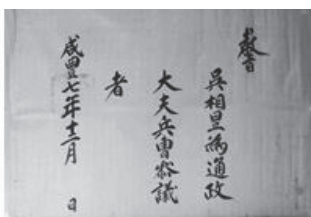
(교지15)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
1852년 철종 3년



(교지17) 통훈대부 승문원관교 겸
춘추관 편수관 1852년 철종 3년



(교지19) 통정대부 (정삼품.당상관)
1855년 철종 6년



(교지20) 통정대부 병조 참의
당상관 1857년 철종 8년



통정대부 병조참의 당상관 오상욱공의 묘
(광주광역시 광산구 덕림동 16-4번지)



묘비



사적비

병암 오상순, 하서 김인후 선생 신주神主 위패位牌를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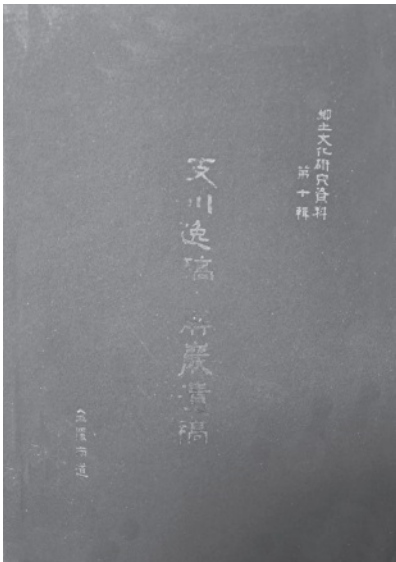


오 낙균_ 부회장 (명곡공문중)

필자의 선대先代 병암屏巖 오상순吳相淳(1749~1799)은 명곡明谷 희도希道(1538~1623)의 6대손이며, 진사進士 보원普源(1714~1753)의 셋째 아들로써 울산김씨蔚山金氏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1510~1560) 선생의 8대손 참봉공으로 방덕邦德의 둘째 사위이다.

병암 선생께서는 언론이 정직正直하시고 학문이 우수하시어 많은 글이 있어 전라남도에서 발간한 『지천일고 병암유고』(향토문화연구자료郷土文化研究資料 제10집, 1987.11.30.)가 박물관에 존재한다. 또한 “서예가 훌륭하시어 신명필가神名筆家로 여러 곳에 친필이 남아있으며, 27세 때 글을 짓고 쓴 명옥헌鳴玉軒의 남서쪽 벽에 걸려 있는 「장계고동기藏溪古桐記」(장계골에 있는 오래된 오동나무 이야기란 뜻으로, 명곡 선생과 인조대왕의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47세 때 글을 짓고 쓰신 「도장사 영건기사道藏祠 營建記事」 현판懸板이 있다. 특히 나라 안 유림儒林에서는 하서 김인후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 236년이 지난 1796년 정조正祖 임금 때 18 현인賢人으로 추대推戴되시고 성균관成均館에 문묘文廟되어 장성 문정묘文正廟에 모신 신주神主 위패位牌를 쓰셨다고 전해오고 있다.

18 현인에 추대되시어 성균관 및 전국 향교대성전에 봉안된 하서 선생은 매년 대한민국 모든 유림이 참관하여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소재 필암서원筆巖書院에서 春(봄), 秋(가을) 향제鄉祭와 돌아가신 기일忌日을 기념하는 울산김씨종중蔚山金氏宗中 하서 김인후 선생 종가宗家 부조묘인 문정묘文正廟에서 봉행奉行하는 기제忌祭를 모시므로 문정묘에 모신 신주神主, 곧 병암 선생께서 쓰신 신주 위패位牌가 봉안되었다기에 장성에 살고 있는 병암공 7대손 오낙균吳洛均은 2025년 2월



13일(1.16.) 참관 분향하면서 할아버지의 친필親筆을 보았습니다.

봉행奉行되는 기제忌祭에는 울산김씨 하서 종중宗中 50여 명이 참석하시어 참으로 숙연스럽고 엄숙하며, 향내음 가득 하여 선생의 학문學文을 새롭게 상기하면서 봉행奉行되었습니다. 저는 신위를 뵈은 즉 우리 선조 할아버지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신주神主를 더 가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사진이라도 찍고 싶다고 하니 종중宗中분들께서는 사진으로도 신주를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며 엄하신 관리에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패位牌 쓰신 분의 7대손 낙균洛均이라는 사실로 꼭 한 번만 찍으라는 허락을 주시어 한차례 찍어 담아 왔습니다. 참으로 간결하고 정교하게 깨알처럼 한 줄로 써 내린 73자 글씨가 인쇄본印刷本같이 또렷또렷하며, 돋보기라도 대어 확대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마치나 신들린 붓끝 돌림이 머리카락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구전口傳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선생先生께서 1796년 문묘 배향되시어 필암서원筆巖書院에서 새로운 신주神主 위패位牌 제작 준비를 다 하시고서… 글씨 쓰실 분을 찾으셨으나 만인 중에 선풍 나서는 학자學者 한 사람 없던 차, 체구가 적으시며 도포차림에 갓을 쓰신 골격骨格이 뚜렷한 선비 병암屏巖 선생께서 조랑말을 타시고 필암서원 확연루廓然樓에 만자의 환영을 받으

시며 당도하시니 많은 선비, 학자, 유림들이 이제야 위표를 쓰실 오 선생吳先生이 오셨다며 맞으니…,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알아놓은 떡과 여러 크고 작은 붓을 준비해 놓은 것이다. 병암 선생께서는 꽤히 그 중 제일 큰 붓을 골라 잡아들고 먹을 머금어 곱게 다듬고 마련된 곳에 ‘현조고顯祖考…’ 하고 쓰기 시작하시는데, 첫 글자가 약간 크게 시작하시니 보는 모든 관중, 학자들이 노파심에서 수군거리며 걱정이 커지면서 주의가 숙연해지는데 병암께서는 조금도 흔들린 내색 없이 끝까지 완필完畢하시고 나서 붓을 놓으시며, ‘어흠!’ 큰기침을 하시니 만인들은 그제야 칭송

藏溪古桐記
 桐之木古方奇其古而最奇
 奇之尤奇者說者云桐材之宜
 宜琴宜瑟宜棺槨宜屏幃几函
 用遍適見者即斧斤之不暇以
 能壽者鮮最久十有年二十年
 三十年四十年幸而犯百
 古矣又壽於是而百有餘歲
 古而最古者歟以斧斤不暇之
 其古而古是謂奇之奇奇者
 瘦幹老殼論

道藏祠營建記事
 洞道藏溪藏矣取于藏我明谷先生于嘗朝夕道
 名洞與溪歟宋子云吳人地才望為及正初首其守
 見仁廟在潛郊採遜野之菴幸溪上先生書進老母
 字因薦廢表從社孝立其時繫馬桐為後人愛憎間若
 長壽餘在昔松江先生建院時多以先生擬並服事
 翁肆有人心不淑之歎先生之書室纔數間茅曾
 先生之李胤生負公繼而居焉亦有道世稱藏溪先
 不克讓遂起軒於其砌下曰鳴玉作亭於其南巖超然
 曰在洞藏復舊額曰溪之水濤然間流循地勢高下錢
 洞足游之艇列植松栢梅竹楓榆桐楊冬栢之木若腐土
 卧者者歌者嘯然傲然如顧如應千態萬狀談羅于
 文也也

稱

頌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 우리 집안에서는 목판木版에 쓰셨다고 전해져 왔는데, 사실 목판이 아니고 순수한 하얀색의 한지韓紙에 쓰여 있었습니다.

참석한 그날 제가 보는 신주神主 위패는 22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 점 티 없이 잘 보존保存, 관리管理해 오는 것을 보고 더 귀하고 훌륭하게 느끼고 감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조의 얼이 학문으로 유명한 울산김씨蔚山金氏 집안 장성에 존재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기쁘며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후대까지 영구 보전되어 문화재유물 지정을 받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참으로 보람차고 기억에 남은 하루를 울산김씨종중의 귀대貴待를 받고 왔습니다.

악수에 대한 예절禮節



오 기 선_대중회 고문, 수도권친목회장

사회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사법이 악수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인사 방법의 하나가 악수이며, 가장 일반화된 비즈니스 예절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공통의 인사법이기도 하다. 물론 악수가 통하지 않거나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문화권도 있다고 하지만 국제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진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악수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악수 하나로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될 수도 있는 악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악수에 대한 기원은 다른 여러 예법처럼 그 기원이 명확하지 않다. 고대 바빌론 시대는 신성한 힘이 인간의 손에 전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통치자가 성상의 손을 잡았으며, 중세 때 잉글랜드 기사들은 상대방과 싸울 의사가 없을 때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른손을 내밀어 잡았는데 이것이 악수의 유래가 되었다는 말이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중요한 악수 인사법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실천하고 있는가? 아직 그 방법을 몰라 상대방에게 실례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부터 악수 예절에 대해 알아보자.

악수란, 감사와 친애, 화해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사람이 각자 한 손을 내밀어 잡는 일로, 보통 오른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손을 잡는 것이 보통이다.

악수할 때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의 눈을 응시하고, 적당한 힘을 주고 손을 잡으면서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지나치게 흔들지 않고 두세 번 정도 흔드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다.

예를 들면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의 뜻으로 악수하는데, 아랫사람이 인사도 하지 않고 윗사람한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예의상으로 손아랫사람

올바른 악수예절편



1. 자리에서 일어나서

악수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때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보며 미소를 짓는 것이 좋다.



2.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오른손을 내밀며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길 권한다.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해도 좋다.



이 윗사람한테 인사를 하였을 때는 윗사람은 덕담 한마디를 하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해야 한다. 이때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손을 겸손하게 잡는 것이 악수의 예의이다.

친구 간에도 악수할 때는 손을 가볍게 잡고 손을 흔들면서 덕담을 나누는 것이 악수의 예법으로, 친구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굽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남녀 간의 악수에는 여성이 먼저 악수를 권하는 것이 좋지만, 남녀 간의 악수에도 상하의 구별이 있을 때는 상급자가 먼저 청해야 한다.

악수는 상대가 반갑고 존중하는 뜻에서 악수하는 것이다. 주로 지위가 높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청하는 것이 관례적이며, 손을 너무 오래 잡거나 상대를 보지 않고 시선을 돌리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또 악수할 때 항상 오른손으로 해야 하며, 다른 손을 주머니에 넣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삼아야 한다. 악수할 때는 허리는 곧게 펴는 바른 자세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상대를 보며 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직장 상사나 연장자 경우의 악수 예절은 10~15도 정도 허리를 굽혀서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왼손에 적당히 힘을 주어 잡고 두세 번 흔드는 정도가 예절의 기본이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악수 하나에 사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회에서는 사람을 평가하고 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제부터는 악수의 예절들을 잘 숙지하

여 상대방에게 매너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도록 하자.

비즈니스 악수의 기본 원칙

● 손의 위치와 강도 조절

- 악수할 때 손바닥이 상대방과 평행을 이루도록 한다.
- 지나치게 강한 악수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너무 약한 악수는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다.
- 적절한 강도로 단단하지만 부드럽게 잡아야 한다.

● 적절한 악수 시간

- 악수는 2~3초가 적당하며,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면 어색함을 줄 수 있다.
- 악수 후 자연스럽게 손을 놓으며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 눈맞춤과 미소

- 악수할 때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는 것이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 친근함이 더해져 비즈니스 관계를 원활하게 만든다.

● 손의 청결 유지

- 손이 땀이 많다면 미리 손을 닦거나, 손바닥이 차갑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보습제를 사용하여 손을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한 힘으로 잡은 손을 2~3회 흔든다.
손을 세게 쥐거나 과하게 흔드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니 되도록 피한다.



4. 오른손에 짐이 있는 경우

오른손에 있는 짐을 왼손으로 옮기거나 바닥에 내려두고
악수한다. 만약 손에 땀이 났다면 미리 손수건으로 살짝
닦고 인사는 하는 것이 좋다.



6.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악수는 수평적 의미를 지닌 서양식 인사로
허리를 펴고 대등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악수 '자세'라는 걸 잊지 말자.



5. 악수 청하기

악수 청할 때는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고객이 직원에게 먼저 청하는 것이 기본이다.



도암韜庵 오희길吳希吉의 학문과 역사정신



오 경 후¹⁾

I. 머리말

조선 제25대 임금 선조는 “간사한 무리들이 꼭 차고 간사한 말이 횡행하여 이이李珣과 성혼成渾이 배척당할 때 비록 조정의 선비라도 이이와 성혼을 구제하며 정여립을 배척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오희길은 오히려 이때 역적에게 편지를 주어 이이와 성혼을 높여 존중하고 역적의 심술이 어긋나고 사특한 정황을 배척하였다.”고 했다. 우계牛溪 성혼 역시 “독실하게 배우는 뜻과 절의를 행하는 바름은 ‘더러운 위학偽學에 변화되지 않고 과연 원대함을 채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할 만하네”라고 하였다.

동시대를 살았던 왕과 스승이 도암韜庵 오희길吳希吉(1556~1625)의 덕과 절의를 높이 칭송한 것이다. 도암이 정여립을 만난 것은 배움에 독실하고 많은 사람을 스승삼아 배우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정여립의 그릇됨을 절교로써 답했고, 정여립의 역모가 발생했을 때는 의연하게 대처하였다. 때문에 스승 성혼은 도암을 두고 ‘더러운 위학偽學에 변화되지 않았다.’고 칭송했다. 요컨대 그의 절의節義는 ‘독실하게 배우는 것’에서 나왔고, 배우는 것은 “부지런히 독서하여 문자 개오開悟의 방법을 안 것”에서 나온 것이다. 도암은 역모와 당쟁, 전쟁과 변동이라는 위기의 서막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를 살고 있었다. 그는 곡학아세曲學阿世하지 않았고, 사직社稷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며, 유종儒宗을 존중하여 그 근원과 계보를 정리하여 이이와 성혼의 도학과 덕업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그의 삶은 역류逆流였다.

도암 오희길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그가 지닌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활발하지 않다.²⁾ 나주오씨 고창군 마명종친회가 도암을 선양하고자 『왕조실록을 지킨 도암 오희길 참봉』을 펴냈고³⁾ 전라북도하고창이 그를 소개하기도 했다.⁴⁾ 또한 오희길의 『도동연원록』을 역주한 석사학위논문과⁵⁾ 문집을 국역하기도⁶⁾ 하였다.

1) 오경후吳京厚(OH Kyeong-Hwo). 동국대 및 동 대학원 사학과에서 공부하고 「조선후기 사지寺誌편찬과 승전僧傳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저서로는 『조선후기 불교동향사』 『사지와 승전을 통해 본 조선후기 불교사학사』 『한국근대불교사론』 『조선시대 불교의 호국과 호법』, 『석전영호대종사』(공저), 『신흥사』(공저) 등이 있으며,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사에 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과 불교학술원에서 연구교수와 전임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다.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2) 국사편찬위원회는 1988년 한국사상사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도암 오희길이 찬술한 『도동연원록道東淵源錄』(한국사료총서韓國史料叢書 제32집)을 간행한 바 있다.

3) 나주오씨 고창군 마명종친회, 『왕조실록을 지킨 도암 오희길 참봉』, 위드프린팅, 2023.

4) 전라북도, 『내고장 全北의 뿌리』, 전라북도, 1983.; 고창의 유학편찬위원회, 『高敞의 儒學』, 高敞郡, 1996.

5) 김애자, 『도동연원록』(권1) 역주,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22. 김애자의 글은 이 글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면을 통해서 고마움을 전한다.

6) (사)완산역사문화연구회, 「연보, 『도암선생문집』, 전주전통문화연구소, 2016.

오희길은 품체가 매우 좋고 의기가 당당하였고, 품성이 온화하였으며, 겉으로는 간소한 듯했으나 중심은 엄정하고 세밀하였다. 젊어서부터 경전과 사서, 성리서 등을 두루 섭렵했으며, 문장에 능했다. 평상시에는 효제충신孝弟忠信의 도를 다하여 부모를 섬기고, 상사와 제사는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거행하였다. 윤근수·변성온과 같은 당대의 명유名儒들과 교유하였고, 학문의 연원은 김인후와 성혼을 본받아 독학 정취하여 위학儒學의 허물이 없었다. 원대한 기상과 고매한 뜻을 간직하여 유종儒宗을 존중하고 『도동연원록』 4권을 저술했는데, 기자箕子를 맨 앞에 내세우고,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야은冶隱 길재吉再, 그리고 조선의 제현諸賢과 간혹 신라 고려의 명신들을 채록하였다. 또 『천명도설』과 『명대의편』 등에서는 사람의 의리를 논하면서 이이와 성혼의 도학과 덕업을 지지하고 찬양하였다.

도암 오희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유학사상사, 그리고 전라북도와 고창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 연구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가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그리고 조선의 역사와 사상의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 지역사 규명과 한국 전통문화의 정체성 재확립 차원에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도암 오희길의 삶과 사상, 그리고 절의를 조명하여 지역사와 선비정신을 규명하는 기초로 삼고자 한다.

II. 생애

오희길은 본관이 나주羅州, 자는 길지吉之, 호는 도암韜庵이다. 선대는 나주인으로 세조 대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신 나성군羅城君 오자치吳自治의 증손이다. 증조할아버지는 오세훈吳世勳이고, 할아버지는 오원吳源이다. 아버지는 공주판관을 지낸 승지공 오언기吳彦麒이다. 오희길은 1556년 고창현의 북쪽 필봉筆峰 아래의 사제에서 태어났다. 부친이 순천현감 박억령朴億齡의 사위가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나주를 떠나 처가인 고창에서 살았다. 그는 1566년(명종 21)부터 서당에서 글을 배웠는데, 총명하였고, 서책과 문방구를 좋아하니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내력이 있었다. 1571년(선조 4) 16세에 기효관奇孝寬의 딸과 혼인했고, 1573년(선조 6) 정월에 절에 들어가 글을 읽었는데, 부친 오언기는 시간을 아껴 글을 읽으라는 훈서를 보내기도 했다. 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동거지와 동정은 모름지기 느긋하고 엄숙하게 해서 용렬하고 잡스러우며 거칠고 게으른 습속을 짓지 말아야 하고, 조용하고 고아하게 하여 급박하고 만용을 부리는 태도를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한 모름지기 굳건하게 앉아서 부지런히 독서하여 문자 개오開悟의 방법을 아는 것 또한 좋겠다. 번거롭게 다니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⁷⁾

1575년(선조 8) 부친상을 당하자 벽옹擗踊⁸⁾ 하며 예법대로 장사 지내고 3년 동안 시묘를 하였다. 1577년(선조 10) 처당숙이자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제자인 금강錦江 기효간奇孝謙의 문하에서 『소학小學』을 공

7) (사)완산역사문화연구회, 「연보, 『도암선생문집』, 전주전통문화연구소원, 2016, 130쪽.

8) 벽옹擗踊: 아버지의 상사喪事에 상제가 슬피 울며 가슴을 두드리고 몸부림을 친.

부하고, 변성은卞成溫·정운룡鄭雲龍 등과 도의로 교유하였다. 기효간은 도암의 처 종숙부이기도 하다. 오히길은 이후 일정한 스승을 두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사찰이나 서원을 찾아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연마하였다. 변성온은 하서의 문인이고, 정운용은 기대승의 문인이었다. 이들 모두는 과거공부보다는 경학經學에 집중했다. 도암은 율곡과 우계 두 선생의 학풍을 흠양하며 추종하였다.

24세 때인 1579년(선조 12) 집터가 향교를 짓는 데 좋은 자리라 하여 팔기를 독촉하자 무상으로 내주고 순창의 고례촌古禮村⁹⁾으로 이사하였다. 원래의 고창향교는 고려 공민왕 때 학당동¹⁰⁾에 건립되었는데 지반이 습하고 규모가 협소하여 다른 곳을 택하여 이전하고자 하였다. 당시 고창의 선비들이 도암의 집터가 좋아 높은 값을 주고 사들이고자 했지만, “지금 부자夫子의 묘를 세우고자 하는데 어찌 한 집터를 아껴 높은 값을 요구하겠는가”하고는 집터를 기증했다고 한다. 도암은 이후 순창의 큰누이택으로 옮겨 의지하여 살았다.¹¹⁾ 고창향교는 집터를 비운 지 약 10년 뒤인 1589년(선조 22)에서야 비로소 이축하였다고 한다.

도암은 1582년(선조 15) 정여립鄭汝立을 만났고, 그 뒤 여러 차례 서신을 교환하였다. 정여립(1546~1589)은 전주 출신이다. 선조 초년에 급제한 뒤 이율곡과 우계 성혼의 성원을 받았고 촉망받는 젊은 문신으로서 조야에 이름이 났다. 그러나 율곡이 세상을 떠나자 태도를 바꾸어 동인 측 권신들과 가까이하고 이이와 성혼을 배척하였다. 1586년(선조 19) 정여립이 수찬修撰이 되어 율곡栗谷 이이와 우계 성혼成渾을 배척하는 소를 올리자, 그의 인간성이 좋지 않다고 여겨 절교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선조 또한 “이이가 일찍이 조정에서 여립을 등용하도록 천거하였는데, 여립은 매번 이이를 소인이라고 배척하기를 이같이 심하게 하니 아마도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 듯하다.”고¹²⁾ 비판하였다.

1589년(선조 22) 10월 황해도관찰사 한준韓準과 재령군수 박충간朴忠侃, 안악군수 이축李軸, 신천군수 한응인韓應寅 등이 전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 정여립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고변하여 정여립의 모역사건이 일어났다. 고변서를 받은 선조는 선전관과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황해도와 전라도에 파견하여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정여립은 안악에 사는 변승복邊崇福에게서 그의 제자였던 안악 교생 조구趙球가 자복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들 정옥남鄭玉男과 함께 도망하여 진안에 숨어 있다가 관군이 포위하여 도망갈 수 없게 되자 자결하였다. 이 사건으로 동인의 지도급 인물로 인식되었던 이발李潑·이길李洁·김우옹金字顥·백유양白惟讓·정인신鄭彦信·홍종록洪宗祿·정인지鄭彦智·정창연鄭昌衍 등이 유배당했고, 약 3년 가까이 정여립과 친교가 있었던 사람들과 1,000여 명이 동인이라는 이유로 처형 또는 유배당했다. 이 사건은 무고한 많은 인명의 살상을 초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호남 유생 정암壽丁巖壽를 비롯한 50여 인의 상소로 나사침羅士忱·나덕명羅德明·나덕준羅德峻·정인홍鄭仁弘·한효순韓孝純·정개정鄭介淸·유종지柳宗智·김우굉金字宏·윤의중尹毅中·유몽정柳夢井·조대중曹大中·우성전禹性傳·남언경南彦經 등 30여 인이 연루되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다. 이때의 상소로 조정의 동인계 고관과 함께 호남지방 사류가 다수 연좌되었다. 그 뒤로 전라도는 반역향으로 불리게 되었고, 호남지역 사류士類 간 반목과 대립이 후대에까지 이어져 여러 가지 문제를 낳기도 했다. 그뿐 아

9) 현재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10) 현재 고창읍 월곡리 제일아파트 부근.

11) 나주오씨 고창군 마명중진회, 『왕조실록을 지킨 도암 오히길 참봉』, 위드프린팅, 2023, 9쪽.

12) (사)완산역사문화연구회, 『연보』, 『도암선생문집』, 전주전통문화연구소, 2016, 143~144쪽.

나라 이 사건은 당쟁이 벌어질 때마다 주요한 현안으로 소환되었다.

당시에 정여립이 거짓으로 유가의 이름을 도용하여 인사들을 포섭하였는데 공의 집이 근처 고을에 위치하여 임오년(1582)에 처음으로 여립을 한번 보게 되었고, 그 후에 혹 가끔 지나다가 들렀는데 정여립의 발언과 처사가 패려함이 많음을 보고는 공이 본래 이미 그를 의심하였다. 정해년(1587) 봄에 여립이 율곡과 우계 두 선생을 배척한다는 것을 듣고 크게 놀라서 하곡에게 의논하니 하곡 또한 그와 절교하기를 권하였다. 이에 급히 장문의 편지를 지어서 여립의 사특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하니 거의 천여 마디였고, 편지 끝에 이르기를 “이로부터 나는 당신의 문하에 발걸음을 끊겠다.”라고 하였다. 기축년(1589)에 여립이 과연 모반했다가 복주되었다. 다음 해에 본도의 감사 홍여순洪汝詢이 공이 여립의 문도였다고 여겨서 부의 감옥에 공을 가두고 장계를 올려 임금에게 알렸다.¹³⁾

도암은 정여립과의 절교 편지가 나와 선조가 그것을 보고 방면하였으며, 그를 궁궐로 올려보내라고 관찰사에게 명하였다.

“이 사람은 반드시 기사奇士이니 내 그에게 관직을 내리고자 한다. 승정원으로 하여금 즉시 그 편지를 가지고 나아가 대신들과 의론하게 하라.”라고 하셨다. 이에 좌상 정철이 아뢰기를 “오희길은 역적과 이미 사귀었다가 다시 절교하였으니 좋아할 바를 알았고 또다시 그 싫어할 바를 안 것입니다.”라고 하니 여러 대신들의 의론 또한 관직을 줄 만하다고 여겼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사한 무리들이 가득 넘치고, 사악한 설이 횡횡하여 이이·성혼이 배척을 당한 적에 조정에서는 한 사람도 이이나 성혼을 구제하고 여립을 배척하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희길은 바로 이런 시기에 이이와 성혼을 추존하고, 역적의 심술을 낱알이 배척하였으니 그에 상당한 직책을 포상으로 제수할 만하다.”라고 하셨다.¹⁴⁾

『실록』 역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희길吳希吉이 역괴逆魁에게 보낸 서찰을 보니 반복하여 1천여 마디의 말을 하였는데, 언론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확실하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이러한 의논이 없었다. 정여립의 요망하고 간특한 정상을 배척하는 데 있어 형용을 극도로 잘하였으니, 그의 올바른 학술과 높은 소견은 속유俗儒로서는 미치지 못할 점이 있다. 내가 이를 보고 가상히 여기고 감탄하였으며 호남에 사람이 있다고 여겼다. 여립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논의가 이와 같았으니 더욱 숭상할 만하다. 이는 반드시 훌륭한 선비일 터이니 내가 벼슬을 주고자 한다. 의정부는 의논하여 아뢰라.¹⁵⁾

13) (사)완산역사문화연구회, 『행장』, 『도암선생문집』, 전주전통문화연구소, 2016, 165쪽.

14) (사)완산역사문화연구회, 『행장』, 앞의 책, 166쪽.

15) 『선조수정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일조.

선조는 도암이 정여립에게 보낸 절교 편지를 살펴보고, 남다르게 여긴 것이다. 예컨대 “네가 여립에게 준 편지를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상히 여겨 감탄”한 것이다. 선조는 도암을 조선 2대 정종定宗과 정안왕후定安王后的 능인 후릉厚陵의 참봉參奉에 제수했지만, 도암은 소를 올려 포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갖추어 진술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바야흐로 역적이 세상을 속여 명예를 도둑질할 적에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받들어 따르지 않겠는가? 그대가 그의 문하에 출입한 것은 괴이한 것이 아니다. 그 문하에 출입하였으니 능히 가까이 달라붙지는 않았고 홀로 시비의 바를 지켜서 곧바로 사특한 모습을 배척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너의 자취를 특별히 용서하고, 너의 마음을 깊이 취하는 까닭이다. 옛사람들이 선비를 취할 적에 그 방법이 하나가 아니니 너는 사양하지 말고 다만 직분에 힘써라.”라고 하시니 감음하여 직책에 나아간 것이다.

도암은 1591년(선조 24)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이 되고, 다음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태조의 영정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그리고 여러 역사서와 제기祭器 등을 정읍 내장산으로 옮겼다. 1593년 조정의 명령으로 태조의 영정을 아산현에 옮기고, 『조선왕조실록』과 역사서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1596년(선조 29)에는 태조의 영정과 『조선왕조실록』, 제기 등을 강화도로 옮겼다가 이듬해 묘향산으로 옮겼다. 1604년(선조 37) 11월에는 시폐時弊를 상소하자 왕이 가납하고 호성선무이등훈扈聖宣武二等勳에 녹선하였다. 당시 도암이 올린 상소문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이제 신은 폐정弊政을 개혁하여 민심을 얻으시라는 것으로 전하를 위해 방책을 올리려 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해일, 홍수, 가뭄의 폐해가 첫 번째이고, 요역徭役이 빈번하고 무거운 폐해가 두 번째이며, 양전量田이 균등하지 않은 폐해가 세 번째이고, 군민軍民이 침탈하는 폐해가 네 번째이며, 절의를 포상하지 않는 폐해가 다섯 번째입니다.¹⁶⁾

도암은 당시 초야에 묻혀 있어 정사의 득실과 백성의 이합離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요즈음 백성들이 살 곳을 잃고 허둥지둥하며 부모와 처자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을 보고 감히 세속을 따라 부침浮沈할 수 없어 마음속 깊이 어두운 방과 같은 칠실漆室 과부의 근심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위는 귀천의 차이가 있지만, 충성심은 다 똑같다고 하면서 자신은 세상에 산 지도 오래되었으니 이것이 함부로 내뱉은 말이 아니라고 그 충의를 다하였다.

도암은 1604년 12월 모친상을 당하여 예제로 장사하고 3년의 시묘를 거행했다. 1610년(광해 2) 만언상소萬言上疏를 올렸다. 그 글의 요지는 “먼저 마음을 전하는 방법에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治體에 미치고, 다음으로는 진학進學의 방법을 논하여 사람을 쓰는 것에 이르렀으며, 이어서 도학을 승장하여 사습士習을 올바르게 할 것을 거듭 말하였다.”¹⁷⁾ 1611년 4월에는 평릉도찰방平陵道察訪을 제수받았다. 이 해에 가장 뜻이 맞았던 한 시대의 명류名流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1537~1616)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근수는

16) (사)완산역사문화연구회, 「소」, 앞의 책, 37~38쪽.

17) (사)완산역사문화연구회, 「행장」, 앞의 책, 168쪽.

1558년(명종 13)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권지부정자에 임용된 뒤, 승정원주서·춘추관기사관·연천군수 등을 거쳐 1562년 홍문관부수찬이 되었다. 이때 기묘사화로 화를 당한 조광조趙光祖의 신원伸冤을 청했다가 과천현감으로 체직되기도 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예조판서로 다시 기용되었으며, 문안사問安使·원접사遠接使·주청사 등으로 여러 차례 명나라에 파견되었고, 국난 극복에 노력하였다. 그 뒤 판중추부사를 거쳐 좌찬성으로 판의금부사를 겸했고,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봉해졌다. 1606년 선조가 죽자 왕의 묘호를 조祖로 할 것을 주장해 실현시켰다. 청백간손淸白簡遜하고 문장이 고아하며 필법이 굳세 예원藝苑의 종장宗匠이라 일컬어졌다 한다.

도암은 이때 윤근수와 스승이었던 하서 김인후의 출처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한다. 하서는 전라남도 장성 출신이다. 1519년(중종 14) 김안국金安國에게서 『소학』을 배웠다. 1531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이때 이황李滉과 교우 관계를 맺고 함께 학문을 닦았다. 1540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승문원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용되었으며, 이듬해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홍문관저작弘文館著作이 되었다. 1543년 홍문관박사 겸 세자시강원설서·홍문관부수찬이 되어 세자를 보필하고 가르치는 직임을 맡았다. 또한 기묘사화 때 죽임을 당한 제현諸賢의 원한을 개선하여 문신으로서 본분을 수행하였다. 그해 부모의 봉양을 위해 옥과현감玉果縣監으로 나갔다.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병을 이유로 고향인 장성에 돌아가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 뒤 1554년까지 성균관전적·공조정랑·홍문관교리·성균관직강 등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김인후의 성리학 이론은 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김인후는 당시 이항李恒과 기대승奇大升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태극음양설太極陰陽說에 대하여, 이기理氣는 혼합되어 있으므로 태극이 음양을 떠나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道와 기器의 구분은 분명하므로 태극과 음양은 일물一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항의 태극음양일물설太極陰陽一物說을 반대한 기대승에 동조하였다. 또한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은 모두 그 동처動處를 두고 이른 말임을 주장함으로써, 후일 기대승의 주정설主情說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김인후는 수양론에 있어서는 성경誠敬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노수신盧守愼과 함께 「숙흥야매잠해夙興夜寐箴解」를 논한 내용을 보면, 마음이 일신을 주재한다는 노수신의 설을 비판하고, 마음이 일신을 주재하지만, 기氣가 섞여서 마음을 밖으로 잃게 되면 주재자를 잃게 되므로, 경敬으로써 이를 바르게 해야 다시금 마음이 일신을 주재할 수 있게 된다는 주경설主敬說을 주장하였다. 김인후는 천문·지리·의약·산수·율력律曆에도 정통하였다. 제자로는 정철鄭澈·변성온卞成溫·기효간奇孝諫·조희문趙希文·오건吳健 등이 있다.

선생은 천품이 순수하고 기질이 고명하며, 마음은 깨끗하여 은미한 말과 오묘한 이치는 배우지 않고도 능히 저절로 깨달았다. 계급으로 차이를 두지 않았고, 규모가 매우 엄정하여 공자와 맹자, 주돈이와 정호의 학맥을 깊이 얻었다. 그러나 불행한 때를 만나 물러나 산림에 은둔하였고 한번 물러난 뒤에는 마치 마땅한 제자리를 얻은 듯 유연이 스스로 즐기며, 병 때문에 몸을 잘 쓰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두문불출하였다. 그러다가도 매번 봄가을 꽃피고 달뜨는 밤, 좋은 계절 아름다운 경치에는 문득 대여섯 명의 동관童冠을 데리고 성긴 숲 아래를 서성이며, 노래하고 시를 읊조리고 위로는 옛일을 얘기하니 천명을 알고 천명을 즐기는 뜻과 기수沂水에서 목욕하

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며 읊고 돌아오는 의취가 있었다. 돌아와서는 고요한 방에서 말없이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깊이 잠기니 심오하게 온축된 못 이치가 가슴 속에 또렷해졌다. 그러다가도 질문을 받으면 얼굴을 펴고 토론하니 춘풍의 온화한 기운이 답소하는 사이에 저절로 드러났으니 고봉高峯의 ‘은미한 말을 풀어 낸다.’는 것과 율곡의 ‘대절이 바르다.’는 평가는 진실로 하서를 알고 하는 말이다.¹⁸⁾

인용문은 도암이 찬술한 김인후의 전기기록으로 김인후의 천품과 학문, 그리고 사상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도암의 사표가 될만하다.

도암은 1613년(광해 5) 12월에는 사헌부감찰을 제수받았고, 1614년(광해 6) 11월 경기전을 다시 짓고 태조의 영정을 경기전에 봉환하고 그 보위保衛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태조의 영정을 경기전에 다시 안치시키는 사유를 신명에게 고하는 환안고유제還安告由祭를 올릴 때 특별히 수헌관首獻官에 임명되었다. 다음 해 정월 태인현감을 제수받았으나, 6월에 감사의 무고로 체직되어 상경하였다. 이후 도암은 1618년(광해 10) 7월 위성원종공신일등衛聖原從功臣一等에 참록되었고, 그 뒤 전쟁의 참화를 수습할 채신책과 인심 수습을 상소하였다. 다음 해 8월 허균의 무고로 거제도에 귀양을 갔다. 도암이 허균의 외사촌형 김자한金自漢의 흥서를 얻어 조정에 올렸지만, 당시 정치는 혼란하고 뇌물과 불법이 크게 행해져 도암이 오히려 모함을 받고 귀향길을 떠난 것이다. 도암은 1620년(광해 12) 65세 때 유배지에서 『도동연원록道東淵源錄』을 수찬하고, 다음 해 『명대의편明大義篇』·『천명도설天命圖說』·『안산지崖山誌』·『백운지白雲誌』 등을 지었다. 사근도찰방沙斤道察訪과 태인현감을 지내고 1625년(인조 3) 귀양간 지 7년 만에 장독에 걸려 설사를 하다가 유배지에서 향년 70세로 사망하였다.

도암은 두 번의 공신 녹훈과 태인현감 등 여러 번의 관직 제수가 있었다. 1806년(순조 6) 도암의 묘비墓碑가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산 66-6번지 북쪽 기슭에 세워졌다. 묘비는 승록대부 홍문관 제학 조관진이 글을 짓고, 임실현감 이익희가 썼다. 이익희는 오세창의 『근역서화징檉域書畫徵』에 기록된 명필이다. 도암은 처음 고창 월곡에 세워진 월계정사月溪精舍에 하곡 정운룡, 호암 변성온과 함께 제향되었다가 사당이 고종 때 헐리자 광복 후인 1962년 아산 반암에 홀로 배향된 금암사琴庵祠가 세워졌다. 아울러 고창향교에는 ‘도암오선생공덕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III. 『도동연원록道東淵源錄』과 사상

오희길은 1619년(광해군 11) 거제도로 유배간 이후 『도동연원록』을 저술하였다. 『도동연원록』은 기자箕子를 시작으로 하여 포은圃隱과 야은冶隱 및 조헌趙憲에 이르기까지 3천여 년에 걸친 우리나라 역대의 명현名賢 99명의 행장行狀과 유문遺文을 다양한 문헌에서 발취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그의 견해를 붙여 조선 도통의 연원을 기자→정몽주→길재→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김인후→성혼→이이로 체계화하여 도학道學의 줄거리를 세우기도 했다.

18) 오희길, 「河西金先生遺事略」(사)완산역사문화연구회, 앞의 책, 131쪽.)

도동연원록은 나의 종숙부 도암 선생이 모아 엮은 것이다. 아, 기자가 요邈에서 건너온 것은 참으로 하늘의 뜻이 부린 바인데, 그 일시에 따라온 오천 명의 은나라 사람들은 사·서·예악을 갖추었고, 모두 주나라를 피하여 함께 왔으니 절개와 의리를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그 뛰어나고 호걸스러움을 상상할 수 있다. 기자의 원성元聖으로 사람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기에 충분한데, 하물며 이러한 현인 무리에 의해, 지나치게 이루어진 것은 절제하고 모자란 것은 서로 도와주고, 인재를 배양하고 육성하여 1천 년 동안의 풍속과 교화는 소중화小中華라 일컬었으니 그 유풍과 남긴 은택은 후세가 징험할 만하다. 포은圃隱이 천년 뒤에 펼쳐 홀로 전해지지 않은 학문을 터득해 야은冶隱에게 전했고, 한훤寒暄이 포은과 야은의 계통을 이었으며 일두一蠹와는 곧 남헌南軒과 주자朱子の 관계와 같음이 있다. 정암靜庵은 한훤에게 배웠으니 보고서 아는 자이며, 회재晦齋는 들어서 아는 자이다. 퇴계退溪는 이보다 더 훌륭한 점이 있다. 하서河西는 도학道學을 다시 밝혔고, 우계牛溪의 학문은 가정家庭에서 전수 받았으나 대개 그 연원은 정암靜庵에서 나왔다. 울곡栗谷에 이르러서는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성대했으며 지극히 올바름으로써 꿰뚫었으니 여러 선비의 학문을 절충하고 여러 어진 이들이 크게 이룬 학문을 모은 것이라고 할만하다.¹⁹⁾

조카 오이정吳以井이 1653년에 쓴 『도동연원록』의 서문이다. 도암이 바라본 도통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다. 『도동연원록』 8권은 기자箕子 이후 우리나라 역대 명현名賢 99명의 「행장行狀」과 유고遺稿를 여러 문헌에서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다.²⁰⁾ 권 1에는 기자箕子부터 이제현李齊賢까지 26명, 권 2에는 이색李穡부터 경복흥慶復興까지 13명, 권 3에는 길재吉再부터 최양崔養까지 5명, 권 4에는 김숙자金叔滋부터 최부崔溥까지 17명, 권 5에는 조광조趙光祖부터 박영朴莢까지 18명을 수록하였다. 이어 권 6에는 서경덕徐敬德부터 강유선康惟善까지 8명, 권 7에는 이항李恒부터 이황李滉까지 5명, 권 8에는 백인걸白仁傑부터 조헌趙憲까지 7명을 수록하여 도통道統을 밝히고 간간이 자신의 견해를 붙여 우리나라 도학의 줄거리를 세웠다.

오희길은 『도동연원록』에서 호남 출신인 김인후를 도통 속에 넣은 것과 호남사람 10여 명을 99명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예컨대 오세재吳世才²¹⁾·정가신²²⁾·최성지²³⁾·최문도²⁴⁾·박상충·최부·박상·최산두·이항·김인후·유희춘·기대승·박순 등 본관과 출신지가 호남인 유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 점을 들어 이이학파 또는 호남유학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²⁵⁾, 오희길은 타인이 서술한 자료를 인용하고, 그 인용한 자료의 전거典據를 확인하는 기술 방식으로 나름의 객관성을 추구하고 있다. 비록 선조가 ‘호남 선비들은 거취를 가벼이 하여 호남의 습속이 오염되었다’고 하였지만, 도암이 경모敬慕한 김인후를 포함하여 호남의 유학자들을 수록하여 호남 학문의 입장과 정통성을 드러냈으며, 중종대 이후의 호남사람의 학맥을 상기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더욱이 김자한 역모사건으로 인한 유배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어 공작功

19) 오이정, 『道東淵源錄』, 『도동연원록』 권 1(김애자, 앞의 책, 35~36쪽).

20) 김애자, 『도동연원록』(권1) 역주,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22, 13쪽.

21) 오희길, 「吳世才紀」, 『도동연원록』 권 1(김애자, 앞의 책, 122쪽.) 오희길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전거로 오세재를 찬술하였다.

22) 오희길, 「鄭可臣紀」, (김애자, 앞의 책, 133쪽.)

23) 오희길, 「崔誠之紀」, (김애자, 앞의 책, 137~138쪽.) 전거: 『고려사』.

24) 오희길, 「崔文度紀」, (김애자, 앞의 책, 138~139쪽.)

25) 고영진,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2012, 271쪽.; 고영진, 「박세채의 학문과 유학사 인식」, 한국사상사학회, 2009, 281~284쪽.

爵을 얻으려는 사욕에 의한 거짓 고변이 아닌, 종묘와 사직을 지키려는 충의의 산물이었음을 암시함으로써 유배형을 당한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저술에 나선 것이 개인적 목적일 수 있겠다.²⁶⁾

한편 오희길은 충의와 대의명분을 기초로 유교적 절의의 실천에 뛰어난 인물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첫째, 기록으로 보존되어 전하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과 불행하게도 어려운 때를 만났고 나라에 인재가 없어서 알아주는 이도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사건私見을 「승인전 비명」과 「안유기」의 말미에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치우쳐 있고 작으며, 인심도 너무 협소하여, 참으로 눈앞의 계획만을 보고 먼 장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기자가 중화의 문화로 오랑캐를 변화시킨 아름다운 업적과, 교육으로 세속을 좋게 만든 덕을德音이 일절 후세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 뒷사람들이 읽어서 감동을 받고 존모하여 흥기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뜻을 품은 선비의 탄식이 오렐수록 더욱 강렬해졌다.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통분을 견딜 수 있겠는가. 아 원성이며, 이와 같은 덕을 지니고도, 첫째 불행하게도 어려운 때를 만났고, 둘째 불행하게도 나라에 인재가 없었고, 셋째 불행하게도 다시 위만의 난을 만나서 도덕을 지녔음에도 중국宗國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전적典籍이 있음에도 만세에 전해지지 못하였다. 이것이 내가 항상 유풍遺風을 노래하다가 마침내는 원성에 대해 깊이 애통해하게 되는 것이다.²⁷⁾

인용문은 이정귀가 찬한 「승인전비명崇仁殿碑銘」을 두고 도암의 사건私見을 옮긴 내용이다. 「승인전비명」은 「기자묘비명箕子廟碑銘」이라는 제목으로 『월사집月沙集』 권45에 수록되어 있다. 승인전은 고려·조선 시대 기자의 제향을 위해 평양에 세웠던 사당으로 평양성 밖 기림리箕林里 기자묘 옆에 있다. 「안유기安裕紀」는 안향의 전기이다. “안유는 장중莊重하고 찬찬하고 자세하여 모든 사람이 경외하였고, 재상의 지위에 있을 때 계획을 잘 세우고 결단을 잘 내리니, 동료들은 순순히 따르면서 삼갈뿐이었다.” 그러나 안향이 백성을 염려하고 세상을 걱정하는 뜻이 후학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²⁸⁾

내가 살펴보건대, 시경에, “명철하여 몸을 보전한다.”라고 하였고, 주역에, “기미를 알아차리는 것이 귀신같다.”라고 하였는데, 물계자가 그러하였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물계자를 의심한 뒤에 공덕을 찬양하는 글을 지어 역사책에 넣었으니, 물계자가 만약 세속에 있었다면 반드시 재앙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물계자가 한 말을 살펴보면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차분해서 공을 구하는데 조급하지 않고 깊이 스스로 깨우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깊이 산속으로 들어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니 어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사람들이 비록, “물계자는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물계자를 학문을 한 사람으로 여긴다. 학문은 이와 같은 것을 구할 따름이다.²⁹⁾

26) 김애자, 앞의 책, 17쪽.

27) 李廷龜, 「崇仁殿碑銘 [并序]」, 『도동연원록』(김애자, 앞의 책, 74쪽.)

28) 오희길, 「安裕紀」, 『도동연원록』(김애자, 앞의 책, 131~132쪽.)

29) 오희길, 「勿稽子紀」, 『도동연원록』(김애자, 앞의 책, 77~78쪽.)

둘째, 오희길은 물계자의 전기를 통해 학문하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공을 구하는데 급급해하지 않고 깊이 스스로 깨우치려는 뜻을 가지는 것이 학자의 태도라는 것을 설명했다. 이것은 오희길이 학자의 본분을 말함과 동시에 자신이 이와 같은 학자의 학덕을 체득한 사람임을 반증하기도 한다. 셋째, 국가의 성패는 임금의 인재 등용과 인재가 도모하는 계책의 취사取捨에 달려 있으므로 임금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오희길이 임금의 구언求言으로 대의명분에 따른 「만언소萬言疏」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였다.

논하는 말에, “예로부터 국가의 성패는 많고 적음과 국가의 강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도모함이 잘되고 잘못됨에 달려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백제의 신하들이 성충과 홍수 두 사람과 같은 좋은 계책을 가져서 마치 부절符節을 합한 것과 같이 의자와 신하들이 성충의 계책을 일찍 사용하여 지리적 이점을 고수固守했다라면 당과 신라의 군대가 이길 수 없었을 것이고, 비록 당과 신라가 대단한 병력兵力이었다 하더라도 어찌 급작스럽게 멸망시켰겠는가. 도리어 백제가 당과 신라의 군사를 죽이고 물리쳤을 것이다. 비록 계백의 의열義烈을 떨쳤지만 천험天險의 요새를 이미 잃어버린 뒤에 자신은 죽고 나라는 망해버린 그런 운명을 어찌하겠는가. 이것으로 나라가 장차 망할 때 계책을 내는 신하가 없는 것이 아닌데 모두 다 그 계책을 쓰지 않으니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겠다. 훗날의 임금들은 이것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 구천句踐이 적은 군사로 강성한 오나라를 격파하고, 사현謝玄이 얼마 되지 않는 군병으로 부진符秦을 꺾은 일은 오히려 오래된 일이다. 그리고 수隨나라 군사 백만은 을지문덕乙支文德 한 사람에게 패했고, 당唐 태종太宗이 직접 거느리고 왔지만 안시安市의 작은 성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보국안민輔國安民하면 나라는 반드시 강해진다.”라고 한다.³⁰⁾

오희길은 자신의 심정을 위의 「성충기成忠紀」에 빗대어 드러냈다. 그는 「신라왕자기」에서도 “왕자의 뜻이 만약 종묘와 사직을 위해서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들을 규합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아버지를 거스르는 것이고,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종묘와 사직에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대의가 있는 곳을 꿰뚫어보고서, 마침내 부자로서의 사사로운 인정을 끊고 홀로 종묘와 사직을 위해서 죽으려고 생각하여 필부의 몸이 되었다. 왕자의 지극한 정성과 어진 마음은 참으로 삼대의 유풍遺風이다. 왕자는 행동은 차분하고 말씨는 간곡하였으며, 학술學術은 고명高明하고 식견은 뛰어났다.”라고 하였다.³¹⁾ 넷째, 공평해야 할 사관史官의 기록이 공평하지 못함에 대한 지적은 「이자현기」의 『고려사』 ‘사신논략史臣論略’과 「퇴계退溪가 청평산淸平山을 지나다 느낌이 일다(退溪過淸平山有感[并序])를 통해 그 대강을 개진하였다.³²⁾ 즉 자신의 큰 뜻을 사관 정도가 어찌 제대로 가늠하여 쓸 수 있었겠는가를 말한 것일 것이다.³³⁾

요컨대 조선 도통의 연원을 체계화하여 ‘연원록’이라는 제호題號로 가장 먼저 편찬된 오희길의 『도동연원록』은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그 이후의 유학 계보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유학

30) 오희길, 「成忠紀」, (김애자, 앞의 책, 98~99쪽.)

31) 오희길, 「新羅王子紀」, 『도동연원록』(김애자, 앞의 책, 93~94쪽.)

32) 오희길, 「李資玄紀」, 『도동연원록』(김애자, 앞의 책, 106~111쪽.)

33) 김애자, 앞의 책, 17~19쪽.

사상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IV. 『조선왕조실록』 수호와 절의節義

도암은 『조선왕조실록』을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낸 것만으로 ‘충신’이자 ‘영웅’이라고 칭할 만하다. 조선왕조실록은 일시에 편찬된 사서가 아니라 대대로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대체로 조선시대에는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 때에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 왕대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이 상례였다. 실록의 편찬은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었다. 첫째 단계는 춘추관 시정기 등 각종 자료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실을 초출抄出하여 초초初草를 작성하였다. 둘째 단계는 도청에서 초초 가운데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중초中草를 작성하였다. 셋째 단계는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의 잘못을 재수정하는 동시에 체재와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正草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실록이 완성되면 이를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에 비장하였다. 사고에 보관된 실록은 3년에 한 번씩 꺼내어 포쇄暴灑하였다. 이때에도 전임 사관 1 명이 파견되어 일정한 규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록은 정치의 잘잘못과 왕의 선악 및 신하들의 간위奸僞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의 실록은 1413년(태종 13)에 『태조실록』을 편찬한 것이 처음이며, 이어 1426년(세종 8)에 『정종실록』, 1431년에 『태종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태종실록』 편찬 직후 정부에서 보관의 필요성을 느껴 위의 삼조실록三朝實錄을 고려시대의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충주사고에 봉안하였다. 그런데 충주사고는 민가가 밀집한 시내에 위치하여 화재의 염려가 있어, 1439년 6월 사헌부의 건의에 따라 전주와 성주에 사고를 새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1445년 11월까지 3부를 더 등사하여 모두 4부를 만들어 춘추관·충주·전주·성주의 4사고에 각기 1부씩 봉안하였다. 또한 『세종실록』부터는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정초本正草本 외에 활자로 3부를 더 인쇄, 간행하여 위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봉안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1592년(선조 25)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관과 충주·성주 사고의 실록이 모두 병화兵火에 소실되었다. 다행히 전주사고의 실록만은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과 기타 소장 도서들을 모두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놓았다. 1593년 7월에 내장산에서 실록을 넘겨받은 정부는 이를 해주와 강화도를 거쳐 묘향산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그러다가 왜란이 평정된 뒤, 국가의 재정이 궁핍하고 물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록의 재출판 사업을 일으켜, 1603년 7월부터 1606년 3월까지 2년 9개월 동안에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을 인쇄, 출판하였다. 이때 출판한 실록은 3부였으나,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 원본과 재출판 때의 교정本校正本을 합하여 5부의 실록이 갖추어졌다. 그래서 1부는 국가의 참고를 위하여 옛날과 같이 서울의 춘추관에 두었다.

실록은 권질卷秩의 방대함과 아울러 조선시대의 정치·외교·군사·제도·법률·경제·산업·교통·통신·사회·풍속·천문·지리·음양·과학·의학·문학·음악·미술·공예·학문·사상·윤리·도덕·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비록 지배층 위주의 편찬 기록이라는 한계성이 있지만,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사적史籍이다.

도암은 임진왜란 당시 경기전 참봉이었다. 태조 어진御眞과 제기祭器 등을 지키는 소임이었다. 경기전 옆 사고史庫 실록각에는 태조~명조대까지의 실록 250책과 『고려사』 등 각종 서적을 합하여 총 1,300여 책이 60궐에 담겨 있었으며, 제기를 포함하면 거의 50여 바리나 되는 많은 분량이었다.³⁴⁾

임진년(1592) 6월 왜군은 금산으로부터 말을 몰아 거침없이 서쪽으로 진군해 왔다. 전주는 요충지에 있는데 성 함락이 조석에 임박하게 되자 공이 도순찰사 이광李洸, 도사 최철견崔鐵堅, 부윤 권수權燾, 본전 참봉 유인柳訥 등과 함께 모여서 일을 의논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직분이 침랑寢郎을 지키는 것이니 저는 마땅히 죽음으로써 침랑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모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실록은 어찌할까요?”라고 하자, “이는 본디 제 책임은 아닙니다만 국가의 큰일을 어찌 감히 둘로 나누어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실록을 숨길 계획은 오직 명산에 있을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주야로 산 넘고 물 건너 여러 산을 둘러보아 정읍 내장산 꼭대기 험준한 곳을 찾았고 드디어 계획을 정하였다. 공이 마침내 옥축玉軸을 꺼내어 위쪽 한 자쯤을 잘라내고 좌우 각각 두어 치 정도를 제거하고 첩帖을 함 속에 넣고 유둔油氈으로 싸서 샅길을 따라가서 예기치 못한 사태를 방지하였다. 이미 어룡을 산속 암자에 봉안하고서 또 제사에 쓰이는 은기銀器와 실록, 『고려사』 등 여러 건을 수습하여 몸소 가져와서 함께 숨겨 두었다. 그리고 용감함이 뛰어나고 담력이 있는 자들인 무사 김홍무金弘武 등 3인과 유생 안의安義·손홍록孫弘祿 2인, 승려 희묵熙默 등 4,5명을 모았고, 또 근처 관의 산민山民 100여 명을 감사에게 요청해서 거느리고 수직하였는데 공도 경기전 수복 한춘韓春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호위하여 끝내 무사히 실록을 지킬 수 있었다.³⁵⁾

도암은 신속히 태조의 영정과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서를 정읍 내장산에 옮겨 보관하였으니, 관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성으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실록과 어진, 제기의 이안移安 경로는 1592년 7월 전주→내장산 용굴암→은적암→비래암(9월)→충남 아산(1593년 6월 뱃길)→해주→강화도(1596년)→안주→영변부 묘향산 보현사(1597년)이었다. 도암은 이미 임진년 5월 임기가 끝났지만, 7월부터 전주와 내장산을 왕래하며 수직하다가 12월 후임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귀향하였다. 1614년(광해 6) 태조 어진을 영변에서 전주로 옮겨와 경기전에 봉안하고 고유제를 지낼 때는 왕의 특명으로 고유제의 초헌관을 맡았으며, 태인 현감을 제수받기도 하였다.

V. 맺음말

도암 오희길은 조선의 선비이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조선이 동서분당이 노골화되었고, 역모사건이 있었으며, 임진왜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는 혼란한 시세를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피해가거나 모면하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다. 김인후와 성혼을 스승으로 삼아 학문과 도학에 적극적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 스승으로 여기고 견문을 넓혀나갔다. 그에게 정여립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의 학문

34) 나주오희 고창군 마명종친회, 『왕조실록을 지킨 도암 오희길 참봉』, 위드프린팅, 2023, 11쪽.

35) (사)완산역사문화연구회, 『행장』, 앞의 책, 167쪽.

과 품행을 본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여립의 성품은 유교의 도에서 벗어났으며, 이이와 성혼의 성원을 저버리고 오히려 배척하기까지 하였다. 급기야 역모가 일어났을 때는 1,000여 명의 사류士類가 희생되고, 호남이 반역의 고장이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도암은 역모가 일어나기 이전 이미 정여립에게 편지를 보내 절교를 선언했다. 이이와 성혼과 같은 시대의 스승을 배척한 것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었고, 정여립의 경솔함과 오만함은 모두가 그를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선조는 조정의 신료들이 모두 이이나 성혼이 모함을 받을 때 구제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오직 도암만이 두 사람을 추존한 것에 대해 칭송하였다. 곤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고 했으니 도암의 성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편 도암은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전주사고본을 제외한 모든 실록이 병화兵火에 소실되었고, 전란이 평정된 후에 조정은 재간행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도암과 전주의 선비들은 사직을 수호하는 일을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최우선으로 하였다. 더욱이 도암의 실록 보존은 자신의 의무가 아니었다. 절의와 도학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의 이와 같은 면모는 『도동연원록』의 찬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카 오이정은 도암이 해동 3천여 년에 걸친 명현名賢 99인의 행장과 유문遺文을 발췌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 유학의 도통이 지닌 체계를 확립했다. 더욱이 박학고거博學考據 주의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측면에서 찬술하여 그 가치를 입증하였다. 더욱이 정여립 역모사건으로 침체된 호남 유학과 사류의 정체성과 지위를 향상시킨 역사적 의의까지도 지니고 있다.

도암 오히길의 삶과 역사 정신은 역사가 과거의 것만이 아닌 현재와 미래까지도 영향을 끼치며, 한 사람의 흔적은 책과 비문만이 기록하지 않고, 어제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기억과 입이 시공을 초월한 진정한 비문이 아니겠는가.

【참고문헌】

『선조수정실록』

오히길, 『道東淵源錄』(韓國史料叢書 제32집), 국사편찬위원회, 1988.

전라북도, 「내 고장 全北의 뿌리」, 전라북도, 1983; 고창의 유학편찬위원회, 『高敞의 儒學』, 高敞郡, 1996.

고영진,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혜안, 2007.

이형성, 「16세기 호남사림의 학문 교류 및 논변 고찰」, 전북대학교 BK21중(한)문고전적 번역대학원 추진사업단, 2009.

현상윤 저, 이형성 교수, 『현상윤의 조선유학사』, 삼산출판사, 2010.

(사) 완산역사문화연구회, 『도암선생문집』, 전주전통문화연수원, 2016.

고영진,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41, 한국사상사학회, 2012.

고영진, 「박세채의 학문과 유학사 인식」, 『한국사상사학』 32, 한국사상사학회, 2009.

김애자, 『도동연원록』(권1) 역주,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22.

나주오씨 고창군 마명종친회, 『왕조실록을 지킨 도암 오히길 참봉』, 위드프린팅.

『도암집韜菴集』 해제

1. 저자

조선 중기의 학자 오희길吳希吉(1556~1625)의 문집이다. 오희길은 1566년(명종 21)부터 서당에서 글을 배웠는데 총명하였다. 서책과 문방구를 좋아하니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내력이 있었다. 평상시에는 효제충신孝弟忠信의 도를 다하여 부모를 섬기고, 상사와 제사는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거행하였다. 1571년(선조 4) 기효관奇孝寬의 딸과 혼인했고, 1573년(선조 6) 정월에 절에 들어가 글을 읽었다. 공주판관을 지낸 부친 오언기吳彦麒는 시간을 아껴 글을 읽으라는 훈서를 보냈다.

일찍이 정여립鄭汝立(1546~1589)을 찾아가 널리 배우기를 청하였으나 우계牛溪 성혼成渾(1535~1598)과 율곡栗谷 이이李珣(1536~1584)를 비방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재빨리 편지를 써서 그가 어리석음을 열거하여 1,000여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희길의 발자취가 문하에 끊어지겠소’ 하였다. 이렇게 끊은 지 3년 만에 정여립의 모반사건이 터지자 공을 여립의 문도라 하여 구속하고 나라에 아뢰었는데, 이에 앞서 상계서 역적 집의 문적을 살펴보다가 공의 편지를 보고 당장 풀어주라고 명하고 역마를 보내어 올라오게 하여 누차 치하하고 후릉厚陵 참봉에 제수하였으나 공은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1591년(선조 24) 경기전慶基殿 참봉參奉이 되고, 다음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태조의 영정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그리고 여러 사서와 제기 등을 정읍 내장산으로 옮겼다. 1593년 조정의 명령으로 태조의 영정을 아산현에 옮기고, 『조선왕조실록』과 사서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1596년(선조 29) 태조의 영정과 『조선왕조실록』, 제기 등을 강화도로 옮겼다가 이듬해 묘향산으로 옮겼다.

2. 내용

3권 1책으로 목활자본이다. 1936년에 간행되었고, 권말에는 대사헌을 지낸 유취기兪最基(1689~1768)의 발문이 있다. 권수제가 ‘도동연원록道東淵源錄’으로 된 판본도 있으니 권 4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책은 서序가 있다. 권 1은 시詩와 소疏이다. 시는 「경차종조부금양군귀향시敬次從祖父錦陽君歸鄉詩」, 「서회書懷」, 「초족보시소제草族譜時所製」 등이 있고, 소는 「사후릉참봉소辭厚陵參奉疏」, 「재수후릉참봉인진상임진처변수말소再授厚陵參奉仍陳上壬辰處變首末疏」, 「청혁폐정수민심포절의용현재소請革弊政收民心褒節義用賢才疏」, 「상만언소上萬言疏」, 「선묘실록수정시봉진비망기급교지사도소宣廟實錄修正時奉進備忘記及教旨四度疏」 등이 있다.

권 2는 서書 1편 「상례판서上禮判書」, 잡저雜著 2편 「위의제발상론爲義帝發喪論」, 「점검취와부지론點檢醉臥不知論」, 서序 2편 「금성오씨보계서金城吳氏譜系序」, 「향약서鄉約序」, 발跋 1편 「박정정시집발朴亭亭詩集跋」, 축문祝文 1편 「고가묘문告家廟文」, 제문祭文 3편 「제금강기선생문祭錦江奇先生文」, 「제종제문祭從弟文」, 「제종제한림문祭從弟翰林文」, 유사遺事 2편 「선고증통정대부좌승지부군유사략先考贈通政大夫左承旨府君遭

事畧」, 「하서김선생유사략河西金先生遺事略」, 행장行狀 1편 「모헌서공행장慕軒徐公行狀」 등이 있다.

권 3은 오희길에 관한 부록으로, 「연보年譜」, 「행장行狀」(李基敬), 「묘표墓表」(趙鎭寬), 「도암선생전輶菴先生傳」(黃胤錫), 「나주광산사정향축문羅州廣山祠丁享祝文」(趙鍾永), 「고창월계사정향축문高敞月溪祠丁享祝文」(黃胤錫) 등이다.

책말에는 발拔 2편이 있으니 오지수吳志洙, 오노수吳魯洙의 글이다.

3. 『道東淵源錄』 내용

『도동연원록道東淵源錄』은 먼저 『동방역대東方歷代』와 『도동연원道東淵源』을 기술하고, 우리나라 선현들의 전기傳記 95편이 수록되어 있다. 각 인물 아래 자·호·본관 등을 기록하고, 고사古史, 유적遺蹟, 행장行狀, 제문祭文, 비명碑銘, 문집文集 등에서 발췌하여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역대 인물 연구에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권 1에 수록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기자箕子, 물계자勿稽子, 김후직金后稷, 설충薛聰, 최치원崔致遠, 녹진祿眞, 신라왕자新羅王子, 을파소乙巴素, 성충成忠, 최충崔冲, 정문鄭文, 이자현李資玄, 김부식金富軾, 윤언이尹彦頤, 정습명鄭襲明, 오세재吳世才, 한유한韓惟漢, 안치민安置民, 권부權溥, 안유安裕, 정가신鄭可臣, 최해崔海, 최성지崔誠之, 최문도崔文度, 우탁禹倬, 이제현李齊賢.

권 2에 수록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김구용金九容, 김제안金齊顔, 이승인李崇仁, 이집李集, 박상충朴尙衷, 정사도鄭思道, 김진양金震陽, 이중학李種學, 정추鄭樞, 이존오李存吾, 경부흥慶復興.

권 3에 수록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길재吉再, 서견徐甄, 이양중李養中, 김주金澍, 최양崔養.

권 4에 수록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김숙자金叔滋, 박팽년朴彭年, 김구金鉤, 김말金末, 김반金泮, 윤상尹祥, 김시습金時習, 김종직金宗直, 김일손金駟孫, 이원李龜,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남효온南孝溫, 이목李穆, 허반許磐, 정희량鄭希良, 최부崔溥.

권 5에 수록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조광조趙光祖, 김식金湜, 기준奇遵, 김정金淨, 박상朴祥, 이연경李延慶, 김대유金大有, 김안국金安國, 김정국金正國, 정광필鄭光弼, 신상申鎰, 윤자임尹自任, 김구金絳, 최산斗崔山斗, 권벌權撥, 이자李籽, 신잠申潛, 박영朴英.

권 6에 수록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서경덕徐敬德, 성수침成守琛, 성운成運, 정희등鄭希登, 송인수宋麟壽, 강응정姜應貞, 이언적李彦迪, 강유선康惟善.

권 7에 수록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이항李恒, 김인후金麟厚, 이여李畬, 조식曹植, 이황李滉.

권 8에 수록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백인걸白仁傑, 유희춘柳希春, 기대승奇大升, 박순朴淳, 이이李珣, 성혼成渾, 조헌趙憲.

* 이 논문은 오경후(동국대)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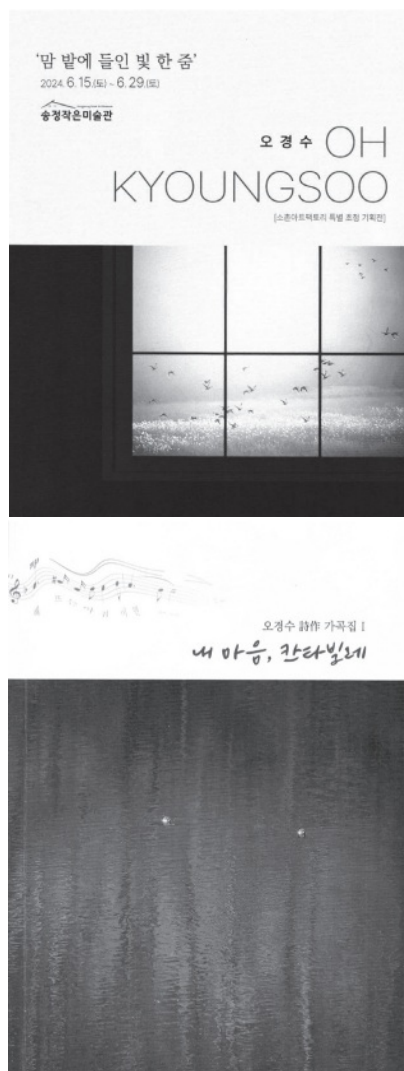
오경수 부회장

소촌아트팩토리 특별초청창기획전 및 시작詩作 가곡집 발간

오경수(석문공문중) 부회장은 <소촌아트팩토리 특별 초청 기획전>으로 『맘 밭에 들인 빛 한 줌』 개인전을 2024년 6.15~6.29일까지 '송정작은미술관'에서 가졌다. 시와 사진을 매칭한 기획전은 시 「내가 나일 때」 외 8편과 사진 「자화상」 외 31점이 전시되었다. 장기석(한국무등아트협회 회장, 전 광주여대 교수)은 “이번 전시는 빛을 통해 만들어진 색채와 형상이 우리의 시각에 투영되어 밝고도 어두운 세상을 변화무상하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오경수는 “『맘 밭에 들인 빛 한 줌』을 통해 자연과 일상에서 전해오는 빛의 감정을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통해서 빛의 새로운 시각적 및 정서적 통찰을 맛보게 한다”고 했다. 작가 오경수는 작가노트를 통해 이번 전시회의 결과물을 “여기 펼쳐 놓 『맘 밭에 들인 빛 한 줌』도 이런 놀이문화 속에서 스스로 인식과 인식, 자유를 찾아가는 자의적 유희본능의 결과물이다”라고 했다.

또한 ‘오경수 시작詩作 가곡집 1’ 『내 마음, 칸타빌레』를 ‘미디어민’에서 발간(2024.5.27.)했다. 이 가곡집에는 그동안 창작해 온 자작시 14편에 14명의 유명 작곡가 곡을 붙였다. 이 책에는 자작시와 함께 악보가 실려 있다.

오경수는 「내 마음이 음표를 달고 시공時空을 날 적에」라는 글에서 “생생이란 시작이 말하는 끝의 시간 위에 매 순간 음표를 세워가며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아닐까?”라면서 “특별한 인연들이 한국창작가곡 탄생이라는 명제 아래 한 시인의 마음에 음표를 달이 혼을 불어 넣어준다”고 했다.



오희 교수, 노르웨이 과학문학아카데미 아벨상 심사위원 위촉(2024.07)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2024 신입회원 선정(2024.04)

송은당공문중 오판수判洙 고문의 차녀인 오희희熙 교수(예일대학교 종신교수)는 2024년 7월 노르웨이 과학문학아카데미 2024-2026년 아벨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아벨상위원회는 세계적인 수학자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오희 교수는 2018년 필즈상 수상위원회 위원도 역임한 바 있다. 아벨상은 필즈상과 달리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평생의 업적을 고려하여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또한 2024년 4월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2024 신입회원으로 선정됐다.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의 회원은 5개 클래스Class 안에서 세부 분야별로 총 31개 섹션Section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선정된 총 250명의 신입 회원 중에서 수학 분야는 총 8명이다.



오희 교수 프로필

- 출생: 1969년생
- 학력: 1987년 광주여자고등학교(졸업)
1992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수리과학부/1992년 학사)
1997년 예일대학교(수학과/1997년 박사)
- 소속: 예일대학교 (종신교수)
- 수상: 2018년 제28회 호암상 과학상,
2017년 구겐하임 펠로십,
2015년 미국수학회 새터상
2012년 미국수학회 초대 펠로우
- 경력: 2024.07~ 노르웨이 과학문학아카데미 아벨상 심사위원
2024.04~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2021~2023년 미국수학회 부회장
2013.07~ 미국 예일대학교 수학과 종신직(테뉴어) 교수
*예일대학교가 설립된 1701년 이래 수학과 최초의 여성 종신교수
2008년~ 고등과학원(KIAS) 수학과 스칼라(초빙교수)
2006년 미국 브라운대학교 수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수학과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수학과 교수

오경희(장탄문중), 마포구 부구청장 취임(2025.1.2.)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5년 1월 2일 오후, 구정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과 함께 오경희 신임부구청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오경희 부구청장은 원로 오재남의 딸로 대중회 부회장인 종석, 재무부회장 종선의 여동생이다.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오경희 신임 부구청장, 국·소장, 직원 등 480여 명이 참석해 구민 행복과 마포구의 발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날 마포구는 “마포구민 행복시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어나가자”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잘못되고 낡은 관행은 과감히 끊어내고 더 멀리, 더 깊게 보며 한 단계 나아가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승기 감사, (사)한국경찰유족회 초대 회장 취임(2024.06.13.)



순국·순직 경찰관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경찰 유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사)한국경찰유족회가 출범했다.

(사)한국경찰유족회 출범식은 2024년 6월 13일 (목) 오후 2시에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초대 회장으로 오승기 회장이 취임했다.

오전 10시 40분부터는 현충탑과 경찰충혼탑 참배가 진행되었으며,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기념식에서는 (사)한국경찰유족회 창립 및 목표, 오승기 회장 취임 인사, 축사 등이 이어졌다.

(사)한국경찰유족회는 경찰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순국, 순직 경찰관 유족들의 생활 지원, 교육 및 문화 사업, 의료 및 복지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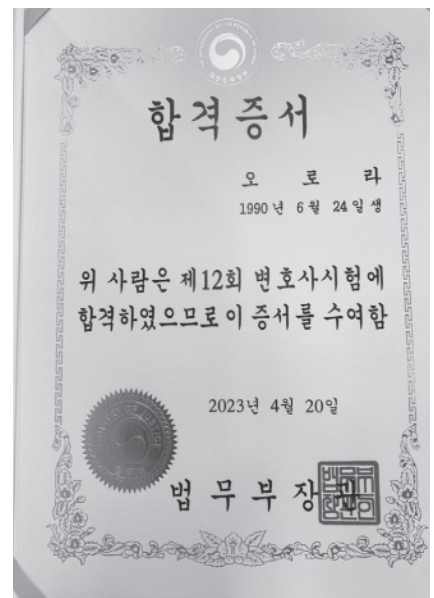
오승기 초대 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찰 유족분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삶의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유족회 활동을 통해 경찰 유족분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로라(명곡공 문중), 2023년 제12회 변호사 합격

오로라(吳露羅)(1990년생, 명곡공 문중)는 조선시대 예문관 검열을 지내신 휘 희도希道 명곡공明谷公의 8세손으로 양평공(나성군) 영각을 증수하는 일과 임진년 보첩의 서문을 쓰신 청일제공淸一齊公 휘 승규升圭의 5세손인 오동균吳東均 아버지와 백선녀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현 대중회 부회장 오낙균吳洛均(장성읍 거주)의 조카이다.

오로라 양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주엽고등학교와 명문대인 이화여대의 사회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법률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뒤 2023년 제12회 대한민국 변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현재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옴’에 소속되어 대한민국의 큰 법조인이 될 꿈을 펼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나주 오문羅州吳門의 인물로 품은 큰 꿈을 이루도록 우리 종친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큰 사랑을 지속적으로 주시기를 기원한다.



오씨 본관별 인구현황 (2015년, 통계청)

	본 관 별	인구 수	구성비(%)	비 고
01	해주 海州	462,704	60.62	
02	동북 同福	72,394	9.48	
03	보성 寶城	71,162	9.32	
04	함양 咸陽	35,846	4.70	
05	나주 羅州	32,610	4.27	나주 羅州 18,152 금성 錦城 14,458
06	군위 軍威	26,949	3.53	
07	고창 高敞	18,856	2.47	
08	낙안 樂安	11,562	1.51	
09	장흥 長興	4,132	0.54	
10	화순 和順	3,952	0.52	
11	함평 咸平	3,164	0.42	
12	울산 蔚山	3,015	0.40	
13	흥양 興陽	2,805	0.37	
14	평해 平海	1,816	0.24	
	기타 (199)	12,314	1.61	인구 5인 미만 4,223명 포함. (본관 수는 미포함)
	합 계 (213)	763,281	100.00	

[註] 1. () 안은 본관 수

2. ‘나주羅州’ 본관 인구 수에는 ‘금성錦城’ 본관 인구 수를 합산하였음.

나주오씨 선조의 사당祠堂 제향일祭享日

사당	호	휘 諱	제향일	주관	장 소
백련사 白蓮祠	송은당 松隱堂 서파 西坡 연강蓮江 연호蓮湖 오재梧齋 백련당白蓮堂 연정蓮汀	탁진卓眞 명수命壽 정남挺男 익남益男 석남碩男 운창運昌 승환勝換	3월 27일	후손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 성지마을
원당영각 元堂影閣	나성군 羅城君	자치自治 (시호 : 양평襄平)	음 9월 15일	후손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415-1
광산사 廣山祠	금양군 錦陽君	겸謙 (시호 : 정간貞簡)	음 9월 9일	유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77번지
금암사 琴巖祠	도암韜庵	희길希吉	음 9월 18일	유림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마명마을
대명사 大明祠	우암尤菴 생로당生老堂	송시열宋時烈 효석孝錫	음 3월 12일	후손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도동 507 영사재
도림사 道林祠	노사蘆沙 후석後石 난와難窩	기정진奇正鎭 준선駿善 계수繼洙	4월 넷째 주 일요일	유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도림
용진영당 湧珍影堂	후석後石 북파北坡 도호道湖	준선駿善 헌수憲洙 동수東洙	음 3월 10일	유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나주오씨대종회 창립 25년’ 나주오문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종회



오 형 군
사무국장

어느덧 나주오씨대종회가 창립된 지 25년이 지났다. 우리 나주오문羅州 吳門 일가들은 1999년 12월 5일 대종회를 창립하여 ‘송조崇祖·친목親睦·성실誠實·봉사奉仕’를 종훈宗訓으로, 조상에 대한 경조심敬祖心과 종원에 대한 애족심愛族心을 발휘하여 가문家門을 빛내고자 하였다. 우리 나주오문 일가들의 나주오씨대종회 창립 추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종회 창립 추진과정]

▶1998.10.21.: 나주오씨중앙종친회(회장: 영학泳學) (이하 ‘중앙종친회’ 라 한다) 종중회의 개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신선회관>, 36명 참석

○대종회 결성의 필요성과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한 협의 를 하였다.

○출석 종회의원 : 연수連洙, 철수哲洙, 근의根義, 기열基烈, 상렬祥烈(이상 고문), 영학泳學, 억근億根, 사진土鎭, 근창根昌, 근문根汶, 근성根暻, 종만鍾滿, 관치寬治, 진열鎭烈, 세교世敎, 순열舜烈, 토근土根, 창근昌根, 안근安根, 열렬, 창교漲敎, 근수謹洙, 용진容珍, 경렬璟烈, 관열官烈, 재협在浹, 양근梁根, 지열智烈, 교한敎漢, 순근順根, 준교俊敎, 석렬錫烈, 원교元敎, 정렬政烈, 성균聖均, 공렬恭烈

▶1999.03.12.: 중앙종친회 1999년도 1차 종중회의 개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신선회관>, 29명 참석

○대종회 결성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전국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각 임원들이 문중별로 책임 분담하여 원로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1999.05.02.: 중앙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 300여 명 참석

○이날 배포된 나주오씨종친회보(제2호) 1면 톱기사에 대
종회 결성 추진내용을 크게 게재하고, 전체 종친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종회 추진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주오씨종친회보 제2호(1999.05.02)

▶1999.09.11.: 중앙종친회 1999년도 2차 종중회의 개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신선회관>, 28명 참석

○전국 원로들이 대종회 결성을 거의 찬동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이날 종중회의에서 대종회
창립 문제를 장시간 협의 끝에 대종회 결성을 추진할 것을 가결하였다.

○이날 회의 석상에서 대종회 창립 추진위원 25명을 선정하고 추진위원장에 근창根昌 종회원
장을 선임하였으며, 추진위원들은 이날부터 전국에 걸친 문중별 발기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하
였다. <추진위원> 영학泳學, 근수謹洙, 종만鍾滿, 근의根義, 억근億根, 사진士鎭, 근창根昌, 근성根
篁, 순근順根, 형근榮根, 안근安根, 기열基烈, 덕렬德烈, 열렬, 용진容珍, 진열鎭烈, 지열智烈, 순열舜
烈, 정렬政烈, 해열海烈, 세교世敎, 교한敎漢, 원교元敎, 홍구洪鉅, 창교漲敎

○창교漲敎 사업간사의 발의에 따라 대종회 결성 추진금을 따로 마련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7명
의 추진위원들이 1천5백만원의 추진금을 각출하였으며, 대종회 회칙 초안은 추진위원장이 작
성하기로 하였다. <추진금 헌납 위원> 근의根義(1백만원), 억근億根(3백만원), 사진士鎭(3백만원),
근창根昌(1백만원), 순근順根(1백만원), 홍구洪鉅(3백만원), 창교漲敎(3백만원), 합계: 1천5백만원

▶1999.10.01. : 제1차 대종회 창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소집,

서울 강남구 도곡동 <신선회관>, 13명 참석

○나주오문 종친들이 살고 있는 전국 거주지별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로 선정된 대종회 발기인
150명에 대하여 연락처(주소, 직장, 전화, 출생년도 등)를 파악하기로 하고, 발기취지문은 추
진위원장이 작성기로 하였다.

○나주·광주 본소의 원로들에 대한 정보교환과 대종회 창립 후 초대 회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창립총회 장소는 나주 혹은 광주에서 개최기로 하고, 일시는 1999.12.05(日) 낮 12시로 확정
합의하였다.

▶1999.10.21.: 제2차 추진위원회 소집,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19명 참석

○본소에서 동렬東烈, 덕렬德烈, 시열時烈 씨 등 세 분 종친이 상경하여 참석하였다.

○창립총회 장소를 도선묘 옆 평가재平價齋(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소재)로 결정하고, 이날 상경한 종친들이 총회 실무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대중회 회칙 초안의 대체적인 골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명곡공 후손 2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발기인 수를 3백 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1999.11.03.: 제3차 추진위원회 소집, 서울 강남구 도곡동 <신선회관>, 17명 참석

○발기취지문 종합검토 후 대중회 회칙 초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부산·울산·양산 지역에 송은당공 후손 200여 세대의 일가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날 처음 전해지면서 참석했던 준비위원 모두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창립총회 장소를 평가재平價齋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뉴월드호텔로 변경하였다.

○대중회 조직기구 편성에 대하여 최종 협의하였고, 초대 회장은 창립총회 당일 추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창립총회 소집통지문 500매와 취지문, 경과 보고문, 발기인 명단 등도 함께 500매씩 인쇄하여 우송하기로 하였다.

▶1999.12.05.: 나주오씨대중회 창립총회 개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소재 <뉴월드호텔>, 4백 여 명 참석



1. 창립총회 회의장 전경 (위, 좌)
2. 전형위원 모임 (아래, 좌),
3. 대중회 창립위원들 소개 (아래, 우)



○서울에서 92명, 부산·양산에서 45명, 구미·대전에서 9명, 그리고 호남지역에서 약 250명 등 전체 400여 명의 종친과 발기인들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근택(根澤) 종친을 추대하였다.

○참석 종친들은 각자 일가들의 근황을 소개하고 대동화 합과 단결을 통한 친목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상숭배사상을 다 같이 함께 고취하기로 다짐하였다.

○이날 원로 14명, 고문 42명, 집행부 임원 35명, 종회의원 47명 등 총 128명의 임원도 선출하였다.



4. 취임사를 하고 있는 오근택 초대회장(좌),
5. 임시의장으로 뽑혀 회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오근창 종회원장(우)

이상과 같이 대총회 창립되기까지의 활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종원 모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어서 대총회 창립 이후 대총회의 각종 행사 개최, 대종보 발간, 홈페이지·블로그 및 전자족보 운영, 회원명부 작성·배포, 장학금 지급, 효행상 수여, 장년회의 어버이날 행사, 오수산악회와 오성산악회의 산행 활동 등 그동안 대총회의 행사 및 사업계획 추진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총회 창립 이후, 대총회 주요사업 추진내용]

1. 정기총회 개최 (매년 3월 넷째 일요일 / 연 1회)

우리 대총회에서는 각 파 문중별로 돌아가면서 총회를 주관하고 있다. 2003년 도암공문중에서 처음 유사를 맡아주었고, 그 후 송은당공, 석문공, 사정공, 칠송공, 장탄, 송계공, 금양군 등 7개 문중이 돌아가면서 유사를 맡아주었다.

■ 정기총회 개최 연혁

개최일자	개최장소	유사문중	개최일자	개최장소	유사문중
2000.05.28	서울 양재동 <양재시민의 숲>	대총회주관	2006.03.26	광주 도덕동 <삼도초등학교>	석문공
2001.03.25	광주 소촌동 <광산구민회관>	대총회주관	2007.03.25	나주 공산면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사정공
2002.03.24	서울 양재동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대총회주관	2008.03.23	광주 농성동 <광주상공회의소>	칠송공
2003.03.23	전북 고창군 <늘봄가든>	도암공	2009.03.22	광주 도덕동 <삼도초등학교>	장탄
2004.03.28	광주 소촌동 <광산구민회관>	대총회주관	2010.03.28	광주 도덕동 <삼도초등학교>	송계공
2005.03.27	나주 동강면 <동강초등학교>	송은당공	2011.03.27	광주 도덕동 <삼도초등학교>	금양군

2012.03.25	나주 동강면 <동강초등학교>	송은당공	2019.03.24	나주 동강면 <동강초등학교> -대중회 창립 20주년	송은당공
2013.03.24	광주 도덕동 <삼도초등학교>	석문공	2020년	코로나19로 총회 미개최	-
2014.03.23	나주 공산면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사정공	2021년	코로나19로 총회 미개최	-
2015.03.22	광주 도덕동 <삼도초등학교>	칠송공	2022.04.24	충남 공주시 <호텔 동학산장>	대중회 주관
2016.03.27	광주 도덕동 <삼도초등학교>	장탄	2023.03.26	광주 도덕동 <삼도초등학교>	석문공
2017.03.26	광주 도덕동 <삼도초등학교>	송계공	2024.03.24	대전 중구 <효문화마을>	대중회 주관
2018.03.25	광주 도덕동 <삼도초등학교>	금양군			



▲2003년도 정기총회 개최(도암공 문중)



▲금암사 참배

2. 종무회의의 개최 (매년 2월 둘째 일요일 / 연1회)

2011년까지는 매년 2월과 9월 연 2회 종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2012년부터 매년 연 1회 종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02년까지 종중회의 명칭으로 개최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종무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2000.01.08.: 임시종중회의 개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황룡회관>, 21명 참석
○근택根澤 회장 주재로, 정기종중회의를 2000.03.12. 서울에서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 종보 발간을 위한 자료 및 원고를 작성·제출하기로 하였다.
- 호적 본관 정정(금성→나주)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 종사법 입법 청원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 ▶2000.03.12: 대중회 정기종중회의 개최, 서울 용산 <초원회관>, 62명 참석
○나주·광주 종회의원 32명은 전세버스 한 대로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부산·양산·대전·목포

종회의원들도 참석하여 이날 첫 종중회에서는 우선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도모하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회원명부 작성 문제는 문중별 또는 자연부락 단위로 대표를 선정하여 작성토록 하였다.

○2000년도 대종회 정기총회는 서울에서 5월 28일(日)에 개최할 것을 가결하였다.

○종보 발간에 있어 편집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종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종중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종무회의 개최 연혁

개최일자	회의 구분	개최 장소
2000.01.08	2000년 임시 종중회의	광주 소촌동 <황룡회관>
2000.03.12	2000년 춘계 종중회의	서울 용산구 <초원회관>
2000.09.24	2000년 추계 종중회의	광주 소촌동 <광산구민회관>
2001.02.11	2001년 춘계 종중회의	서울 용산구 <초원회관>
2002.02.17	2002년 춘계 종중회의	광주 송정동 <민속회관>
2002.09.08	2002년 추계 종중회의	광주 어룡동 <어룡동사무소>
2003.02.09	2003년 제1차 종무회의	서울 용산구 <초원회관>
2003.09.28	2003년 제2차 종무회의	광주 소촌동 <광산구민회관>
2004.02.15	2004년 제1차 종무회의	광주 어룡동 <어룡동사무소>
2004.09.12	2004년 제2차 종무회의	충남 계룡산 갑사 입구
2005.02.20	2005년 제1차 종무회의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서울식당>
2005.09.25	2005년 제2차 종무회의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입구 <비원식당>
2006.02.12	2006년 제1차 종무회의	충남 대둔산도립공원 <아리랑식당>
2006.09.10	2006년 제2차 종무회의	충남 예산군 수덕사 입구 <중앙식당>
2007.02.11	2007년 제1차 종무회의	충남 부여군 <부여관광호텔>
2007.09.09	2007년 제2차 종무회의	충남 천안시 각원사 입구 <대장군식당>
2008.02.17	2008년 제1차 종무회의	충북 보은군 법주사 입구 <산촌식당>
2008.09.21	2008년 제2차 종무회의	충남 공주시 마곡사 입구 <청남가든>
2009.02.08	2009년 제1차 종무회의	충남 공주시 공산성 입구 <새이학가든>
2009.09.13	2009년 제2차 종무회의	충남 금산군 칠백의총 입구 <먹세나식당>
2010.02.21	2010년 제1차 종무회의	충남 논산시 관촉사 입구 <둘레회관>
2010.09.12	2010년 제2차 종무회의	충남 계룡면 신원사 입구 <명산가든>
2011.02.13	2011년 제1차 종무회의	충남 부여군 <독립로식당>
2011.09.18	2011년 제2차 종무회의	충남 연기군 비암사 입구 <고산가든>
2012.02.12	2012년 종무회의	충남 예산군 수덕사 입구 <무릉도원식당>
2013.02.24	2013년 종무회의	경북 김천시 직지사 입구 <부일산채식당>
2014.02.09	2014년 종무회의	충남 계룡산 갑사 입구 <수정식당>
2015.02.08	2015년 종무회의	충남 공주시 마곡사 입구 <태화식당>
2016.02.14	2016년 종무회의	충남 공주시 공산성 입구 <새이학가든>
2017.02.12	2017년 종무회의	충남 논산시 관촉사 입구 <둘레회관>
2018.02.11	2018년 종무회의	대전 중구 부리공원 입구 <장수두부촌>

2019.02.10	2019년 종무회의	대전 중구 부리공원로 47 <효문화마을>
2020년	코로나19로 미개최	-
2021년	코로나19로 미개최	-
2022.02.20	2022년 종무회의	충남 공주시 동학사 입구 <호텔동학산장>
2023.02.12	2023년 종무회의	대전 중구 부리공원 <효문화마을>
2024.02.25	2024년 종무회의	대전 중구 부리공원 <효문화마을>
2025.02.23	2025년 종무회의	대전 중구 부리공원 <효문화마을>



▲2000년도 춘계 종무회의(서울 초원회관)



▲2018년도 종무회의(대전 장수두부촌)

3. 주요 임원회의, 대종보 최초 편집회의

▶1999.12.28.: 임시임원회의 개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신선회관>, 24명 참석

○근택根澤 회장 주재 하에 호적상 본관이 금성錦城으로 된 종회원들은 모두 나주羅州로 바꾸기로 합의하였다.

○대종회 회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종파별, 자연부락별로 임원 중 대표 1인을 선정하여 작성토록 하고 총무간사가 수집토록 하였다.

○대종회 종보는 책으로 5월쯤 발간기로 합의하고, 편집위원 20명을 선정하였다.

○대종회 운영은 우선 임원들이 연회비제로 할 것을 채택하였다.

○나주오씨중앙종친회는 나주오씨대종회로 흡수통합하자는 동의에 전원 합의하고 박수로 통과 시킴에 따라 나주오씨중앙종친회는 이날부터 자동해체되었다.

▶2000.01.28: 최초 종보편집회의 개최, 서울 중구 남산동 <정신물리연구원>, 11명 참석

○종보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각 문중을 대표하는 19명으로 구성한 뒤 이날 최초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종보 편집내용에 관해 개괄적인 협의를 하였다.

○종보 편집내용은 대종회 활동상황, 전국 종회원의 대동화합 방안, 친목증진방안, 국가사회발

전에 각별히 기여하고 있는 종회원 인물 소개, 우리 가문의 문화재 소개, 뿌리찾기 및 선대인물 행적 소개, 예절에 관한 교양, 대종회가 해야 할 당면과제, 그리고 제언 등을 우선적으로 게재하기로 합의하였다.

〈편집위원〉 근택根澤(발행인), 근창根昌(편집인), 사진土鎭(주간), 종만鍾滿(금양군), 억근億根(부사공), 근의根義(사정공), 근성根暻(석문공), 창근昌根(지봉공), 형근榮根(내금위공), 안근安根(총무), 용진容珍(송계공), 덕렬德烈(부사공), 열렬(장탄), 진열鎭烈(명곡공), 진열震烈(명곡공), 순열舜烈(참의공), 세교世敎(장탄), 원교元敎(칠송공), 홍구洪鉉(도암공)

○종보는 1년에 2회(4월, 10월) 발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전국 종친들께서는 평상시에 언제든지 좋은 글을 써서 대종회 사무실로 관련 사진과 함께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단 원고는 모두 한글로 쓰고 어려운 한문은 한글 옆에 괄호로 해서 써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4. 종사연구위원회 개최

개최일자	개최 장소	논의 사항
2008.12.22.	대전 용전동 <솔밭집>	• 종사연구위원회 발족 • 오종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함. • 위원과 상임위원을 구분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전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을 구성 운영하기로 함. • 운영규칙을 수정하여 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기로 함.
2009.05.11.	대전 용전동 <솔밭집>	• 종사연구위원회 연구과제 선정 • 모씨가 대종회장에게 보낸 문건에 대한 대응 문제 • 대동종친회(전 흥룡회) 발족에 대한 대종회의 입장 정리
2010.01.10.	대전 용전동 <풍원오리탕>	• 대동종친회에 대한 대종회의 결의 및 요구사항 통보의 건 • 종사연구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눔 • 나주오씨 뿌리 소책자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함
2011.01.22.	대전 용전동 <솔밭집>	• 소책자 초고 내용 설명 및 의견 청취
2011.08.20.	대전 용전동 <솔밭집>	• 소책자 발간 추진 경과보고, 향후 추진계획
2016.10.22.	대전 오정동 <솔밭집>	• 나주오씨 시조비 부당건립에 관하여 논의하다. • 나주오씨 시조비 부당건립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결의하다. -시조비를 건립한 참의공파 종중과 성근·항식 씨에게 나주오씨 시조 정립과 시조비 건립의 부당함을 알리고 부당건립된 시조비의 자진철거를 엄중 요구하기로 함. -대종회 종무위원을 포함한 전체 임원에게 시조비 부당건립을 알리는 홍보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함. -대종회 홈페이지 및 대종보에 게재하여 전체 종원들에게 시조비 부당건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홍보하기로 함.



▲2016년 종사연구위원회(대전 솔밭집)



▲2016년 종사연구위원회(대전 솔밭집)

5. 나주(금성)오씨 대중보(會報) 발간 (매년 1회)

발행호수	발행일자	페이지수	표지사진
창간호	2000.05.28.	62	장화왕후 유적비
제2호	2001.03.25.	72	완사천
제3호	2002.03.24.	72	종중회의 단체사진(2002. 02. 17. , 광산구청 앞)
제4호	2003.03.23	136	완사천 소공원
제5호	2004. 06.	76	1세 휘언조 묘역
제6호	2005.03.27.	80	왕건 장군과 장화왕후 첫만남 동상(완사천 공원)
제7호	2006.03.26.	100	2005년 제2차 종무회의의 단체사진 (천안 독립기념관 입구, 2005.09.25)
제8호	2007.03.25	112	나성군 신도비
제9호	2008.03.23	84	2007년 제2차 종무회의의 단체사진 (천안 각원사 대웅전 앞, 2007.09.09.)
제10호	2009.03.22.	120	2009년 제1차 종무회의의 단체사진 (공주 공산성, 2009.02.08.)
제11호	2010.03.28.	128	2010년 제1차 종무회의의 단체사진 (관촉사 은진미륵 앞, 2010.02.21.)
제12호	2011.03.27.	136	2011년 제1차 종무회의의 단체사진 (사비궁 천정문 앞, 2011.02.13.)
제13호	2012.03.25.	128	원당영각(보물 제1190호 오자치 초상을 모셨던 영각)
제14호	2013.03.24.	120	명옥헌鳴玉軒 원림苑林
제15호	2014.03.23.	124	오자치 초상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190호)
제16호	2015.03.22.	116	용마암龍馬巖
제17호	2016.03.27.	108	시기재始基齋
제18호	2017.03.26.	112	광산사廣山祠
제19호	2018.03.25.	108	평가재平價齋
제20호	2019.03.24	164	백련사白蓮祠
제21호	2020.08.31	156	명옥헌鳴玉軒 원림苑林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58호)
제22호	2022.04.24 (2021/2022 합본호)	114	순덕재純德齋
제23호	2023.03.26	124	방설당氷雪堂
제24호	2024.03.24	118	양평공襄平公 부조묘不祧廟
제25호	2025.03.22	152	금암사靑巖祠

대중보 창간호 ▶
2000.05.28.
발행



◀ 대중보 제24호
2024.03.24.
발행



6. 1世祖 중랑장공中郎將公(휘언諱偃) 시제 봉행

○ 시제일 : 음력 3월 9일

○ 묘역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산102-1(평가산)



▲중랑장공 시제 봉행(2019.04.13.)



▲중랑장공 시제 봉행 후(2019.04.13.)

7. 나주오씨족보 복사본 제작·배포 (2005.12.16)

족보 구분	수량	족보 구분	수량
경오보 (1810년 발간)	10질	임진보 (1892년 발간)	11질
신사보 (1941년 발간)	37질	신유보 (1981년 발간)	70질

※대중회가 나주오씨족보 5종(정묘보, 경오보, 임진보, 신사보, 신유보)의 대중회 비치용 족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 소장자를 위하여 복사본 구입 신청을 받아 2005.12.16. 족보 복사본을 제작·배포하였음.

8.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 위탁관리·보존처리 및 국가 기증

가. 오자치 초상을 문화재청(국가)에 기탁하다.(2003.05.02.)

○5世 적개공신敵愾功臣 나성군羅城君(諱自治) 초상(보물 제1190호: 문화재 지정 명칭=오자치 초상)을 문중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도난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정부기관에 기탁하여 관리하기로 대중회 종무회의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대중회에서는 관리기관 선정을 위해 여러 가지로 협의하여 오던 중 문화재청 소속 궁중유물전시관(2005년 3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명칭 변경)에 기탁관리토록 하고 대신에 문화재청 예산으로 새로 제작하게 되는 모사도模寫圖를 영각에 봉안하기로 문화재청과 합의하였다.



▲오자치초상 궁중유물전시관에 인계(2003.05.02)

○2003.05.02. 형희榮熙 종무원장, 종만鍾滿 서울지부장, 기열奇烈 고문 등이 궁중유물전시관(현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하여 초상을 인계하였다.

○그 후 문화재청 예산으로 동강東江 권오창權五昌 화백이 진본과 같이 비단천에 천연물감을 사용하여 정성 드려 그린 모사본을 2004.05.11. 인수하여 현재 나성군 종중에서 모시고(보관) 있다.



오자치 초상 (보물 제1190호)



오자치 초상 모사본 (권오창 화백 寫)

나. 문화재청, 오자치 초상의 문화재 지정명칭을 변경하다 (2014.07.02)

○보물 제1190호로 지정된 『傳 오자치 초상』의 문화재 지정명칭을 변경(傳 오자치 초상 → 오자치 초상)하여 줄 것을 2014.01.06. 대종회가 문화재청에 요청한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2014.02.13. 2014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대상으로 결정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관보공고절차를 거쳐 2014.07.02. 문화재청고시 제2014-70호에 의거 『오자치 초상』으로 문화재 지정명칭을 변경하였다.

(※대한민국 관보 제18297호, 86면, 2014.07.02.자 참조 / 대중보 2014년 제15호, 17~20면 참조)

다.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사업을 완료하다.(2015.07.31.~2018.01.05.)

○2015.07.31. 대종회가 고창문화재보존(대표 송정주)과 오자치초상 보존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08.07.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5,300만원을 강남구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2017.06.28. 오자치초상 보존처리 완료검수 당일 정오 12시 용인시 소재 ‘서울회관’에서 오자치초상 보존처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초상 보존처리 진행사항 및 초상 기증 추진사항 등을 오형근 총무부회장이 회의에 참석한 초상보존처리위원회 위원 및 집행부 임원(참석자: 16명)에게 보고하였다.

○2017. 06. 28. 오후 2시. 초상보존처리위원회 위원 및 집행부임원(16명)이 고창문화재보존에서 완료 검수를 실시하였으며, 당초 도급계약의 내용과 이상 없이 초상 보존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날 완료 검수에는 자문위원 조선미 교수 및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김인규 과장, 김현정 계장, 김아란(기증·기탁 담당), 김선영(지류보존처리 담당) 등 4명이 입회하였다.

○2017.06.30. 대종회와 도급업체(고창문화재보존)은 초상보존처리사업 관리감독청인 강남구청(문화체육과)을 방문하여 오자치초상 보존처리 준공자료를 제출하였다.

○2017.06.30. 도급업체(고창문화재보존)가 용역대금 정산 청구에 따라, 2017.08.02. 준공금액 51,553,000원(부가세 포함)에서 선급금 15,900,000원을 차감한 잔액 35,653,000원을 고창문화재보존에 지급하였다.

○2018.01.03. 강남구청의 정산잔액 반납요청에 따라, 2018.01.05. 대종회는 강남구청에 국고

보조금 잔액 1,508,887원(세후이자 발생액 61,887원 포함)을 반납하였다.

○초상보존처리 실무위원 : 오종만, 오형희, 오영교, 오교철, 오교한, 오형근, 오승기, 오종문
(이상 8명)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완료검수



- 오자치초상 보존처리 준공기념촬영 / 2017.06.28. 고창문화재보존 -

라. 대종회, 오자치 초상을 국가(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 완료하다 (2017.02.01. ~ 2017.11.16.)

○2017.02.01. 오자치초상보존처리 실무위원회(위원 8명)에서 오자치초상을 국가(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하기로 의견 수렴하였다.

○이어서 2017.02.12. 2017년도 대종회 총무회의에서 오자치초상을 국가(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2017.03.26. 2017년도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오자치초상을 국가(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을 인준하였다.

○2017.05.18. 대종회가 국가에 오자치초상을 기증하기로 결정을 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대종회 사무실을 방문한 국립고궁박물관 김인규 유물과학과장을 통하여, 오자치초상 ‘기증신청서’를 제출·접수하였다.

○2017.07.27. 보존처리가 완료된 오자치초상을 고창문화재보존(대표 송정주)에서 국립고궁박물관에 직접 인계하였고, 대종회는 국립고궁박물관이 발행한 ‘인수증’을 수령하였다.

○같은 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오자치초상에 대한 ‘수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오자치초상의 수증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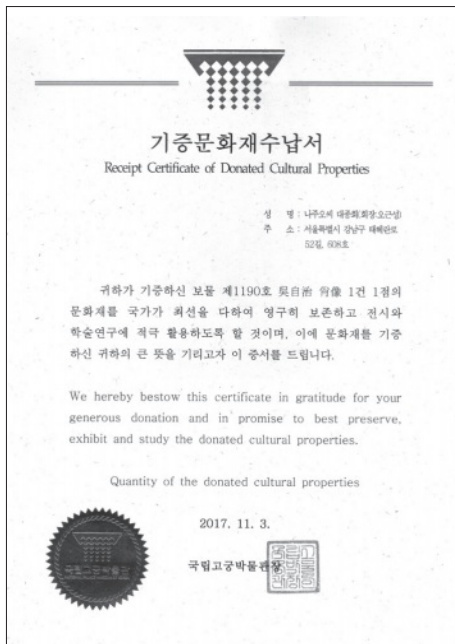
○2017.11.16.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국립고궁박물관 주관으로 오자치초상 ‘기증식’이 개최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 측에서는 김연수 박물관장, 김인규 유물과학과장, 지연수 전시홍보과장, 김지연 학예연구관, 안보라·신재근 학예연구사가 참석하였고, 우리 대종회에서는 서울경기지역 40명, 호남지역 28명 임원과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기증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기증식에서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소중하게 보관해 온 보물 제1190호 오자치초상을 국가에 기증해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는 김연수 박물관장의 인사말에 이어, 2003년 이후 오자치초상을 위탁관리를 맡아주었고 또 훼손이 심한 초상을 보존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 국립고궁박물관측에 감사를 표하고 아울러 그동안 초상보존처리와 기증절차에 협조하여 준 대종회 임원과 종친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오근성 대종회장의 기증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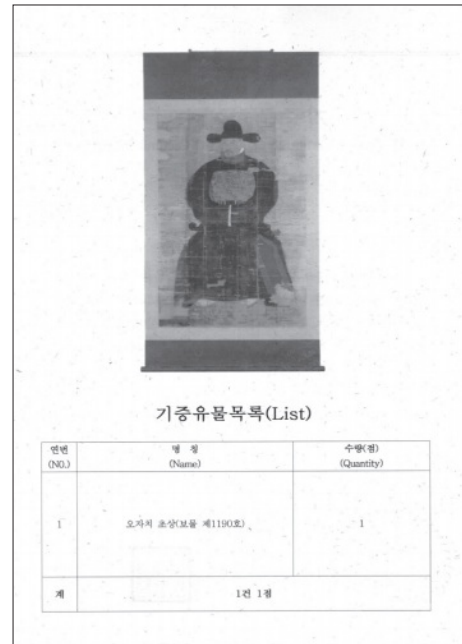
○이어서 신재근 학예연구사가 ‘오자치 초상의 사회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브리핑을 잘 해주었으며, 이어 오근성 대종회장이 김연수 박물관장으로부터 기증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한 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준비한 다과회 시간을 갖고 기증식 행사를 마쳤다.



▲오자치 초상 기증식 행사 사진



▲오자치 초상 기증문화재수납서(앞면)



▲오자치 초상 기증문화재수납서(뒷면)

마. 국립고궁박물관, 오자치 초상에 대한 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2019.06.03.),

특별전시를 하다.(2019.05.28.~2019.06.30.)

○우리 대종회가 2017년 11월 국가(국립고궁박물관)에 기증한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에 대한 <학술강연회> 및 <특별전시> 행사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다.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에서 2019.05.28.~06.30.(34일간) 열리는 기증·기탁특별전(조선의 공신) 특별전시는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을 비롯하여 ‘이성운 초상(보물 제1490호)’, 18여 년 동안 도난 당했다가 지난해 되찾은 ‘익안대군 영정(충남 문화재자료 제329호)’ 등 공신에 책봉되어 국가에서 받았던 명예로운 초상화, 교서, 녹권, 교지 등 가문의 보물을 특별전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오자치 초상 <학술강연회>는 국립고궁박물관 주관으로 2019.06.03.(월)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소재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국립고궁박물관 측에서 진병목 국립고궁박물관장과 김인규 유물과학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대종회에서 오근성 대종회장을 비롯한 임원, 종무위원, 종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진병목 국립고궁박물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자치 초상을 500년이 넘도록 잘 보존하여 국가에 기증해 준 나주오씨대종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근성 대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존상태가 안 좋은 유물을 보존처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준 고궁박물관 측에 감사드리고, 오자치 초상 보존처리 및 국가에 기증하는 것을 결의하여 주시고 2017.11.16. 초상 기증식과 오늘 특별전시, 학술강연회 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대종회 임원·종무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자치 초상(보물 제1190호)’ 복제품 1점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외주 제작하여 오동나무상자에 넣어 기증자인 우리 대종회에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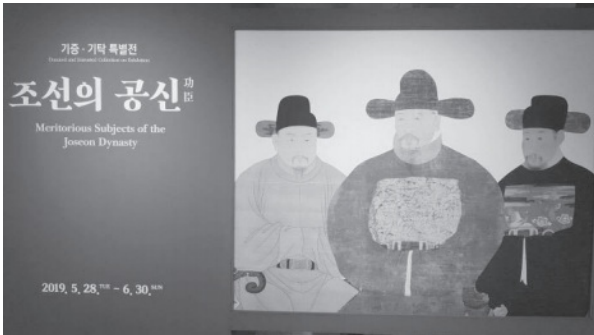
○이어 기증유물 오자치 초상에 대한 학술강연회가 실시



▲오자치 초상 복제본

됐다. 김인규 유물과학과장이 「조선 세조 공신: 적개공신 오자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ppt를 이용하여 강연했다. 이어서, 신재근 유물과학과 학예연구사가 「오자치 초상의 조형적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ppt를 이용하여 강연했다.

학술강연회 행사가 모두 끝난 후, 행사 참석자들은 전시실로 이동하여 오자치 초상 특별전시 행사를 관람했다.



▲오자치 초상 학술강연회 및 특별전시 행사

9. 대중회 문장紋章 제정(2020.06.20.) 및 종기宗旗 제작(2021.11.04.)

○대중회는 대중회 휘장(종기)으로 사용할 문장에 대한 공모를 실시(2019. 04.01.~09.30. 6개월간)하였고, 2020년 6월 20일 서울·호남지역본부 집행부임원 간담회에서 출품된 6점의

응모작품 중 당선작 1점을 선정하였으며, 2021년 11월 4일 대종회 문장을 이용하여 대종회 종기 2점을 제작하였고 각종 대종회 행사 시 행사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과 광주 대종회 사무실에서 각각 보관하고 있다.



▲대종회 문장



▲대종회 종기

10. 대종회 부동산(오피스텔 및 임야) 취득

구분	소재지	층/호수	면적	장부가	부동산 취득일	소유권 이전등기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8	테헤란오피스텔 6층 제608호	전유면적 24.12㎡ (7.3평)	취득가액 8,000만원 이전비용 등 541만원 합계 8,541만원	2000. 07. 20	2000. 07. 20 등기접수 제56838호 (강남등기소)

11. 가족관계등록부 본관本貫 정정 추진 (1999.12.28.~)

○ 대종회 창립 이후 개최된 1999.12.28. 및 2000.01.08. 임시 종중회의에서 호적상 본관이 금성錦城으로 되어 있는 종원들은 모두 나주羅州로 정정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대종회는 매년 대종보 발간 시 본관을 나주로 통일하자는 내용을 계속 홍보해오고 있다.

▶오씨 본관별 인구현황(2015년, 통계청)

■ 나주羅州: 18,152명, ■ 금성錦城: 14,458명 합계: 32,610명

12. 대종회 홈페이지(najuoh.or.kr) 개설 및 운영

가. 대종회 홈페이지를 최초 개설하다 (2002.05.10.)

대종회 소개, 뿌리 탐구, 대종회 소식, 자료실, 비단고을(게시판) 등을 통하여 각종 종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나. 대중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다 (2007.08.22.)

- ① ‘뿌리탐구’편에서 나주오씨 유래, 나주오씨 세계 분파도, 나주오씨 족보(족보편찬사, 족보 서문 소개), 항렬자 정규, 사적, 문헌, 주요인물, 집성촌, 제향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② <회원명부>DB를 구축하고 <회원명부> 등록·검색을 온라인화하였음
- ③ ‘대중회 소식’편에서 대중회 행사 사진을 열람할 수도 있도록 하였음

다. 대중회 홈페이지의 이용 기능을 대폭 강화하다 (2009.06.25.)

(1) <회원명부> 전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하다

<회원명부>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으며, <회원명부>를 책자 형태로 발행·배포하는 것은 금지하고, 대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만 <회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회원명부>는 그 후 인터넷족보시스템 구축 시 기본자료로 활용되었음

(2) <나주오씨대동보>(族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개시하다

<나주오씨대동보>(1981년 발행 신유보, 전 5권) 서책족보를 PDF파일형식으로 준비하여 대중회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전 회원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 인터넷으로 대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주오씨대동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나주오씨대중보>(會報)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개시하다

매년 정기총회 시 발행된 대중보(2000년 창간호부터)를 대중회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정된 수량 배포로 대중보를 받아보지 못한 회원이나 해외에 체류 중인 회원의 경우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회비·협찬금 납부 내역> 게시판을 설치하다

대중회 창립일 이후 회원이 납부한 회비, 협찬금, 각종 기금 등을 연도별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5) 오넷(Oh-Net) 회원 가입 신청 절차를 개선하다

오넷(Oh-Net)회원은 대중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회원을 말하며 오넷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만이 위에 열거한 대중회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라. 대중회 홈페이지를 2007년에 이어 대폭 개편하다 (2010.09.10.)

- (1) <전자족보>편을 신설하여 ‘뿌리탐구’편과 ‘회원명부검색’편을 <전자족보>편에 통합하고,

회원명부시스템을 전자족보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자족보>의 구조를 갖추.

▶전자족보 기본사항(입력·조회사항)은 본인·배우자·자녀 인적사항, 본인의 연락처·근무처, 대종회 관리사항 등으로 구성함.

(2) <대종보/사진첩>편을 신설하여 ‘대종회 소식’편에 있는 ‘대종회 행사 사진’과 ‘나주오씨 대종보’를 이 편으로 이동함.

(3) ‘가족사랑방’편을 <회원소식>편으로 변경함.

(4) 현재 전자족보시스템에 등록된 ‘계파별 종원 수 현황’(남·녀 구분, 생존자·사망자 구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13. 대종회 블로그(blog.naver.com/najuohorkr) 개설 및 운영 (2019.09.29.)

○대종회 홈페이지의 전자족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는 많은 종원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넷회원으로 승인된 종원만 대종회 홈페이지와 전자족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나주오문 종원들이 대종회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각종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대종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타 성씨들은 우리 대종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었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종회 블로그>를 2019.09.29. 개설함으로써, 우리 나주오문 종원 가족들은 물론이고 타 성씨 누구라도 나주오문의 종사宗史(뿌리 정보), 대종회 활동 상황 등 각종 소식 및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음.

※<대종회 블로그>에서는 전자족보 시스템 이용, 서책족보 열람, 대종보 열람을 이용할 수 없고,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려면 대종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함.

14. 대종회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 시스템 재구축(2023.09~2023.12)

[주요 개선 내용] “2024. 01. 23. 재오픈”

1. 홈페이지/전자족보는 <반응형 웹>으로 제작함으로써, 홈페이지/전자족보 내용이 화면의 형태(가로, 세로)에 알맞게 자동적으로 반응·조정되므로, 데스크탑 PC는 물론, 태블릿 PC·스마트폰(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화면을 볼 수 있게 되었음.

2. 다양한 <전자족보> 기능을 추가하였음.

① [배우자 보기] 기능: 본인의 [전자족보 기본사항] 자료에서 분리하여, 복수의 배우자(後配)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였음.

② [자녀 보기] 기능: 본인의 [전자족보 기본사항] 자료에서 분리하여, 자녀들의 [전자족보 기본사항]과 연결하여 자녀들의 인적사항을 보여줌.

③ [본인소개 보기] 기능: 본인의 프로필, 본인 소개 글, 본인이 운영하는 기업체 소개 글 등을 등록 가능하도록 하였음.

★신유보에 실린 지장(행장, 시장, 묘지명, 묘갈명 등)들은 고인별로 분류하여 본인들의 [본인 소개보기]에 순차적으로 등록 처리할 예정임.

④ [사진 보기] 기능: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진을 10장 이내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

★본인 사진, 배우자 사진, 결혼사진, 회갑연 등 기념사진, 고인의 경우에는 묘소, 묘역, 납골당 사진, 기타 본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진 등.

⑤ [직계선조 보기] 기능: 본인 위로 직계선조님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1세조 ~ 본인), 직계선조님들의 “세수, 한글이름, 한자이름, 생년월일, 졸년월일, 족보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계선조 중에서 특정 인물의 행행을 클릭하면 해당 인물의 <전자족보>를 열어볼 수 있도록 하였음.

⑥ [동고조팔촌 보기] 기능: 본인의 고조 할아버지 후손들(당내친堂內親, 유복친有服親) 8촌 형제까지 이 가계도를 통하여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가계도에 나타나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인물의 <전자족보>를 열어볼 수 있도록 하였음.

⑦ [연락처 보기] 기능: 본인이 등록한 자택 및 직장 연락처(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팩스전화, 이메일주소, 홈페이지주소, 근무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15. <나주오씨 회원명부> 작성·배포 (2005.03.27.)

○2005.03.27. 현재 총 2,176명의 회원이 등재되는 <회원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대종회 창립 이후 숙원사업의 하나인 대종회 사업계획이 실천하게 되었다.

▶<회원명부> 작성 목적: ① 회원간 연락 유지. ② 대종회 소식 및 행사 안내, 대종보 발송, 애경사에 적극 참여, 회원 애로사항 조력 등을 통한 대종회 조직 활성화에 기여. ③ 효율적인 회원관리. ④ 인터넷전자족보 기반 확보. ⑤ 뿌리찾기 활용

○2007.08.22. 대종회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회원명부>DB를 구축



▲나주오씨 회원명부 발행)

완료하고 <회원명부> 등록·검색을 온라인화하였다가, 2010.09.10. <전자족보>DB 신설 시 통합하였다.

16. 장학금 지급 (2009년부터 시행)

지급년도	수혜자	생년	학교명	부(父)	문중
2009년	오종훈 (鍾)	1984	서울대 경제학부 3년 ※ 2008.11.27. 제52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오백균	장탄
2010년	오미리 (敎)	1991	조선대 중국어과 입학	오효열	송계공
2011년	오대창 (烈)	1987	전남대 산림자원조경학부 2년	오종근	금양군
2012년	오미선 (根)	1993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입학	오윤수	송은당공
2013년	오성혁 (敎)	1994	전남대 경제학과 입학	오기열	석문공
	오성훈 (鍾)	1993	동강대학 세무학과 2년	오찬교	
2014년	오승찬 (敎)	1994	동신대 정보보안과 2년	오종오 (烈)	사정공
2015년	오승준 (鍾)	199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입학	오성훈 (敎)	칠송공
2016년	오상영 (泳)	1997	한국외국어대학교 1년	오종원	장탄
	오경재 (鍾)	1998	전남대 의대 의예과 1년	오만석 (敎)	
2017년	오기현 (敎)	1998	호남대 전자공학과 2년	오윤영 (烈)	송계공
2018년	오성민 (根)	1999	명지대 일본어학과 2년	오대규 (洙)	금양군
2019년	오수빈 (根)	1997	목포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3년	오정현 (洙)	송은당공
2023년	오정우 (敎)	2004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1년	오춘열	석문공



▲완교完敎 회장 장학금 수여_ 종훈 군(2009.3.22)



▲근동根潼 회장 효열부상 수상_ 정야무 여사 (2005.3.27))

17. 효행상 수여 (2005년부터 시행)

수상년도	수상자	나이	효행 구분	배우자	문중
2005년	정야무	82	효열부상	오관수	송은당공
	최오임	66	효부상	오윤근	금양군
	오희식	82	열부상	-	사정공
2006년	이순자	54	효부상	오부근	석문공
	오중남	79	선행상	-	정탄
	오순남	47	감사패(담양군청 근무)	-	칠송공

2007년	김양례 유점숙 박동순	71 61 47	효부상 효부상 효부상	오남근 오춘교 오만열	석문공 사정공 석문공
2008년	김성숙	48	효부상	오종명	칠송공
2009년	오판교 이양례	67	효자상 효부상	- 오화열	장탄 장탄
2010년	강점순	65	효부상	오종근	송계공
2011년	정종례		효부상	오성수	금양군
2012년	박처임	69	효부·열녀상	오진수	송은당공
2013년	김은희		효부상	오성수	석문공
2014년	김은미		효부상	오종국	사정공
2015년	오명교		효녀상	-	칠송공
2016년	박영금 오영석(敎)	74	효부상 효자상	오광근 -	장탄 장탄
2017년	오근양	77	효자상	-	송계공
2018년	오공근	67	효자상	-	금양군
2019년	오종열 故 나경자	82 향년 93세	효자상 효부상	- 오찬수	송은당공 송은당공

18. 장년회의 어버이날 행사

○장년회(회장 홍구洪鉉, 도암공문중)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장년층 종친들이 모여 1999.12.05. 창립한 대종회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9.12.22. ‘새천년재경나주오씨장년회’를 결성하여 매월 정기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 회의 명칭을 ‘나주오씨장년회’로 변경하였다.



▲백골포병부대 위문행사 시 촬영한 단체사진(2003.05.18.)

○장년회는 매년 5월 효孝의 달을 맞이하여 존조경친尊祖敬親의 정신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주관하여 연세가 많으신 종친 어르신들을 모셨다.

행사일자	어버이날 행사 내용
2001.05.08.	서울 동대문 소재 <진고개 한정식당>에서 저녁식사에 모심.
2002.05.07.	서울 청진동 소재 <서울관광호텔>에서 저녁식사에 모심
2003.05.18.	강원도 철원 소재 백골포병부대 위문행사 겸 제2땅굴 효도관광 행사에 모심
2004.05.23.	충남 계룡산 동학사 및 청남대 효도관광 행사에 모심

19. 오수산악회(서울)와 오성산악회(광주)의 산행 행사

○2004.11.28.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종친들이 ‘서울경기지역 등산동호회’ 결성하였으며, 2007. 1.7. 정기총회부터는 ‘나주오씨대종회 수도권산악회(약칭 ‘오수산악회’)

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 남京南 씨(부사공문중)가 회장을 맡았다. 이후 오수산악회는 2010년 1월부터 청근靑根 씨(내금위공문중), 2014년 1월부터는 채열菜烈 씨(내금위공문중), 2016년 1월부터는 채근蔡根 씨(내금위공문중), 2024년 1월부터는 경근京根 씨(장탄문중)가 회장을 이어받았다. 매년 3월에는 산행의 안전을 기원하는 시산제始山祭를 올리고 있다.

○오성산악회는 2010.01.12. 산행을 시작으로 결성되어 인수仁洙 씨(송은당공문중) 당시 호남본부장이 산악회장을 하다 2010년 8월부터 행근幸根씨(석문공문중), 2013년 3월부터 무송茂松 씨(금양군문중), 2017년 3월부터 인선仁善 씨(송은당공문중), 2018년 9월부터 은열殷烈 씨(석문공문중), 2020년 3월부터 성수聖洙 씨(금양군문중)가 회장을 이어받았다.

○특히 2006.11.5. 고창 선운산, 2007.11.4. 마이산, 2008.11.02. 무등산, 2010.11.07. 계룡산, 2011.05.01. 강천사, 2012.05.06. 백양사, 2013.05.05. 무등산, 2014.05.04. 금산사, 2015.05.03. 고창 선운사, 2016.05.01. 청주 청남대, 2017.05.07. 무등산, 2018.05.06. 부여 정림사지와 낙화암을 오수산악회와 오성산악회가 합동산행을 실시하여 상호 친목을 도모해 오고 있다.

위와 같이 대종회 창립 추진과정과 대종회 창립 이후 대종회 운영현황을 살펴봤다. 우리 대종회는 25년 동안 짧은 기간에도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룩했다고 본다.

앞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종원들에게 나주오문羅州吳門의 뿌리정신과 송조애종崇祖愛宗의 정신



▲ 2007.10.7일, 남산걷기대회에서 하산길에 단체사진



▲ 2007년 11월 4일, 마이산 원정산행 단체사진



▲ 오수/호남산악회 합동, 진안 마이산 돌탑 앞에서 앞줄 가운데가 오근동 회장님

을 가슴속 깊이 심어주도록 더욱 힘쓰고, 종원들의 화합과 협동으로 종문宗門의 족의族誼를 더 돈독히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대종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또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나주오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전자족보 시스템 구축사업과 뿌리 교실 운영 및 선조 위업 현양 사업 등을 추진 함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주오문의 자긍심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대종회가 되어야 하겠다.

그동안 대종회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종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 종사宗事に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나주오씨 송계공파 족보 발간 안내

나주오씨송계공파(파조派祖 휘諱 언인彦仁) 문중에서 파보派譜 족보 발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라에는 국사가 있고, 씨족에게는 족보가 있어 가문의 역사를 알 수 있고, 혈통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종원 중 아직까지 수단을 제출하지 않은 송계공파(백양동 참공파) 종원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친들께서는 해당 종원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종원에게 문의바랍니다.

- 문의 오정욱 (010-2045-0388)
오기주 (010-3642-3355)

나주오씨송계공파문중

나주(금성)오씨대종보 제25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사)한국경찰유족회

회 장 오 승 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35
전화: 010-3641-7021

마음 길 따라/ 오경수

구름 태운 바람이
산 넘고 바다 건너
한없이 흘러갑니다

몸속 뼈, 마디마디
하얗게 쌓인 그리움도
속절없이 닳고 닳아
쭈시고 아프네요

오랜 세월
전봇대 세워 이어온 소식도
큰길 내어 달려온 찾길도
이젠 찾고 오가기엔
모두 낡고 늙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새 한 마리
하늘 높이 날아올라
귀 아프게 소리치네요

기다리지 마세요
앞 보이지 않는 거기서
마음 길 하나 내어
그 길에 들어보세요

그 길
쭉- 따라가면

그대 그리는 그리움도
그대 그리운 그리움도
눈물 똑 똑
자유로이 만날 수 있으리니.



오경수/O Gyeong Su (석문공문중)

국제 PEN 한국본부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문화·영상 칼럼니스트(첨단신문, ZOOM, FCI), 대한민국(공)미술대전 초대작가, 월간 「영상」 초대작가, 한국예술가곡연합회 이사, 대한민국(공)미협회원. 저서 『낮달 품어 나는 새』 등 시집 4권, “내 마음 칸타빌레” 등 한국창작가곡 작시 13곡.

경칩 무렵/ 오창렬

개구리들이 조약돌을 밤낮으로 쏘아 올리는 날들이다
소리의 조약돌에 심장을 쏘인 태양이 속절없이 햇살을 쏘는 날들이다

돌 묻어 야물어진 햇살이 이들이들 봄 길을 내다
매화나무 가지에 걸려서는 매화꽃망울로
산수유나무 가지에 걸려서는 산수유꽃망울로
오돌토돌 불룩불룩 우둘투둘 불룩불룩
채색한 개구리눈처럼 수천수만의 꽃눈이 도둑해지는 날들이다

가루 가루 쏟아지는 햇살 묻은 돌에 놀라
겨울이 삼십육계를 놓는 자리로 초록과 꽃별들이 다투어 깨어나는 경칩 무렵

와글와글 딸애의 꿈도 봄비는 날들이다



오창렬 (명곡공문증)

남원에서 나서 전주에서 살고 있다. 1999년 계간 시전문지 <시안> 신인상에 「하섬에서」 외 4편이 당선되어 등단. 시집으로 첫시집 『서로 따뜻하다』(2008), 『꽃은 자길 봐주는 사람의 눈 속에서만 핀다』(2018)가 2018년 세종도서 문학나눔도서 선정. 제8회 '깊신문학상', 제9회 '불꽃문학상', 제0회 '석정춧불시문학상' 수상.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시 「부부」, 「가을밤」이 수록.

그 옛날, 시가 되지 못한 / 오종문

몰래 딸꾹질하던 저녁해가 깔딱댄다
또 한 채 고요 늘고 빈방에 불을 켜는
풍경 속 감금되었던 폭설 내린 밤이다

가만히 떠나갔던 몸 안 곳곳 박힌 사랑
길 끊긴 산간 마을 한 집에 찾아들어
사나흘 고픈 눈빛만 말뚝말뚝 껌뻑인다

당신을 닮은 마음 그대의 뼈와 기억
시편 행간 사이에 꺾꺾 눌러 담았느니
쓸쓸한 마음의 내벽 긴 칼금을 긋는다

산수유 피는 자리 돌담길도 늙어가고
묵은 책갈피 속에 엄숙한 편지 한 통
한 대목 물길 거슬러 굴뚝새만 울었다



오종문 (참판공문중)

1986년 사화집 『지금 그리고 여기』를 통해 작품활동 시작. 시조집 『지상의 한 집에 들다』, 『아버지의 자전거』, 『봄 끝 길다』, 가사시집 『명옥헌원림 별사』가 있고, 그 외 『이야기 고사성어』(전3권. 1권 처세편, 2권 교양편, 3권 애정편) 등 다수가 있다. 중앙시조대상, 가람시조문학상, 한국시조대상 등 수상.

나에게 동화란/김수은

정년퇴직하기 몇 달 전이었다.

어느 날 오후, 황금빛 석양이 창을 뚫고 교실 바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아이들이 황급히 빠져나간 교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때 교실 두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 손때로 번들거리는 책들은 똑바로 서있는 책보다 뒤집어져 있거나 거꾸로 된 책들이 더 많았다. 책들을 정리하기 위해 책장으로 다가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렇게 많은 동화책이 있었지!’

나는 왜 그동안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으라고 했을 뿐, 함께 읽을 생각은 못 했던 걸까. 동화책 속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아이들 각자의 욕망은 어떤 모습과 색깔을 지녔을지...

그 뒤로도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과 동화에 대한 아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인 작품처럼 동화도 읽는 방법을 따로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동화에 대한 강의를 인터넷으로 찾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한 아카데미에서 하는 동화 강의에 참가했다. 나는 동화에 점점 빠져들었다.

모든 사물과 영적으로 통하는 유아기의 아동들부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이 중요해지는 사춘기의 아이들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문학은 그 스펙트럼이 엄청났다. 그보다 놀라운 건 어린이 문학에 바탕이 되는 어렸을 때의 경험과 그 정신세계가 어른이 된 뒤에도 자라고 완성된다는 게 신기했다.

지금 나에게 동화는 마치 산속을 헤매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안식처와도 같다. 동화 세계의 섬세함과 따뜻함, 작은 목소리로 도란거리는 부드러움이 오래전 찾아 헤맨 바



로 그 고향의 모습이기도 했으니까.

그동안 소설과 시 같은 어른들의 세계가 한 줄기 빛으로, 물방울처럼 응축된 것이 동화가 아닌가 싶다.

지금 나는 우리 모두의 시원인 아이들의 세계. 그 욕망과 기쁨과 슬픔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한다. 주변의 온갖 것들에게 환호와 기쁨, 그리고 슬픔을 배워가는 아이들의 그 섬세한 눈 또한 닮고 싶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동화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수은 (장탄문중, 오남열 부회장 부인)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 문예창작과 대학원 소설전공 졸업.

상당심리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2019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동화가 당선되어 글을 쓰고 있음.
쓴 글로는 「마지막 여름방학」, 「빨간 단추」 등이 있음..

알고 나면 쉬운 세금 상식! 취득세



세금에 대한 범위는 상당히 넓어 참으로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취득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어떤 곳에 과세가 되는지의 과세대상물 범위, 과세대상물의 취득시기는 어느 기점으로 하는지, 세율은 어느 정도이고 납세절차와 비과세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등입니다.

취득은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취득자(예: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그 소유자이거나 양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하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분할납부가 불가능하고, 물납없이 현금납부가 원칙입니다.

취득세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지방세법상의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나 민법의 토지 및 그 지상정착물로 규정하고 있으니 세법과 민법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민법상의 부동산의 범위가 세법보다 더 넓은 의미이다.

주택을 취득한다면!

먼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했다면, 그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니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혹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일 때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설령 취득을 하였다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등기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

고, 해제된 사실을 입증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니 공정증서나 화해조서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무상취득(상속·증여)하셨다면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는 계약일 전에 미리 등기·등록을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한 날짜가 됩니다.

무상취득 역시 계약이 해제되면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고 입증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과세 기준은?

취득 당시의 금액을 말하는데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해당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취득가격에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른데, 개인의 경우 부동산 매입 가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구입비용 외에 당사자 간 약정한 조건이 있는 채무인수액, 주택채권 매각차손이 포함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나 할부이자, 연체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법인과 차이점이에요. 중개보수가 포함안 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일시적 2주택이란?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신규주택은 기존보유 중이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을 보유한지 2년이 넘어야 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2주택자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자라면 1~3%의 세율을 적용받고 신규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 매도 조건이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인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아울러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나주오씨 홈페이지 · 전자족보 등록 안내 (<http://najuoh.or.kr>)

1. 대종회 홈페이지 전자족보 소개

나주오씨대종회 홈페이지는 종원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나주오씨대종회는 1964년 ‘재경나주오씨화수회’로 출발한 이후 1981년 ‘나주오씨서울종친회’, 1994년 ‘나주오씨중앙종친회’로 개칭되어 1999년 ‘나주오씨대종회’로 정식 창립된 이후 나주오문을 빛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2000년《나주(금성)오씨대종보》(회보)를 창간하고, 2002년 나주오씨대종회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기존의 종이책 족보를 전자족보로 전환하기 위해 2009년 ‘전자족보 기본사항(인적사항)’ 입력 추진을 시작해 2023년에는 기존 홈페이지와 전자족보시스템 재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주오씨대종회 홈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발행된《나주(금성)오씨대종보》(회보)를 열람할 수 있고, 1981년에 발간된《나주오씨대동보(족보=신유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족보시스템에서는 종원들의 전자족보 등록 및 등록된 종원들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전자족보 등록/검색’란이 있습니다.

(1) 〈전자족보〉 신규 등록

□ 생존자

구 분	신규 등록 신청 절차
① 〈신유보〉 등재자 중 전자족보 미등록자	해당 등재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규등록 신청함을 원칙
② 1981년 이전 출생자 중 〈신유보〉 누락자로서 전자족보 미등록자	위와 같음
③ 1981년 이후 출생자로서 전자족보 미등록자	위와 같음

□ 망인(亡人)

구 분	신규 등록 신청 절차
① 신유보 등재자 중 1981년 이전 사망자 (※신유보에 출년월일 또는 출년간지 표 시자)	대중회에서 향후 일괄적으로 신규 등록을 전산 입력 처리할 계획임. ■ 대중회에서 출년월일 또는 출년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임.
② 신유보 등재자 중 1981년 이전 사망자 이나 신유보에 출년월일 또는 출년간지 미표시자	해당 등재자의 가족이 '신규등록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중회에서 출년월일 또는 출년간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임
③ 신유보 등재자 중 1981년 이후 사망자 로 신유보에 출년월일 또는 출년간지 미표시자	위와 같음
④ 1981년 이후 출생자 중 현재 사망자로 서 전자족보 미등록자	해당 등재자의 가족이 신규등록신청과 등록변경신청(사망 관련 항목 입력)을 동시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중회에서 생·출년월일 또는 생·출년간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건임

(2) 전자족보 등록 변경

전자족보에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서 결혼·출생·사망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등록사항에 오류(오자·탈자·누락 등)가 있거나, 등록 이후 변경(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 분	등록 변경 신청 절차
① 본인 혼인 시 (배우자 등록)	본인 또는 가족이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배우자 인적사항(한글 이름, 한자 이름, 생 년월일, 성관姓貫)을 추가 입력한다.
② 자녀 출생 시 (자녀 등록)	부父 또는 가족이 ① 신규등록신청 화면에서 출생자 신규등록신청을 완료한 다음, ② 출생자의 부父 전자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자녀 이름 란에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생년을 추가 입력한 다.
③ 본인 사망 시 (사망 관련 항목 등록)	가족이 망인亡人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족보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망인의 사망 관련 항목(출년월일, 묘소 위 치)을 추가 입력한다. ■ 묘소 위치는 본인 특기란에 입력한다.
④ 배우자 사망 시 (사망 관련 항목 등록)	본인 또는 가족이 망인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 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망인의 사망 관련 항목(출년월일, 묘소 위치)을 추가 입력한다. ■ 묘소 위치는 배우자 특기란에 입력한다.
⑤ 등록사항 오류 발견 시 (소 항목에 해당)	본인 또는 가족이 전자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한다.
⑥ 등록사항 사후 변경 시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근무처 등 변경)	본인 또는 가족이 '전자족보 기본사항' 조회 화면에서 '등록변경신청' 메뉴를 클릭 하여 '등록변경신청' 화면에서 변경(변동) 사항을 수정하여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한 다.

나주오씨 선조의 시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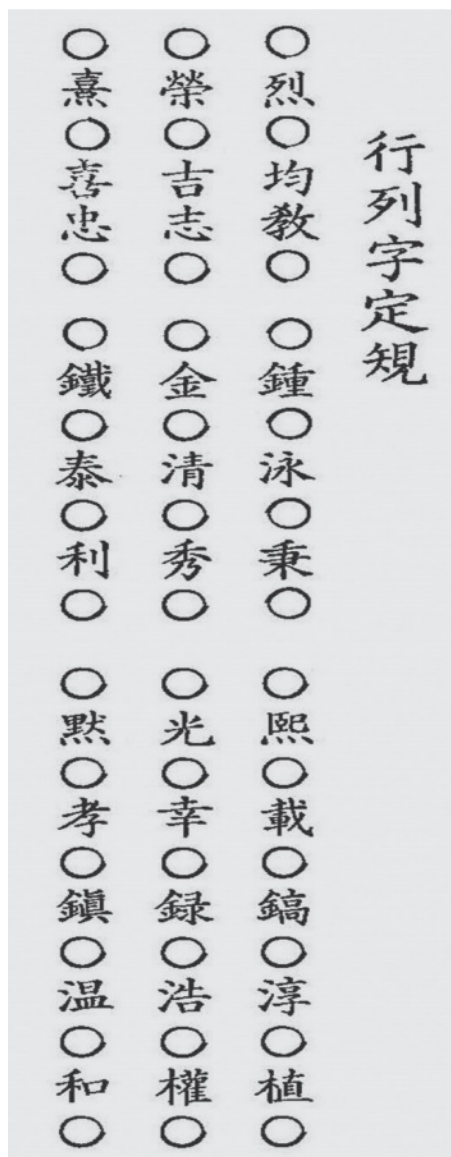
세수 世數	휘 諱	시제일	묘 소	비 고
1세	언 僊	음 3월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평가산	중랑장공
	2세 계진季眞, 4세 신교愼交(府使公), 5세 경친敬親			중랑장공과 같은 날 봉사
1세	제 僰	음 10월 15일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사정공
	2세 경진敬眞(사정공), 3세 귀종貴宗, 4세 효존孝存 5세 익사益師, 6세 말남末男, 7세 승수崇秀, 8세 득린得鄰 9세 준헌俊獻, 10세 석현碩賢, 11세 이후以堧			사정공과 같은 날 봉사
2세	탁진 卓眞	음 10월 15일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백련산	송은당공
	3세 중달仲達, 4세 숙손叔孫, 5세 세상世相, 6세 언국彦國 7세 천수天壽, 8세 익남益男, 9세 운창運昌			송은당공과 같은 날 봉사
3세	영달 穎達	양 11월 첫째 토요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도동 북성산	참의공
	10세 이구以久(道林公), 묘소: 광산구 명도동 장탄산			참의공과 같은 날 봉사
4세	신중 愼中	음 3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와동	금성군
	7세 원諫(庶尹公)			금성군과 같은 날 봉사
4세	신의 愼儀	양 4월 둘째 토요일	전남 영광군 대마면 홍교리 산 11-6	내금위공
	5세 첩諫, 6세 명복命福			내금위공과 같은 날 봉사
5세	자치 自治	음 3월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나성군
	6세 세훈世勳(羅原君), 7세 겸謙(錦陽君) ※ 부조묘 제사 나성군 음 6월 3일, 정부인(여씨) 음 3월 19일			나성군과 같은 날 봉사
5세	자형 自溼	양 10월 첫째 일요일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산 41-4	정언공
	6세 세우世佑 외 15위			정언공과 같은 날 봉사
6세	세익 世翊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상호군공
7세	인 訥	음 3월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칠송공
	8세 언호彦虎, 9세 극의克義, 10세 이건以健, 11세 준표俊標			칠송공과 같은 날 봉사

8세	언후 彦厚	양 4월 둘째 토요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남평공
	9세 감궤, 10세 이관以觀			남평공과 같은 날 봉사
8세	언관 彦寬	음 3월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복룡산	파성공
	9세 준신俊臣, 10세 이항以亢			파성공과 같은 날 봉사
8세	언린 彦麟	음 10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원당산	참판공
	9세 희철希哲, 10세 이경以敬, 11세 문석文錫			참판공과 같은 날 봉사
8세	언표 彦彪	양 11월 첫째 토요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동 곡척등	참봉공
	9세 희일希一, 11세 효석孝錫			참봉공과 같은 날 봉사
8세	언인 彦仁	양 4월 첫째 토요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백양동	송계공
	9세 희중希中, 10세 이해以海			송계공과 같은 날 봉사
8세	언지 彦智	양 4월 첫째 토요일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산 29-7	지봉공
8세	언례 彦禮	음 4월 8일	전북 정읍시 공음면 군유리	난봉공
8세	명한 命漢	음 10월 첫째 일요일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송조당)	참의공(송은당공파)
	9세 계선繼善, 10세 정익廷益, 11세 필신必信			참의공과 같은 날 봉사
9세	희량 希亮	음 3월 20일	전북 고창군 대산면 갈마리 영성산	참의공
	10세 이인以仁, 이신以信, 이공以恭, 이검以儉			참의공과 같은 날 봉사
9세	희길 希吉	음 10월 10일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고례	도암공
	10세 이정以精, 11세 홍석洪錫			도암공과 같은 날 봉사
9세	희도 希道	음 10월 9일	전남 화순군 북면 수리 토지등	명곡공
	10세 이두以斗, 이규以奎			명곡공과 같은 날 봉사
10세	이익 以翼	양 11월 첫째 토요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도동 석문산	석문공
	9세 희유希有 묘소 : 본량 왕동 원당 남산, 11세 봉석朋錫			석문공과 같은 날 봉사

나주오씨 항렬자行列子 정규定規

‘항렬자 정규’에 있어서 임진보(1892년)에는 수(洙, 19世)부터 순(淳, 29世)까지의 항렬자가 정규되어 있고, <신사보>(1941년) 및 <신유보>(1981년)에는 렬(烈, 21世)부터 화(和, 50世)까지의 항렬자가 정규되어 있다.

세수	항렬자
21세	烈(렬)
22세	均(균/교)
23세	鍾(종)
24세	泳(영)
25세	秉(병)
26세	熙(희)
27세	載(재)
28세	鎬(호)
29세	淳(순)
30세	植(식)



결혼을 축하합니다



- 2024 01.20. 오승기(泳) 감사(명곡공문중) 차남 병하 군 결혼
- 2024 03.30. 오재열 종무위원(칠송공문중, 당진) 장남 재경 군 결혼
- 2024.08.24. 오승철(烈) 종무위원(내금위공문중) 장남 현무 군 결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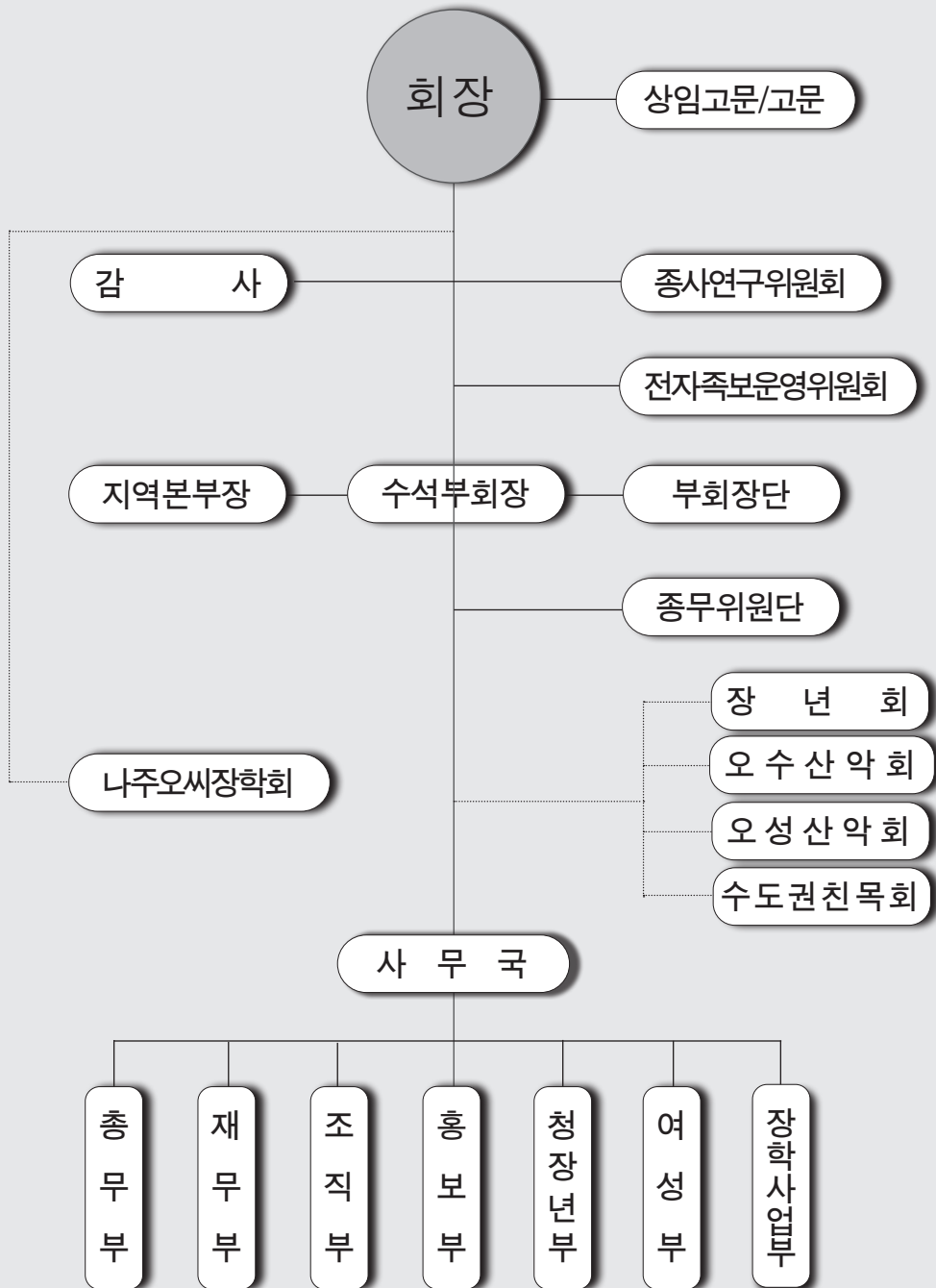


- 2024.03.06. 오춘수 2代 대총회장('37, 금양군문중) 별세
- 2024.04.25. 오종대 종무위원(장탄문중) 모친 별세
- 2024.06.14. 오재교 부회장(송계공문중) 빙모 별세
- 2024.06.23. 오영근(烈) 고문('40, 장탄문중) 별세
- 2024.09.18. 오희근 前부회장('40, 금양군문중) 별세
- 2024.12.30. 오인수 상임고문, 7~8代 대총회장('38, 송은당공문중) 별세
- 2025.03.13. 오종선 부회장('55, 부사공문중)/삼도조합장 별세

나주오씨대종회 역대 회장단 명단

대수	임기	회장	종무원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지역본부장
초대	1999. 12. 05~ 2002. 03. 23	오근택(석문공) (※ 오사진 수석 부회장 직무대행: 2000.9.~2002. 3)	오근창(석문공) 【종회원장】	오억근(부사공) 오근문(송은당공)	
2대	2002. 03. 24~ 2004. 03. 27	오춘수(금양군)	오형희(석문공) 【종무원장】	오무송(금양군) 오토근(장탄)	서울경기 오세교(장탄):1년 오종만(금양군):1년 호 남 오광교(장탄):1년 오병휘(송계공):1년 영 남 오익곤(송은당공)
3대	2004. 03. 28~ 2006. 03. 25	오근동(석문공)	오종만(금양군) 【종무원장】	오무송(금양군) 오토근(장탄)	서울경기 오공수(송은당공) 호 남 오인수(송은당공) 영 남 오해룡(송은당공)
4대	2006. 03. 26~ 2008. 03. 22	오근동(석문공)	오종만(금양군) 【종무원장】	오근신(송은당공) 오동근(금양군)	서울경기 오토근(장탄) 호 남 오인수(송은당공) 영 남 오해룡(송은당공)
5대	2008. 03. 23~ 2010. 03. 27	오완교(칠송공)	오토근(장탄) 【종무원장】	오근신(송은당공) 오동근(금양군)	서울경기 오종만(금양군) 호 남 오인수(송은당공) 영 남 오익곤(송은당공)
6대	2010. 03. 28~ 2012. 03. 25	오완교(칠송공)	오토근(장탄) 【종무원장】	오근신(송은당공) 오동근(금양군)	서울경기 오종만(금양군) 호 남 오인수(송은당공) 영 남 오익곤(송은당공)
7대	2012. 03. 26~ 2014. 03. 25	오인수(송은당공)	오교철(칠송공) (2013. 3~) 【종무원장】	오근신(송은당공) 오동근(금양군)	서울경기 오양근(장탄) 호 남 오은열(석문공) 영 남 오익곤(송은당공)
8대	2014. 03. 26~ 2016. 03. 27	오인수(송은당공)	오교철(칠송공) 【종무원장】	오동근(금양군) 오근신(~2015.3) 오승기(명곡공) (2015.3~)	서울경기 오양근(장탄) 호 남 오은열(석문공) 영 남 오익곤(송은당공)
9대	2016. 03. 28~ 2018. 03. 25	오근성(석문공)	오정균(장탄) 【종무원장】	오동근(금양군) 오승기(명곡공)	서울경기 오양근(장탄) 호 남 오무송(금양군) 영 남 오익곤(송은당공)
10대	2018. 03. 26~ 2022. 04. 24 (코로나 확산 기간 포함)	오근성(석문공)	오정균(장탄) 【종무원장】	오동근(금양군) 오승기(명곡공)	서울경기 오양근(장탄) 호 남 오무송(금양군) 영 남 오익곤(송은당공)
11대	2022.04.25~ 2024.03. 24	오인선(송은당공)	오양근(장탄) 【수석부회장】 오형근(내금위) 【사무국장】	오현교(칠송공) 오승기(명곡공)	서울경기 오대균(명곡공) 호 남 오동근(금양군) 영 남 오동우(송은당공)
12대	2024.03.25~ 2026.03. 24	오종순(사정공)	오양근(장탄) 【수석부회장】 오형근(내금위) 【사무국장】	오현교(칠송공) 오승기(명곡공)	서울경기 오대균(명곡공) 호 남 오동근(금양군) 영 남 오동우(송은당공)

나주오씨대종회 조직기구표



* [註] : 2024.03.24. 개정된 대종회 회칙에 따름.

대중회 공지사항

“본관本貫을 나주羅州로 통일합시다!”

현재 나주오씨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본관이 ‘나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금성錦城’으로 되어 있는 종친도 있습니다. 이는 나주의 옛 이름이 금성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따라서 나주오씨대중회에서는 본관을 ‘나주’로 통일(2003년)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본관 ‘금성’을 ‘나주’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관 정정 구비서류

1. 기본증명서 1통 (前 호적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前 호적등본)
3. 제적등본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동의 및 확인서(※자녀들이 작성) - 동의자(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첨부
7. 인우보증서 (※본관이 羅州인 종친 2인 작성)
- 보증인의 ‘기본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첨부
8. 본관확인서 1통 (나주오씨대중회 발급)
9. 나주오씨족보 사본 1통(족보 표지, 본인 등재면, 발행사항 기재면 발췌)
- 나주오씨대중회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본관 정정 절차

- 나주오씨대중보 2019년/제20호, 131~139쪽 참조.

□ 문의처

- ☛ 대중회사무실 전화 02-2275-5574, 팩스 02-563-5574
- ☛ 호남지역본부 사무실 전화 062-375-5575
- ☛ 서울지역(오맹렬 법무사) 휴대폰 010-5229-9139
- ☛ 호남지역(오영란 법무사) 사무실 062-222-1472-4. 휴대폰 010-3610-3160

〈나주(금성)오씨대종보〉 제26호 원고모집 안내

“대종회에서는 2026년 3월 정기총회 시 배포할《나주(금성)오씨대종보》 제26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오니 종원 여러분의 많은 투고바랍니다.”

《나주(금성)오씨대종보》는 2000년 5월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2025년 3월 22일 통권 제25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대종보大宗報는 종원 간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따뜻한 만남의 장입니다. 종친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조상과 자손의 역사를 잇기 위하여 나주오문羅州吳門의 문화, 인물 소개 및 유적지 탐방, 각종 제례행사 등의 내용을 담아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알찬 대종보가 발행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원고 내용

- ① 선조의 위업을 소개하는 글
- ② 씨족사氏族史에 관한 연구 논문
- ③ 종친 간 친목 증진을 도모하는 글
- ④ 문중의 자랑스러운 인물을 소개하는 글
(충절·효열·예절·선행·학문 연구 등에 빛을 남긴 인물 소개. 특히 나주오문을 빛낸 청년층·장년층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적·재주·숨씨·소질 등)
- ⑤ 나주오문 집성촌集姓村을 소개하는 글
- ⑥ 각종 사적事蹟·사우·재실·비·묘 등을 소개하는 글
- ⑦ 각 문중의 위선사업爲先事業 추진 내용을 소개하는 글
- ⑧ 지역 종친회, 문중별 종친회의, 각종 모임 및 친목행사와 시제時祭 행사 소개글
- ⑨ 사·수필·답사기(기행문), 기타 종원 모두에게 유익한 상식·미담 등
(단,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글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마감일 및 접수처

- ➡ 원고 마감일: 2026년 1월 31일까지
- ➡ 원고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608호 나주오씨대종회 (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홈페이지: www.najuoh.or.kr | 전화: 02-2275-5574, 팩스: 02-563-5574
홍보부회장 오종문 전화: 010-3214-7068, 전자우편: ibook99@naver.com

살다보면
가장 좋은 사랑은
친절한 사랑보다
따뜻한 사랑보다
내 곁에 오래
있어 주는 사랑입니다.



2025년도 정기총회 회의자료

□ 의안 보고 및 인준

- 2024 회기 감사보고
- 제1호 의안: 예산·결산 등에 관한 건
 1. 2024 회기 사업집행 보고
 2. 2024 회기 결산
 3. 2025 회기 사업계획
 4. 2025 회기 예산안

[첨부자료]

1. 2024 회기 연회비 및 협찬금 입금 내역
 2. 전자족보 성금·장학기금 후원 내역
- 〈나주오씨장학회〉 창립 보고

□ 공지 및 협조요청 사항

1. 1세조 중량장공(諱愷) 시제 참제 [(2025.04.6.(일) 음 3.9)]
2. 전자족보 신규등록 추진(*1981년 이후 출생자 대상)

나주오씨대종회

2024 회기 감사보고

1. 감사일시 : (서울) 2025. 2. 5. (광주) 2025. 2. 8.
2. 감사장소 : (서울) 대종회 사무실/ (광주) 호남지역본부 사무실
3. 감사 기준일 : 2024. 1. 1~2024. 12. 31

나주오씨대종회 회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종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종무사항

대종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문건(보첩, 회원명부, 대종보, 각종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잘 관리 정리 보관하고 있으며 특별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2) 회계사항

- 2023년도 이월금 170,817,508원과 당기 회비 및 협찬금 수입 등 52,315,996원을 포함한 총수입액은 223,133,504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 총지출액은 39,310,838원이며, 총수입액에서 총지출액을 차감한 후 183,822,666원이 2025년도 회기로 이월되었습니다.
- 차기이월금 183,822,666원 중 160,265,297원은 서울 소재 DB저축은행과 광주 소재 삼도농협에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 중이고, 나머지 23,557,369원은 서울본부(20,105,298원)와 호남본부(3,452,071원)에서 각각 현·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항목별 지출의 적정 여부를 감사한 결과 적법하게 지출되었으며 회계처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2025년 2월 23일

나주오씨대종회 감사 오 현 교

감사 오 승 기



1. 2024 회기 사업집행 보고

사 업 명	추진결과	비고
1. 총무회의 개최	-일자: 2024. 02. 25.(일) -장소: 대전시 “孝문화마을”	2023 회기 결산 및 2024 회기사업계획 등 심의·의결
2. 정기총회 개최	-일자: 2024. 03. 24.(일) -장소: 대전시 “孝문화마을” (대중회 주관)	2023 회기 결산 및 2024 회기사업계획 등 인준
3. 임원회의 개최	-서울경기본부 : 2024. 01. 20. -호남지역본부 : 2024. 01. 22. 2024. 11.12.	2024년도 총무회의 개최 준비사항
4. 3본부 실무책임자 간담회	-일자: 2024. 08. 17.(토) -장소: 호남지역본부 사무실	대중회 중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기타 협의 사항
5. 임원·총무위원 단합대회 및 송년모임	-서울경기본부: 2024. 10. 12. 2024. 12. 21. -호남지역본부: 2024. 12. 13.	
6. 제24호 대중보 발간	-2024. 03. 24. 정기총회일 발간 -제작·배포 수량: 800부	
7. 도선산 시제 참제	-2024. 04. 17.(음 3.9) -중랑장공(諱偃), 예빈시정공(諱季眞) 부사공(諱愼交), 송은공(諱敬親)	
8. 원당 시제 참제	-2024. 04. 24.(음3.16) 원당산 나성군(諱自治), 나원군(諱世勳) 금양군(諱謙)	
9. 금양군 정향제 참제	-2024. 10. 11.(음 9.9) 광산사	
10. 나성군 정향제 참제	-2024. 10. 17.(음 9.15) 원당영각	
11. 대중회 홈페이지 및 〈전자족보〉시스템 유지관리	-신유보(자손록) 입력작업 추진 -2024년 2,700명 입력 완료	

사 업 명	추진결과	비고
12. 대중회 공식 블로그 운영(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najuohorkr -나주오씨 뿌리에 관한 정보 제공 -대중회 연혁, 행사소식 등 각종 정보 제공	
13. 정기예금 재예치	1) 서울 DB저축은행 재예치 -원금 50,776,233원 (이자 발생액 포함) -처리일: 2024. 07. 04. 12개월 2) 광주 삼도농협 재예치 -원금 42,274,841원 -처리일: 2024. 07. 25. 12개월 3) 광주 삼도농협 재예치 -원금 67,214,223원 -처리일: 2024. 04. 23. 12개월	* 2023년 나주 임야 매각대금(6,500만원)
14. 고창문화원 2024 인문학 발표회	주제: 도암 오희길의 학문과 역사정신 -발표자: 오경후(동국대 교수) -2024. 09. 27. 오후 1시 30분 -고창문화원 3층 다목적체험관	발표자료는 제25호 대중보에 게재

2. 2024 회기 결산(총괄)

(기간: 2024. 01. 01~2024. 12. 31/ 단위: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서울경기	호남	계		서울경기	호남	계
2023년 이월금	164,893,958	5,923,550	170,817,508	정기총회비	3,420,570	1,949,490	5,370,060
회비·협찬금	12,800,000	10,490,000	23,290,000	총무회의비	2,077,550	2,233,000	4,310,550
정기예금 이자	5,249,215		5,249,215	임원회의 등	1,065,970		1,065,970
보통예금 이자	8,170	8,611	16,781	중보발간비	6,000,000		6,000,000
2023 공동경비 정산(호남에서)	4,600,000		4,600,000	사무국장 활동비	3,000,000	3,000,000	6,000,000
전자작보 성금	4,050,000		4,050,000	2023 공동경비 정산(서울본부로)		4,600,000	4,600,000
장학기금 후원금	11,000,000		11,000,000	사무실 관리비	2,594,540	1,080,000	3,674,540
기타 수입	110,000		110,000	사무실 유지비	2,822,448		2,822,448
정기예금 인출금		4,000,000	4,000,000	통신비(우편, 전화)	503,220	100,000	603,220
				경조사비	283,000		283,000
				재산세	564,180		564,180
				소득세, 지급수수료	9,270	8,000	17,270
				양도소득세 등 (나주임야 매각)		3,999,600	3,999,600
2024년 수입 계	37,817,385	14,498,611	52,315,996	2024년 지출 계	22,340,748	16,970,090	39,310,838
				차기이월금	180,370,595	3,452,071	183,822,666
				(정기예금)	(160,265,297)	(0)	(160,265,297)
				(현예금)	(20,105,298)	(3,452,071)	(23,557,369)
합 계	202,711,343	20,422,161	223,133,504	합 계	202,711,343	20,422,161	223,133,504

* 차기이월금(총괄) 183,822,666원에는 정기예금 160,265,297원이 포함되었음.

- ▶ (정기예금내역: <서울 소재> DB저축은행 50,776,233원
<광주 소재> 삼도농협 109,489,064원
[42,274,841원 + 67,214,223원(나주임야 매각대금)])

□대중회 부동산 소유 현황 (2024. 12. 31. 현재)

부동산 구분	소재지	건물용도	건물면적	취득가	취득일자	소유권이전 등기
오피스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	대중회 사무실 (테헤란오피스 빌딩 608호)	전유면적 24.12㎡ (7.3평)	취득가액 8,000만원 이전비용 등 541만원 합계 8,541만원	2000. 07. 10.	2000.07.22.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서울경기지역본부 2024 회기 결산

(기간: 2024. 01. 01~2024. 12. 31. 단위: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2023년 이월금	164,893,958	정기총회비	3,420,570
회비·협찬금	12,800,000	총무회의비	2,077,550
정기예금 이자	5,249,215	임원회의비 등	1,065,970
보통예금 이자	8,170	종보발간비	6,000,000
2023년 공동경비 정산(호남)	4,600,000	사무국장 활동비	3,000,000
전자축보 성금	4,050,000	사무실관리비	2,594,540
장학기금 후원금	11,000,000	사무실유지비	2,822,448
기타 수입	110,000	통신비(우편 전화)	503,220
		경조사비	283,000
		재산세	564,180
		소득세, 지급수수료	9,270
2024년 수입 계	37,817,385	2024년 지출 계	22,340,748
		차기이월금	180,370,595
		(정기예금)	(160,265,297)
		(현 예금)	(20,105,298)
합 계	202,711,343	합 계	202,711,343

* 차기이월금 180,370,595원에는 정기예금 160,265,297원이 포함되었음.

▶(정기예금내역: <서울 소재> DB저축은행 50,776,233원
+ <광주 소재> 삼도농협 109,489,064원
[42,274,841원 + 67,214,223원(나주임야 매각대금)])

호남지역본부 2024 회기 결산

(기간: 2024. 01. 01~2024. 12. 31. 단위: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2023년 이월금	5,923,550	정기총회비	1,949,490
회비·협찬금	10,490,000	종무회의비	2,233,000
보통예금 이자	8,611	임원회의비	-
정기예금 인출금	4,000,000	사무국장 활동비	3,000,000
		사무실관리비	1,080,000
		2023년 공동경비 정산 (서울본부로 이체)	4,600,000
		양도소득세 등(나주임야)	3,999,600
		통신비(우편, 전화)	100,000
		소득세·지급수수료	8,000
2024년 수입 계	14,498,611	2024년 지출 계	16,970,090
		차기 이월금	3,452,071
		(정기예금)	(0)
		(현 예금)	(3,452,071)
합 계	20,422,161	합 계	20,422,161

3. 2025 회기 사업계획

사 업 명	추진 계획	비 고
1. 도선산 묘역 정비·정화 방안 강구	-2025년 도선산 시제일(4.6/음3.9)에 시제 봉행 후 현지에서 임원회의 개최하여 도선산 묘역 정비·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 계속 진행	
2. 대중회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대중회 홈페이지 재구축(리뉴얼) 오픈에 맞춰, 오넷회원 증원 캠페인 전개→전 종원의 연락망 구축→회원 상호간 연락 유지 및 소통 강화	웹메일, 문자, 카톡, 우편발송 연락망 구축
3. <전자족보> 시스템의 확충 및 조기 정착	1) 신유보 자손록(2~5권 2,800페이지) 전산입력 작업 계속 추진 -전자족보 이용의 활성화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중회 임원·종무위원들이 ‘직계선조보기’, ‘동고 조팔촌보기’가 가능하도록 신유보 자손록 입력작업 우선 추진하고, -문중별 전자족보운영위원 구성은 추후 진행 예정임 2) 전자족보시스템 일부 보완 의뢰 3) 전자족보시스템 추가 개발 의뢰	
4. 장학기금 조성사업 추진	2024년 종무회의 종료 후 나주오씨장학회 창립 총회 개최	장학기금 모금 예금계좌 개설 예정
5. 임원회의 개최	2025년 1월 중	지역본부별 개최
6. 종무회의 개최	2025.02.23. 대전시 중구 “孝문화마을”	2025.01.18. 3본부 실무책임자 간담회에서 합의
7. 정기총회 개최	2025.03.22. 대전시 중구 “孝문화마을”	“
8. 제25호 대중보 발간	2025. 03. 22. 정기총회 시 배포	제작수량 : 800부
9. 2025년도 대중상 표창 및 장학금 수여	2025. 03. 22. 2025년도 정기총회 시 실시	
10. 정기에금 재예치	1) 서울 DB저축은행: 원금 50,776,233원 + 이자 (만기) 2025.07.24. (12개월) 2) 광주 삼도농협: 원금 42,274,841원 + 이자 (만기) 2025.07.25. (12개월) 3) 광주 삼도농협: 원금 67,214,223원 + 이자 (만기) 2025.04.23. (12개월)	* 2024.07.25. 400만원 인출(양도소득세 등 납부) * 2023년 나주임야 매각 대금 (6,500만원)

4. 2025 회기 예산안

(서울경기지역본부 및 호남지역본부 총괄)

(기간: 2025. 01. 01~2025. 12. 31. 단위: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회비 및 협찬금	23,000,000	정기총회비	3,000,000
광고 협찬금	2,000,000	종무회의비	3,000,000
정기예금이자/ 기타 수입	3,000,000	임원회의비	1,000,000
전자족보 성금 후원금	5,000,000	종사연구회의비	1,000,000
		종보발간비	6,000,000
		장학금/총회지원금	-
		사무국장 활동비	6,000,000
		사무실 유지관리비	3,000,00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500,000
		전자족보 추가 개발비	5,000,000
		통신비	500,000
		제세공과금	1,000,000
		경조사비	1,000,000
		예비비	2,000,000
합 계	33,000,000	합 계	33,000,000

[첨부자료 1]

2024 회기 회비·협찬금 입금 내역

(기간: 2024. 01. 01~2024. 12. 31)

□ 서울·경기지역본부 : 12,800,000원

◆ 집행부 임원

(단위: 원)

직책	성명	문종	금액	직책	성명	문종	금액
수석부회장	오양근	장탄	500,000	서울경기본부장	오대균	명곡공	300,000
감사	오승기(泳)	명곡공	200,000	영남본부장	오동우(根)	송은당(23)	200,000
사무국장	오형근	내금위공	300,000	재무부회장	오종선	장탄	200,000
조직부회장	오건열	석문공	200,000	홍보부회장	오종문	참판공	300,000
여성부장	오정숙(敎)	장탄	100,000	부회장	오기수(三善)	금양군(23,24)	500,000
부회장	오맹근	내금위공	200,000		오대균(洙)	금양군	200,000
	오신근	내금위공	200,000		오근태	내금위공	200,000
	오경근	장탄	200,000		오근국	송계공	200,000
	오채근	내금위공	300,000		오현식(根)	장탄	200,000
	오진열	명곡공	200,000		오근용	송계공(23, 24)	400,000
	오정렬	장탄	200,000		오동렬	장탄	200,000
	오전열	석문공	200,000		오상기(烈)	참의공	500,000
	오초섭(烈)	장탄	200,000		오경남(烈)	부사공	200,000
	오재열	석문공	200,000		오맹렬	장탄	200,000
	오창교	장탄(23)	200,000		오양균	명곡공	200,000
	오종석	장탄	200,000		오재교	송계공	500,000
				소계	(32명)		8,100,000

◆ 종무위원

종무위원	오창근	석문공	100,000	종무위원	오동원(根)	송은당(영남)	100,000
	오순열	장탄	100,000		오민열	장탄	100,000
	오점석(女, 烈)	명곡공	100,000		오재열	칠송공	100,000
	오형교	장탄	100,000		오승철(烈)	내금위공(23,24)	500,000
	오봉균	송계송	200,000		오송균	칠송공	100,000
	오봉균	장탄	100,000		오연균	명곡공	100,000
	오종대(62)	장탄	100,000		오종대(65)	장탄	100,000
				소계	(14명)		1,900,000

◆ 고문·기타

상임고문	오근성	석문공	2,000,000	문종	영남총친회	송은당	300,000
고문	오기선	금양군	100,000	고문	오광구(根)	석문공	200,000
고문	오교한	칠송공	200,000	소계	(5명)		2,800,000

□ 호남지역본부 : 10,490,000원

◆ 집행부 임원

(단위: 원)

직 책	성 명	문 중	금 액	직 책	성 명	문 중	금 액
회장	오종순	사정공	2,300,000	호남본부장	오동근	금양군	400,000
종사연구위원장	오기주(根)	송계공	200,000	감사	오현교	칠송공	500,000
총무부회장	오도근	석문공	500,000	재무부회장	오순교	장탄	200,000
여성부회장	오명숙(根)	송계공	200,000	부회장	오영택(洙)	정언공	100,000
부회장	오길빈(洙)	석문공	250,000	부회장	오성수	금양군	200,000
	오곤수	석문공	200,000		오현상(根)	송은당공	50,000
	오남근	장탄	50,000		오오근	내금위공	500,000
	오동석(根)	장탄	300,000		오안모(根)	금양군	100,000
	오은열	석문공	300,000		오창희(烈)	석문공	250,000
	오필렬	칠송공	230,000		오병현(烈)	석문공	300,000
	오천년(敎)	칠송공	250,000		오정균	장탄	200,000
	오병균	칠송공	200,000		오낙균	명곡공	300,000
	오종선	부사공	250,000		오승중	참판공	200,000
				소 계	(26명)		8,530,000

◆ 종무위원

종무위원	오금수	송은당공	50,000	종무위원	오근우	석문공	100,000
	오동현(根)	석문공	150,000		오형근	상호군공	100,000
	오권열	명곡공	100,000		오재형(烈)	장탄	150,000
	오익열	석문공	100,000		오영란(烈)	석문공	100,000
	오경교	참판공	30,000		오찬교	장탄	100,000
	오면기(敎)	부사공	80,000		오종희	부사공	200,000
	오종뢰	장탄	200,000	소 계	(13명)		1,460,000

◆ 고문·기타

상임고문	오인선	송은당공	250,000	고문	오행근	석문공	100,000
종원	오용근	석문공	20,000	종원	오정렬	송은당공	80,000
	오승기(敎)	부사공(가삼)	50,000	소 계	(5명)		500,000

전자족보 성금/장학기금 후원 내역

전자족보성금 후원내역

[2023년]

입금일자	성 명	직책	문종	후원금액	입금일자	성명	직책	문종	후원금액
3.23	오근성	상임고문	석문공	2,000,000	11.7	오동근	호남본부장	금양군	1,000,000
7.17	오동렬	부회장	장탄	1,000,000	11.8	오종문	홍보부회장	참판공	100,000
7.23	오형근	사무국장	내금위공	2,000,000	11.15	오양근	수석부회장	장탄	300,000
8.28	오형근	사무국장	내금위공	1,000,000	11.15	오종선	재무부회장	장탄	100,000
8.30	오흥수	총무위원	금양군	100,000	11.20	오성찬(烈)	종원	내금위공	100,000
9.23	오건열	조직부회장	석문공	100,000	11.30	오대균	서울경기본부장	명곡공	300,000
9.23	오전열	부회장	석문공	100,000	12.14	오승기(泳)	감사	명곡공	300,000
10.26	오동열	종원	내금위공	500,000	12.15	오도근	총무부회장	석문공	200,000
10.27	오화중(烈)	종원	내금위공	300,000	12.16	오근태	부회장	내금위공	100,000
11.3	오채근	부회장	내금위공	300,000	합계	19건			9,900,000

[2024년]

입금일자	성 명	직책	문종	후원금액	입금일자	성 명	직책	문종	후원금액
2.13	오양근	수석부회장	장탄	200,000	10.14	오경근	부회장	장탄	200,000
3.13	오맹근	부회장	내금위공	150,000	11.14	오기수(三善)	부회장	금양군	1,000,000
3.14	오승철(烈)	총무위원	내금위공	500,000	12.3	오형근	사무국장	내금위공	1,000,000
8.12	오형근	사무국장	내금위공	1,000,000	합계	7건			4,050,000

[2025년]

입금일자	성 명	직책	문종	후원금액	입금일자	성 명	직책	문종	후원금액
1.11	오동렬	부회장	장탄	1,000,000	2.13	오양근	수석부회장	장탄	500,000
1.11	오양균	부회장	명곡공	100,000	3.9	오남렬	부회장	장탄	300,000
2.11	오근성	상임고문	석문공	1,000,000	합계	5건			2,900,000

장학기금 후원 내역

[2024년]

입금일자	성 명	직책	문종	후원금액	비고
7.22	오대균	서울경기본부회장	명곡공	10,000,000	
12.03	오형근	사무국장	내금위공	1,000,000	
합계	2건			11,000,000	

[2025년]

2.11	오근성	상임고문	석문공	1,000,000	
합 계	1건			1,000,000	

나주오씨장학회 창립 보고

- 창립총회 일시: 2025. 02. 23. 오후 2시
- 창립총회 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孝문화마을>
- 창립발기인: 62명
- 창립발기인 대표: 오종순 대총회장

1. 나주오씨장학회 창립 취지문
2. 나주오씨장학회 규정 제정
3. 임원 선출 및 운영위원회 구성
4. 장학사업 요강要綱
5. 「장학기금 후원신청서」 서식

나주오씨장학회 창립 취지문

나주오씨대중회는 1999년 12월 5일 창립하여 25년이 지났습니다. “송조, 친목, 성실, 봉사”를 대중회 중훈으로 삼아, 종친 간의 친목과 대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으며, 조상에 대한 경조심과 종원에 대한 애족심으로 우리 대중회는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새로운 인류 역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나 사회가 지닌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중회는 그동안 장학회를 조직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9년부터 매년 정기총회 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학금 지급실적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제 종친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 장학회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장학회의 창립은 대중회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나주오문에서 21세기 민족의 미래를 담당하고 주역이 될 인재 양성의 힘찬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앞으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더욱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우리 나주오문의 인재들을 최대한 지원하여 그들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국가를 위한 훌륭한 동량으로 쓰이도록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 나주오문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물론, 대중회의 위상과 종친들 간의 유대감이 더욱 고양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친들이 손쉽게 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미흡한 기부문화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종친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이와 같은 본 장학회의 취지를 이해 찬동하시어 장학사업이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건실하고도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 2. 23.

나주오씨장학회 창립발기인 대표 오 종 순

나주오씨장학회 규정

제정 2025. 02.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나주오씨대중회 회칙(제3조의2)의 후손을 위한 육성사업, 장학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조의 전통과 유덕을 현양하고 이와 관련된 숭조사업과 후손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나주오씨장학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소재 나주오씨대중회 사무실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장학회 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본회가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나주오씨’인 학생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 ①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2명
 4. 감사 2명
 5. 사무국장 1명
 6. 간사 1명

- ② 특별임원으로 약간 명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임원의 겸직 등)

- ① 회장·부회장·감사는 대중회 회장·수석부회장·감사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 ② 사무국장·간사는 대중회 사무국장·장학사업부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 ③ 운영위원은 회장이 각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5명, 호남지역본부에서 5명, 영남지역본부에서 2명을 위촉하되, 지역본부별 정수에는 해당 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대중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또한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운영위원은 제22조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 전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⑤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회무를 관장한다.
- ⑥ 간사는 본회 기금모금 업무를 포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임원의 보수 제한)

본회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무에 봉사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장 재정

제11조(재원)

- ① 본회 장학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대중회·파종회·소문중·산하단체 등의 후원금
 2. 개별 종원의 후원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기타 사업 수입금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후원금 등에 관한 후원자별 후원금납부내역(당해년도분, 누계분)은 매년 나주오씨대중회가 발행하는 「나주오씨대중보」에 정기적으로 게재한다.

③ 장학기금은 나주오씨대중회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장학기금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재산관리)

① 본회 소유 부동산은 관할 구청에 등록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및 단체 명칭(나주오씨장학회)으로 등기한다.

② 본회의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에 예치 시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고유번호증에 따라 단체 명칭(나주오씨장학회)으로 예치한다.

제1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장학금 수혜자 선발

제14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나주오씨 후예로서 대학교(전문대 포함)의 재학생(합격자 포함)으로 한다.

제15조(장학금 종류)

본회가 지급하는 장학금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 장학금
2. 특기 장학금
3. 특수 장학금

제16조(장학금 수혜 자격)

본회의 장학금 수혜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성적우수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대학교 2~4년생의 경우에는 지급 연도의 前학기 B학점 이상)
2. 특기 장학금: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기능경기대회(체육, 예능, 과학, 기술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금·은·동메달 수상)한 자
3. 특수 장학금: 생활보호 대상자이거나,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직계존속이 없는 자로서, 제1호에 준하는 정도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제17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운영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대중회 임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지급을 신청한 자 중에서 당해 연도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18조(지급금액)

매년 장학금 지급총액 및 장학생별 지급 금액은 장학기금의 재원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지급방법)

- ① 장학금은 나주오씨대중회 총회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장학금 수령 대상자는 장학금 수여식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20조(장학금 지급 신청)

장학금 지급 신청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지급신청서(소정 양식, 본인사진 부착, 추천임원 2명 서명날인) 1통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1통
3. 재학증명서 1통
4. 합격증명서면 1통(대학 신입생에 한함)
5. 성적증명서 1통
6. 수상증명서면 1통(특기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7.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1통(특수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8. 장애인증명서 1통(특수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예산·결산,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장학증서 교부 및 문서 보존

제24조(장학증서 교부)

본회가 제4장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정의 「장학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제25조(장학금 지급대장)

본회가 제4장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장학금지급대장」에 등재하여 기록을 영구보존한다.

제26조(회의록)

본회 각종 회의의 회의록은 회장, 사무국장,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 영구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장학회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나주오씨대종회 종무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귀속)

- ① 장학재단 법인설립을 위하여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잔여재산은 그 장학재단법인에 귀속된다.
-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잔여재산은 나주오씨대종회에 귀속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2월 23일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 일에 제정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17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임원 선출 및 운영위원회 구성

■ 임원 선출

직 책	성 명	비 고
회 장	오종순	대종회 '회장' 당연직
부회장	오양근	대종회 '수석부회장' 당연직
감 사(2명)	오현교, 오승기	대종회 '감사' 당연직
사무국장	오형근	대종회 '사무국장' 당연직
간 사	오종선	대종회 '장학사업부장' 당연직

■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나주오씨장학회규정 제21조에 따라 회장·부회장·운영위원(12명)·사무국장·간사로 구성하고, 운영위원(12명)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

직 책	성 명	비 고
운영위원 (12명)	● 서울경기지역본부 오대균, 오동렬, 오재열, 오재교, 오종문 ● 호남지역본부 오동근, 오기주, 오성수, 오도근, 오순교 ● 영남지역본부 오동우, 오민곤	대종회 회장이 각 지역본부장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 12명을 위촉함. -서울경기지역본부 5명 -호남지역본부 5명 -영남지역본부 2명 *해당 지역본부장 포함

장학사업 요강要綱

I. 장학사업 개요

1. 목적

나주오씨대종회 회칙(제3조의2)의 후손을 위한 육영사업·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선조의 전통과 유덕을 현양하고 이와 관련된 승조사업과 후손의 인재양성에 목적을 둠.

▶나주오씨장학회규정 제1조 참조

2. 사업

가. 장학금 지급

나. 위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주오씨장학회규정 제4조 참조

3. 장학기금 자원

가. 대종회·파종회·소문중·산하단체 등의 후원금

나. 개별 종친의 후원금

다. 기금의 운영수익금

라. 기타 사업 수입금

▶나주오씨장학회규정 제11조 제1항 참조

4. 장학금 수혜 대상자

나주오씨 후예로서 대학교(전문대 포함)의 재학생(합격자 포함)

▶나주오씨장학회규정 제5조 제2항, 제14조 참조

5.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자 자격

가. 성적우수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대학교 2~4년생의 경우에는 지급년도의 前학기 B학점 이상)
나. 특기장학금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기능경기대회(체육, 예능, 과학, 기술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금·은·동메달 수상)한 자
다. 특수 장학금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본인 또는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직계존속이 없는 자로서, 가목에 준하는 정도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나주오씨장학회규정 제15조, 제16조 참조

II. ‘나주오씨장학회’ 설립·운영

1. ‘나주오씨장학회’ 설립

1) 장학재단 법인설립허가 이전에는 비법인 형태로 ‘나주오씨장학회’를 설립·운영하기로 한다.

2) 향후 장학기금 조성액이 장학재단 법인설립허가기준(기본재산 5억원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관 관청에 장학재단 법인설립허가신청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2.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 개최

따라서, '나주오씨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2025년 2월 23일 대총회 종무회의일에 종무회의의 직 후 그 종무회의의 장소에서 '나주오씨장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나주오씨장학회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에 따른 임원 선출과 운영위원회 구성을 한다.

▶나주오씨장학회규정 제6조~제10조, 제21조~제23조 참조

3.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및 은행예금계좌 개설

관할 세무서에 「나주오씨장학회규정」을 첨부하여 '나주오씨장학회'의 고유번호를 부여 신청한 다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나주오씨장학회' 단체명의로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한다.

▶나주오씨장학회규정 제12조 제2항 참조

4. 구분 회계

'나주오씨장학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장학기금)은 '나주오씨대총회'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회계 처리한다.

▶나주오씨장학회규정 제11조 제3항 참조

5. 장학재단 법인설립 시 장학회 잔여재산의 처리

장학재단 법인설립 시에는 장학회 규정에 따라 '나주오씨장학회'를 해산하고, '나주오씨장학회'의 잔여재산은 그 장학재단법인에 귀속시킨다.

▶나주오씨장학회규정 제27조, 제28조 참조

6. 지정기부단체 지정 신청

장학재단 법인설립 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단체' 지정을 신청한다.

Ⅲ. 장학기금(후원금) 모금 사업

1. 대총회는 파종회, 소문중, 산하단체 등이 장학기금 후원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긴밀히 협조한다.
2. 대총회 임원 및 개별 종원을 대상으로 <1인 1계좌 갖기운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연간 권장기준 / 1계좌 1만원 기준)

- 임 원: 5계좌 이상
- 종무위원: 3계좌 이상
- 일반종원: 1계좌 이상

3. 매월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 신청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장학기금이 모금되도록 기부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4. 대총회 각종 행사 시(총회, 종무회의, 단합대회, 동호회 행사 등) 장학기금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 대총회에서 매년 3월 정기총회 시 발행하는 「나주오씨대총보(회보)」에 실리는 '후원금 납부자명단'에 당해 연도 후원금과 누계 후원금을 게재한다.

[첨부서식] 「장학기금 후원신청서」 서식

장학기금 후원신청서

본인은 「나주오씨장학회」 장학기금 모금운동에 동참하여 나주오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우리 종원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나주오씨장학회에 아래와 같이 장학기금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 후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 후원신청 (후원 참여 동의서)

후 원 방 법	정기후원 (CMS 자동이체)
후 원 금 액	매월 후원 약정액 / □ 1,000원 □ 2,000원 □ 3,000원 □ 4,000원 □ 5000원 □ 기타 (원)
후 원 기 간	□ 1년 □ 2년 □ 3년 □ 본인이 해지 요청 시까지
이체 예정일	매월 / □ 10일 □ 20일 □ 25일 ※미결제 시 해당 출금일 이후 재출금됩니다.
출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나주오씨장학회 고지사항 전달
- 수 집 항 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를 종료일(해지일)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정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 안함

[출금이체 동의 여부 및 해지 사실 통지 안내]

-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등의 여부 및 해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약정한 후원기간 동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나주오씨장학회의 후원자가 되고자 위와 같이 확인하고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의 의

신 청 인(후원자/예금주):

(서명 또는 인장날인)

나주오씨장학회 귀중

※ [자동이체 해지] 자동이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출금계좌에서 추후 미결제금액이 출금되므로, 반드시 해당 출금일자 30일 전까지 자동이체 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나주오씨장학회 Tel. 02-2275-5574 / Fax. 02-563-557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608호(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나주오씨대종회 회칙

제정	1999. 12. 05	일부개정	2012. 03. 25
일부개정	2000. 09. 24	일부개정	2015. 03. 29
일부개정	2002. 02. 17	일부개정	2017. 03. 26
일부개정	2002. 09. 08	일부개정	2018. 03. 25
일부개정	2003. 02. 09	일부개정	2019. 03. 24
일부개정	2006. 03. 26	일부개정	2024. 03. 24
일부개정	2009. 03. 2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나주오씨대종회羅州吳氏大宗會’라 칭한다.

제2조 (회원)

본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상 본관本貫이 나주羅州 또는 금성錦城으로 되어있는 오씨 후손으로서 국내외 거주하는 성년자로 구성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나주(금성)오씨 종원의 구심체로서 선조의 전통과 유덕을 계승하고, 이와 관련된 숭조사업을 수행하며, 종원 상호 간의 화목 단결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종문의 발전에 힘쓰고, 육영정신으로 후손의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2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종조(휘 숙규) 이하 묘소 실전 선조의 단소壇所조성과 제단·비 설치 및 보존 관리
2. 종조 이하 묘소 실전 선조 및 기세조의 향사 봉행 또는 지원
3. 선조의 유덕 현양 및 선조의 유적·유물의 보존 관리
4. 족보·문집·지장 등 문헌자료 수집 및 문헌 연구
5. 족보 편찬, 종보·간행물 발간, 전자족보·홈페이지 운영
6. 후손을 위한 육영사업, 장학사업 및 경로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및 지역본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편의에 따라 각 지역에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서울·경기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등).

제2장 임원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과 특별임원을 둔다.

1. 임원

- 가. 상임고문 약간 명
- 나. 회장 1인
- 다. 수석부회장 1인
- 라. 서울·경기지역본부장, 호남지역본부장, 영남지역본부장(당연직 부회장) 각 1인
- 마. 부회장 20인 내외
- 바. 감사 2인
- 사. 사무국장(당연직 부회장) 1인
- 아. 총무·재무·조직·홍보·청장년·여성·장학사업 등 각 부장 약간 명

2. 특별임원

- 가. 고문 약간 명
- 나. 종사연구위원장 1인
- 다. 종무위원 100인 내외(당연직 제외)

제6조 (임원 선출)

- ①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감사는 종무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부회장은 소문중 및 거주 지역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으로 안배한다.
- ② 상임고문은 전임 회장을 역임한 분 중에서 종무회의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각 지역의 본부장과 사무국장은 수석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각 부의 부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특별임원 중 고문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하고, 종무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종사연구위원장은 「나주오씨종사연구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선출·임명한다.

제7조 (임원 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등 임무)

① 상임고문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지역의 지역본부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해당 지역의 부회장과 협력하여 조직 강화와 종원 간의 친목·화합을 이루는데 힘쓰고, 원활한 종무宗務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

⑤ 부회장은 소문중의 여론을 대종회 운영에 반영한다. 부회장은 각 부장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회계결산 및 종무宗務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임원회의 등 제반 회의에 출석, 의견을 개진開陳할 수 있다.

⑦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부장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종회 종무를 관장한다.

⑧ 총무부장은 제반 회무를 담당하여 기록을 유지 보관하고, 각종 회의 소집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⑨ 재무부장은 제 회비·찬조금 등 출납과 재정사무를 담당하고, 예금증서와 자산 등을 관리한다. 다만, 나주오씨장학회의 장학기금 출납과 재정사무는 제외한다.

⑩ 조직부장은 회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신규 가입 회원 명단을 작성하여 가입을 적극 권장하며, 각종 회의의 소집 시 참석 독려 업무를 담당하고, 각파 소문중 회의의 활성화화를 위해 소문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종무원장에게 보고한다.

⑪ 홍보부장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추진 실태 등을 홍보하고 회원 명부·종보 등의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⑫ 청장년부장은 청년 회원 및 장년 회원 명단을 별도로 작성하고, 미가입 회원의 입회를 권장하는 등 본회의 활성화화를 위하여 청년회와 장년회 모임을 주관한다.

⑬ 여성부장은 여성 회원 명단을 작성·관리하고, 미가

입 여성 회원의 입회를 권장하는 등 여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⑭ 장학사업부장은 본회가 별도 설립·운영하는 나주오씨장학회의 기금모금업무를 포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의 2 (임원의 자격정지)

① 본회의 임원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회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임원의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여 자격정지 처분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조의 대종회 목적 사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나주오문의 씨족사를 크게 왜곡시키는 등 종원 간의 화합과 단결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한 경우

2. 출판물에 의하여 나주오씨 선조님, 문중 또는 회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경우

3. 본회의 회칙을 위배하여 본회로부터 회칙 위배사항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해당 임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 3 (임원의 보수 등)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무에 봉사한다. 다만, 회무의 성격상 실비보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9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임원회의·종무회의·고문회의 등을 둔다.

제10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양력 3월 4번째 토요일에 소집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집행행위로부터 보고 받아 인준한다.

1. 임원 구성
2. 회칙 개정 사항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4. 기타 중요한 회무

② 정기총회는 전국의 나주오씨 집성촌을 순회하며 개최되 구체적인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무회

의에서 의제를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고문 추대
2. 종무위원 선출
3. 각종 회비 규모
4. 포상에 관한 사항
5. <대중회보> 편집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간행물 발간 승인
7. 기타

제12조 (종무회의)

- ① 종무회의는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당연직 종무위원)과 100명 내외의 종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종무회의는 연 1회 양력 2월 두 번째 토요일에 개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2. 회칙 개정
3.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감사 선출
4. 상임고문 추대
5. 임시총회 소집 요청
6. 제23조에 의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8. 임원회의에서 회부한 사항
9. 기타

제13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참석 회원으로 성회한다.
- ② 총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1/3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모든 회의의 구성원은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은 성회 요건 충족에만 유효하다.

제14조 (회의록)

총무부장이 작성하는 각종 회의의 회의록은 회장·사무국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회비 규모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1. 일반회비
2. 임원회비
3. 특별찬조금
4. 기타 사업수입금

제16조 (재산관리)

- ① 본회 소유 부동산은 관할구청에 등록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284113-1126010) 및 등록명칭(나주오씨대중회)으로 등기한다.
- ② 본회의 금융자산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515-82-78933)에 따라 단체명(나주오씨대중회)으로 예치한다. 다만, 각 지역본부별로 경비지출거래용 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각 지역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간행물·포상·예절

제18조 (대중회보 발간)

본회는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활성화하고 홍보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대중회보>를 발간, 전국 종원에게 배포한다.

제19조 (간행물 등 사전승인)

나주오씨 씨족 관련 연구물과 저작물을 간행하고자 하거나 기세조起世祖 이상의 선조에 대한 설단을 포함한 제례용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나주오씨대중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무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포상 및 장학금)

- ① 본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로를 남겼거나 평소 숭조효친崇祖孝親에 남다른 면을 보인 종원에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대종상太宗賞·효행상·덕행상·공로상 등을 시상한다.
- ② 숭조사상이 투철하고 종문을 빛낼 유능한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참배)

본회 회원 특히 임원은 1년에 한 번 도선묘都先墓(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신정마을 평가산 소재)에 참배하

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시제일時祭日, 時享日은 음력 3월 9일이다.

제22조 (종친간 예절)

종원 간에 항렬이 높은 분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되, 항렬이 높더라도 항렬이 낮은 분의 생년월일이 1년 이상 빠르면 종원 간의 화합을 위해 상호 양존한다. 다만, 파 문중 안에서는 파 문중 관습에 따른다.

제6장 위원회

제23조 (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목적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하고 중무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부칙(1999. 12. 5)

본 회칙은 1999년 12월 5일 창립총회 결성일부터 공포·시행한다.

부칙(2000. 9. 24)

본 회칙은 2000년 9월 24일 제1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7)

본 회칙은 2002년 2월 17일 제2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9. 8)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9월 8일 제3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일 현재 종회원장과 종회의원 및 각 간사는 개정 회칙에 의해서 중무원장과 중무위원 그리고 각 부장으로 각각 선출된 것으로 한다.

부칙(2003. 2. 9)

본 회칙은 2003년 2월 9일 제4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26)

본 회칙은 2006년 3월 26일 제5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22)

본 회칙은 2009년 3월 22일 제6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25)

본 회칙은 2012년 3월 25일 제7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29)

본 회칙은 2015년 3월 29일 제8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6)

본 회칙은 2017년 3월 26일 제9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25)

본 회칙은 2018년 3월 25일 제10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24)

이 회칙은 2019년 3월 24일 제11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임원 선출)·제12조(중무회의)는 2020년 2월 중무회의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임원)·제8조(임원임무)·제8조의3(임원의 보수 등)·제14(회의록)는 2020년 3월 총회일 이후 시행한다.

부칙(2024. 3. 24)

이 회칙은 2024년 3월 24일 제12차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오씨종사연구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제 정 2008. 09. 21
일부개정 2012. 03. 25
일부개정 2017. 03. 26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나주오씨종사연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나주오문 씨족사 연구와 각종 저작물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올바른 씨족사를 정립한다.
2. 제반 종사 문제에 관하여 전체 문중 간의 합의 도출 또는 동의 등 이해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본 위원회는 대종회 회칙 제23조(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대종회의 산하에 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간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서울과 호남지역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호남지역에 간사를 둔다.

제5조 (위원의 자격, 선출 등)

- ① 위원은 대종회의 임원 또는 각 문중에서 추천한 회원으로서, 종사에 많은 관심과 열의가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 ② 임원회의에서 제1항의 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추대 및 선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무)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③ 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요청한 사항 및 제8조의 심의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소집 및 심의사항)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나주오문 씨족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나주오문씨족사 연구물·저작물 간행에 관한 사항
 3. 선조에 대한 제례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왜곡 서술된 씨족사 자료의 발굴 및 시정(보완)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③ 제2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종무회의에 보고하고, 종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위원회 고유 심의사항 이외에 임원회의에서 별도 심의 요청한 사항이 있을 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심의 결과를 임원회의에 회부한다.

제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① 회의는 재적인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종회 회칙 제19조(간행물 등 사전 승인) 규정에 해당되어 임원회의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출석인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사록)

간사가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간사가 서명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의결에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나주오씨전자족보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제 정 2024. 03. 24

제1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나주오씨전자족보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나주오씨대동보(신유보)」 자산록(제2권~제5권의 전자족보 DB 등록을 추진하며, 지장록(제1권)의 한문 번역 및 원문·번역문의 전자족보 DB 등록을 추진한다.
2. 신유보에 누락된 회원과 1981년 이후 출생한 회원들의 「전자족보 신규등록신청서」(수단 제출)를 접수하여 전자족보DB 등록을 추진한다.

제3조 (나주오씨 세계 준수)

나주오씨 전자족보는 1981년에 발행된 「나주오씨대동보(신유보)」에 따라, 오숙규吳淑珪 선조님을 중조中祖, 오언吳僊·오제吳悌 선조님을 기세조起世祖로 하는 나주오씨 세계世系를 그대로 준수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본 위원회는 대종회 회칙 제23조(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대종회의 산하에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간사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과 호남지역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두며, 문중별로 1명 이상의 문중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복수로 문중위원이 있는 문중은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선출 등)

- ① 위원은 대종회의 임원 또는 각 문중에서 추천한 회원으로서, 종사에 많은 관심과 열의가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 ② 임원회의에서 제1항의 회원 중에서 적임자를 추대 및 선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관할 지역의 위원회 실무를 관장한다.

제9조 (위원회 소집 및 심의사항)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자족보 구축에 관한 사항
 2. 전자족보 편집 및 편찬에 관한 사항
 3. 전자족보 등록 및 삭제에 관한 사항
 4. 전자족보 수단 접수에 관한 사항
 5. 전자족보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자족보 홍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자족보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결의된 사항을 대종회장에게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무회의 심의·의결토록 조치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록)

간사가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간사가 서명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부 칙 규칙은 2024년 3월 24일부터 제정·시행한다.

나주오씨대종회 임원 명부

■임원 주소록 정비 안내

임원 명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틀리거나 변경된 경우
대종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종회 사무실 연락처 ☎ 02-2275-5574

□ 상임고문

직 책	성 명	자 택 주 소	자택 전화	생년 (항렬)	출생지 우편번호
		직 장 (파명)	직장 전화		
상임고문	오근성 吳根聲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8, 256동 1001호(금호베스트빌) 전 대종회 회장(9, 10대), 합동철재산업(주) 대표이사 (석문공)	031-302-9086 010-5394-7071	1939 (근)	광산 도림 16939
	오인선 吳仁善	광주광역시 남구 금당로3길 8-3, 101동 607호(진월동, 협진훼미리) 전 대종회 회장(11대), 나주향교 전교 (송은당공)	010-2625-3006	1944 (선)	나주 동강 61735

□ 고문

고 문	오몽룡 吳夢龍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로 10, 203동 802호(우정동, 선경2차A) (송은당공)	052-246-2718 010-9611-2718	1937 (선)	울산 44465
	오기선 吳起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길 6-16, 501호(신사동, 다스케어빌) 전 무안중학교 행정실장 (금양군)	02-376-3689 010-8749-2501	1937 (선)	광산 세동 03450
	오문곤 吳文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곡로11번길 36(부곡동) (송은당공)	051-515-0028 010-4130-0028	1937 (수)	경남 양산 46302
	오판수 吳判洙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94번길 10, 107동 604호(용봉동, 쌍룡예가) 전 교육공무원 (송은당공)	062-261-2378 010-7266-2378	1938 (수)	나주 동강 61064
	오종만 吳鍾滿	경기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274-22, 103동 1802호(써니벨리) 전 감사원 수석감사관, 전 종사연구위원장, 전 종무원장(3, 4대) (금양군)	031-308-2265 010-6359-5469	1940 (수)	광산 내동 17088
	오무송 吳茂松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23, 101동 1002호(운림동, 무등파크맨션) 전 조선대학교 교수, 전 호남지역본부장(9, 10대) (금양군)	062-671-2526 010-9474-2527	1940 (수)	광산 내동 61491
	오관수 吳官洙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82, 110동 801호(한진타운) (송은당공)	02-2298-9768 010-6274-9723	1942 (수)	나주 동강 04717
	오효근 吳馨根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진로 43-1(도덕동) 전 공무원 (석문공)	062-943-7300 010-2684-7303	1938 (근)	광산 도림 62406
	오윤근 吳潤根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동송동길 13-75(송산동) (금양군)	062-943-7405 010-5643-7405	1938 (근)	광산 내동 62406
	오행근 吳幸根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23, 103동 1406호(무등파크맨션) 전 교육공무원 (석문공)	062-222-8551 010-5622-8551	1939 (근)	광산 봉정 61491

고 문	오광구 吳光久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동로 15, 117동 1303호(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 (석문공)	031-245-5378 010-3796-5378	1941 (근)	광산 본량 16452
	오형희 吳榮熙	경기 의왕시 오전로 63, 104동 104호(오전동, 무궁화아파트) 전 대중회 중무원장(2대) (석문공)	031-457-0279 010-5349-0279	1937 (열)	광산 양촌 16057
	오중섭 吳重燮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34, 104동 1402호(계림동, 그랜드센트럴) 전 중등학교 교장 (장탄)	062-224-7879 010-6721-2875	1937 (열)	광산 예림 61424
	오 열 吳 烈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66, 101동 403호(이촌동, 북한강아파트) (장탄)	02-793-9285 010-7193-9285	1937 (열)	광산 예림 04380
	오희열 吳熙烈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40, 101동 106호(문흥동, 모아아파트) 전 중등학교 교장 (장탄)	062-267-7255 010-3732-7255	1938 (열)	광산 명도 61128
	오강렬 吳康烈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4, 111동 604호(본오동, 신안1차아파트) (난봉공)	031-408-7020 010-2647-7020	1940 (열)	고창 공음 15541
	오은열 吳殷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333(도덕동) 전 호남본부장, 양평공중중 회장 (석문공)	062-943-7332 010-5031-7054	1941 (열)	광산 도림 62406
	오창희 吳昌熙	광주광역시 동구 학소로76번길 14, 102동 1503호(모아미래도) 전 초등학교 교장 (석문공)	062-222-8450 010-8615-8450	1941 (열)	광산 양촌 61501
	오광교 吳光敎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3-5(임동) 전 삼도면장 (장탄)	062-522-0114 010-4784-3883	1938 (교, 군)	광산 죽산 61253
	오성교 吳成敎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65번길 7-1, 301호(농성동, 제일파크) 전 우체국장 (장탄)	062-369-3337 010-2595-4132	1939 (교, 군)	광산 평촌 61930
	오 동 吳 東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45, 404동 702호(오산동, 운암4단지 주공A) 전 S-OIL 과장 (장탄)	031-378-6760 010-5638-6760	1939 (교, 군)	광산 예림 18133
	오교철 吳敎哲	경기 양주시 회천남로 116, 202동 605호(옥정동,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전 소방서장, 전 중무원장(7, 8대) (칠송공)	010-8853-2899	1939 (교, 군)	무안 몽탄 11472
	오교한 吳敎漢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북로35번길 7-2(수내3동 115-15) 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장 (칠송공)	031-726-3377 010-8749-1123	1940 (교, 군)	무안 운남 13601
	오천년 吳千年	광주광역시 남구 희재로1217번길 33-1(주월동) 나성군 봉사손 (칠송공)	062-651-0568 010-3638-0568	1940 (교, 군)	광산 양촌 61608

□ 집행부 임원

회장	오종순 吳鍾淳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19, 102동 1801호(한국아델리움) (주)가야건설(주)금성건설 대표이사, (재)오씨장학회 이사장 (사정공)	062-651-9006 010-3602-9026	1952 (열)	광주 61737
수석 부회장	오양근 吳梁根	경기 광주시 신현로 65-24, 205동 1102호(신현동, 현대모닝사이드1차) 전 중앙고속신현 전무 (장탄)	031-726-2366 010-7554-9940	1939 (근)	광산 봉정 12821
서울경기 본부장	오대균 吳大均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50, 103동 402호(명일동 래미안 솔베뉴) 전 서울지방철도청 (명곡공)	02-3246-3753 010-5383-9845	1944 (교, 군)	담양 남면 05266
호 남 본부장	오동근 吳東根	광주시 서구 치평로 77, 106동 1401호(치평동, 중흥아파트) 광산문화원장 (금양군)	062-374-2320 010-3605-5330	1952 (근)	광산 세동 61952
영 남 본부장	오동우 吳東宇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길 22-15 오명농장/성균관유도회 양산지부 회장 (송은당공)	055-374-0160 010-3801-9230	1952 (근)	경남 양산 50582

종사연구 위원장	오기주 吳基柱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33번길 4, 1동 701호(봉선동, 금호타운) 전 광주향교 전교 (송계공)	062-675-3355 010-3642-3355	1947 (근)	광산 내동 61684
감사	오현교 吳琰敎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57번길 4, 102동 1307호(화정동, 모아타워) 전 교육공무원 (칠송공)	062-373-0005 010-5197-0888	1946 (교, 군)	광산 평동 62028
감사	오승기 吳承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33번길 25, 103동 803호(마석힐즈파크푸르지오) (사)한국경찰유족회 회장 (명곡공)	02-586-7068 010-3641-7021	1956 (영)	담양 고서 12177
사무국장	오형근 吳榮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3가길 38(창신동) 전 국제자산신탁(주) 경영지원본부장 (내금위공)	02-765-5250 010-7759-5250	1954 (근)	광산 임곡 03095
총무 부회장	오도근 吳道根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69번길 43, 102동 1803호(용봉동, 금호아파트) 전 초등학교 교장/나성군중회 총무 (석문공)	062-515-4236 010-3613-4236	1950 (근)	광산 오운동 61109
재무 부회장	오순교 吳純敎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31번길 17, 301동 1201호(진월3차 삼익세라믹) 전 초등학교 교감 (장탄)	062-673-8740 010-2602-8740	1950 (교, 군)	광산 오운동 61715
재무 부회장	오종선 吳鍾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35, 2동 802호(성산동, 시영아파트) 아이엠티글로벌(주) 상무이사 (장탄)	02-737-4568 010-8230-7000	1964 (종)	광산 본량 03936
조직 부회장	오건열 吳建烈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 8, 102동 704호(상암월드컵A) 자영업(전기) (석문공)	02-6351-1443 010-3784-6173	1957 (열)	광산 평림 03913
홍보 부회장	오종문 吳鍾文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2가길 6, 202호(길동) 도서출판 이미지북 대표 (참판공)	070-8817-7068 010-3214-7068	1959 (종)	광산 풍속 05303
여성 부회장	오명숙 吳明淑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31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92호(가리구이 떡갈비)』, 새송정떡갈비 대표 (송계공)	010-3898-3875	1953 (근)	광산 내동 62430
여성부장	오정숙 吳敎淑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7길 70, 5층(사당동) (장탄)	010-3388-5382	1953 (교, 군)	나주 공산 07025
부회장	오삼선 吳奇壽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61 정성빌딩 4층 (주)정성기계 회장 (금양군)	02-953-1244 010-5381-4604	1948 (선)	전북 진안 04954
	오경선 吳京善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20, 12동 307호(신흥동3가, 향운아파트) (송은당공)	010-3896-1311	1950 (선)	나주 동강 22339
	오길빈 吳吉彬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림상길 7-2(도덕동) (석문공)	062-943-7334 010-8849-7334	1943 (수)	광산 도림 62406
	오학수 吳鶴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58, 101동 1205호(정자동, 동남타운 아파트) (송은당공)	031-256-8479 010-8848-6123	1946 (수)	나주 동강 16340
	오성수 吳聖洙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세동길 9-14(송산동)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원 (금양군)	062-943-7305 010-5544-7036	1947 (수)	광산 세동 62406
	오곤수 吳坤洙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림안길 27(도덕동) (석문공)	062-943-1684 010-2608-1025	1948 (수)	광산 도림 62406
	오병엽 吳炳葉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길 7-30 (사정공)	061-335-7206 010-3297-7206	1952 (수)	나주 공산 58300
	오중렬 吳重烈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180번길 6, 301동 302호(화정동, 금호타운) 국기원감독관(태권도 9단), 사정공문중 회장 (사정공)	010-3612-8787	1952 (수)	나주 공산 62037
	오경수 吳景洙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65번길 7-1, 1011호(농성동, 제일파크) 전 광산구청 복지문화국장 (석문공)	062-365-5263 010-3624-6686	1955 (수)	광산 도림 61930
	오대규 吳垚奎	경기 부천시 성곡로33번길 51, 2동 201호(여월동, 더포레) (주)경풍건설 대표이사 (금양군)	010-8695-9136	1970 (수)	광산 송산 14484

부회장	오근신 吳根伸	서울시 관악구 창림2길 30, 2층(봉천동) (송은당공)	032-677-1127 010-7384-1094	1939 (근)	나주 동강 08733
	오맹근 吳萌根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0길 20, 111동 701호(청솔우성A) 전 공무원 (내금위공)	02-2248-6311 010-2820-6311	1944 (근)	광산 임곡 02536
	오현상 吳憲相	전남 나주시 동강면 성지길 10-8 전 공무원 (송은당공)	061-335-2142 010-3649-2144	1944 (근)	나주 동강 58292
	오인국 吳仁局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5번길 17(금호동) 송계공문중 회장 (송계공)	062-369-0411 010-4185-0411	1945 (근)	광산 내동 62011
	오남근 吳南根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37, 102동 802호(쌍촌동, 일신A) 전 교육공무원 (장탄)	062-372-6227 010-3682-6227	1946 (근)	광산 봉정 61996
	오오근 吳五根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20, 107동 603호(문흥동, 상록A) 전 담양군 금성면장 (내금위공)	062-263-0702 010-4620-0702	1947 (근)	담양 61134
	오두성 吳斗星	강원도 춘천시 행촌로 11, 101동 404호(퇴계동, 한성한진아파트) 송은당공문중 회장 (송은당공)	 010-9126-1007	1947 (근)	나주 동강 24454
	오근태 吳根泰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44길 59(묵동) 건축업 (내금위공)	02-756-8128 010-9010-8128	1948 (근)	장성 남면 02046
	오신근 吳信根	인천광역시 남구 숙골로43번길 14-47(도화동) 자영업 (내금위공)	032-883-5619 010-4246-9085	1948 (근)	장성 남면 22102
	오근국 吳根國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22길 44-9, 101호(서초동) 요식업(의왕) (송계공)	02-521-1358 010-2360-7112	1949 (근)	광산 내동 06668
	오안모 吳安模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193번길 25, 101동 1202호(내방동, 내방마을주공) 전 경찰공무원 (금양군)	062-373-2549 010-4606-2549	1950 (근)	광산 내동 61974
	오경근 吳京根	서울시 성동구 상원길 47, 103동 803호(성수동1가, 중앙하이츠빌) 건설업 (장탄)	02-462-2780 010-5275-4531	1950 (근)	광산 풍속 04789
	오동석 吳東浙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마길 28(명도동) 전 본량농협 전무/나성군종회 재무 (장탄)	062-943-7427 010-6640-7427	1951 (근)	광산 가마 62404
	오현식 吳炫植	서울시 강남구 현릉로590길 63, 501동 104호(세곡동, 강남대시앙파크) 무역업 (장탄)	 010-6230-5948	1952 (근)	전남 화순 06366
	오채근 吳蔡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53, 112동 603호(한신A) (주)부성전공 대표이사 (내금위공)	031-702-3352 010-5247-3352	1955 (근)	장성 남면 13588
	오희성 吳熙星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14길 23 주원건설 조경이사 (석문공)	063-563-8686 010-8642-8686	1955 (근)	고창 신림 56430
	오근용 吳根龍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길 85, 105동 1806호(신대방동, 경남A) 건우메디칼 대표 (송계공)	 010-8791-1967	1956 (근)	광산 내동 07069
	오기섭 吳奇燮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235번길 10-17 농업 (부사공)	062-376-2344 010-2676-2344	1938 (열)	광산 지평 61936
	오진열 吳震烈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길 31-4, 401호(역삼동) (명곡공)	02-552-9166 010-8621-9166	1940 (열)	담양 연천 06123
	오동렬 吳東烈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35가길 38(등촌동) 대왕산업 대표/ 장탄문중 회장 (장탄)	02-2644-4845 010-5349-3430	1945 (열)	광주동명동 07733
	오피열 吳苾烈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77번길 11, 우미빌라 202호 양조장 경영, 칠송공문중 대표 (칠송공)	061-336-5016 010-3621-5016	1944 (열)	광산 삼도 61940

부회장	오정렬 吳正烈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145, 101동 1101호(도창동, 에이스아파트)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연구원장 (장탄)	031-311-5505 010-7313-2789	1948 (월)	함평 월야 14942
	오남렬 吳南烈	경기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73, 401동 402호(포일동, 포일숲속마을) (주)인곡기술사사무소 소방기술사 · 부사장 (장탄)	031-465-5185 010-5381-8334	1948 (월)	광산 예림 16003
	오수열 吳守烈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86번길 3-23(소태동)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광주유학대학 학장(성균관 자문위원) (부사공)	062-223-2562 010-2695-6734	1950 (월)	장성 61496
	오상기 吳相基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 410동 2102호(삼성래미안) (주)해리 대표이사 (참의공)	02-2677-6644 010-4394-3344	1951 (월)	고창 해리 07214
	오전열 吳典烈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7, 403동 406호(하늘마을 4단지) 오주통상 대표 (석문공)	031-977-2111 010-5223-4550	1952 (월)	광산 도림 10311
	오귀열 吳貴烈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800, 309동1202호 (빛가람동, 부영단지) 전 동강우체국장 (송은당공)	010-3614-6161	1952 (월)	나주 동강 58324
	오병현 吳秉炫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30, 301동 1204호(하남동, 부영사랑으로) 전 광주광역시 남구부청장(이사관), 석문공문중 회장 (석문공)	010-7256-9800	1954 (월)	광산 삼도 62337
	오경남 吳京南	인천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68, 103-1101호(랜드마크시티 센트럴더샵) (사) 한국전기안전동우회 회장 (부사공)	031-309-5511 010-6209-2244	1954 (월)	나주 다시 22018
	오조섭 吳草燮	충남 아산시 배방읍 용연동길 59-32, 901동 1호(아산배방캠스베일리2차) 전 금화PSC 소장 (장탄)	010-8771-5703	1955 (월)	광산 삼도 31462
	오맹렬 吳孟烈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9, 1층(서초동, 양지원빌딩) 보아스법무사 합동사무소 법무사 (장탄)	02-592-5922 010-5229-9319	1958 (월)	광산 명도 06595
	오승훈 吳承勳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41, 102동 102호(금호동, 시영1차아파트) 전 광주광역시 서기관, 석문공문중 총무 (석문공)	062-456-9768 010-5620-9768	1963 (월)	광산 도덕 62005
	오재열 吳在烈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42라길 27, 101동 1606호(대망드림힐) 전 국민연금매장 대표 (석문공)	010-9175-0220	1966 (월)	고창 신림 01626
	오광교 吳光敎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곡길 170-46(명도동) 광주향교재단 이사 (장탄)	062-943-9897 010-9013-9897	1941 (교, 군)	광산 본량 62404
	오양균 吳陽均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9길 40(용두동) 전 미장식품 대표 (명곡공)	02-967-7916 010-8773-7916	1943 (교, 군)	담양 후산 02564
	오백교 吳白敎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119, 109동 1003호(흑석동, 명수대 현대) 전 한국산업은행 부장 (장탄)	02-2217-7948 010-3285-7948	1944 (교, 군)	광산 죽산 06904
	오정균 吳丁均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도산길 78(송정동) 전 광산구청 총무국장, 전 종무원장(9, 10대) (장탄)	062-944-0551 010-8621-0551	1945 (교, 군)	광산 죽산 62437
	오병균 吳炳均	전남 무안군 일로읍 오룡중앙동로 37, 101동 403호(푸르지오아파트) 목포대학교 명예교수 (칠송공)	061-287-3111 010-4322-8181	1945 (교, 군)	목포 58580
	오홍구 吳洪鉤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림로 350, 402동 404호(창동, 주공아파트) (주)시원양행, 토마톡(TOMATOK) 이사 (도암공)	010-3415-1136 010-4338-1344	1946 (교, 군)	고창 마명 02800
	오낙균 吳洛均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3길 10-2호 전 공무원 (명곡공)	061-392-1546 010-3634-1546	1946 (교, 군)	담양 수북 57220
	오창교 吳漲敎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113동 1104호(신천동, 파크리오) 아토리서치(주) 회장 (장탄)	02-2671-5133 010-7387-2332	1955 (교, 군)	광산 도림 05507
	오재교 吳在敎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9길 45, 101동 1203호 (구로동, 신도림현대) 경성금속 대표 (송계공)	031-542-0627 010-5272-0628	1956 (교, 군)	광산 삼도 08291

부회장	오만균 吳晩均	광주광역시 남구 회서로22번나길 13 (주월동) 광주 호산나교회 담임목사, 명곡공문중 회장 (명곡공)	062-653-7112 010-4129-7008	1957 (교, 균)	광주용강동 61730
	오교웅 吳敎雄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림상길 3-2(도덕동) 도덕동 우체국장 (장탄)	062-446-7900 010-4623-0900	1959 (교, 균)	광산 도림 62406
	오중희 吳鍾熙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71번길 10, 103동 1501호(양산동, GS그린자이A) 前 광주보건대학교 교수 (부사공)	010-9884-8181	1958 (중)	광산 가삼 61025
	오승중 吳承鍾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속길 30-8(남산동) 전 본량농협 조합장 (참판공)	062-943-6660 010-4228-6660	1959 (중)	광산 풍속 62404
	오종석 吳宗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65, 102동 601호(도림동, 동아에코빌) 희망드림행정사사무소 대표 (장탄)	010-5207-8358	1960 (중)	광산 본량 07374

□ 종무위원

종무위원	오병한 吳柄漢	울산광역시 중구 초은길 39(교동)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송은당공)	052-246-2241 010-2864-2241	1946 (선)	울산 44468
	오일태 吳一太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 35, 4층(신정동) (송은당공)	052-273-0570 010-3841-0570	1947 (선)	울산 44679
	오태룡 吳泰龍	울산광역시 중구 도화골길 28, 2동 702호(북산동, 남운력키맨션) (송은당공)	052-297-6432 010-4190-1254	1948 (선)	울산 44476
	오형수 吳亨洙	전남 장성군 삼계면 이암길 70-4(덕산리) 송계공파 이암문중 총무이사 (송계공)	010-7742-4479	1942 (수)	장성 이암 57233
	오흥수 吳興洙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60, 201동 804호(금호동, 신도브레뉴업) (금양군)	010-6363-1531	1951 (수)	광산 세동 11750
	오금수 吳錦洙	전남 나주시 동강면 나주서부로 1568 (송은당공)	061-335-2163 010-3606-9543	1952 (수)	나주 동강 58292
	오연수 吳蓮洙	전남 나주시 동강면 병반길 2-4 (송은당공)	061-335-2151 010-8708-9333	1955 (수)	나주 동강 58292
	오민곤 吳敏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길 30 가가호호 울산재가복지센터 대표, 영남총친회 총무 (송은당공)	055-374-8361 010-2585-5263	1961 (수)	경남 양산 50582
	오동건 吳東建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261번길 32, 106동 805호(삼산동, 우성A) (송은당공)	052-269-6470 010-2555-8118	1966 (수)	울산 44699
	오홍교 吳洪敎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구길 32-14 (사정공)	061-335-3374 010-5335-3042	1939 (근)	나주 공산 58300
	오병근 吳炳根	전남 나주시 동강면 성지길 24-3 (송은당공)	061-335-0018 010-6470-4980	1946 (근)	나주 동강 58292
	오기영 吳機瑩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구길 30 (사정공)	061-335-3251 010-8600-3251	1947 (근)	나주 공산 58300
	오현근 吳玼根	전남 나주시 동강면 백련산로 358-19(대지리 287) 백년골농장 (송은당공)	061-336-3421 010-6620-6382	1948 (근)	나주 동강 58288
	오기근 吳基根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98 오가생선구이 (송계공)	031-763-9991 010-2230-2859	1950 (근)	광산 송산 17303

종무위원	오성근 吳成根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6길 17, 303호(풍광빌라) 투투플라워 대표 (석문공)	02-2265-2020 010-7927-0711	1953 (근)	고창 신림 04622
	오근우 吳根吁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42번길 163, 209동 703호(소촌동, 국제미소래) (석문공)	010-2885-4127	1955 (근)	광산 명도 62385
	오현근 吳賢根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8(양산동 403-7) (주)장성철강 대표이사 (송계공)	062-512-6620 010-8500-4618	1956 (근)	광산 내동 61056
	오영선 吳英銑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구길 32-3 (사정공)	061-335-3227 010-4611-3227	1958 (근)	나주 공산 58300
	오진모 吳鎭模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37, 101동 803호(화정동, 대주아파트) 전 KT (금양군)	010-2684-0099	1958 (근)	광산 내동 62040
	오동현 吳東炫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59-2, 111동 1909호(금호동, 종원팰리스빌) (석문공)	010-3635-0282	1959 (근)	광산 오운 62012
	오광근 吳光根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7, 512동 904호(청라동, 힐스테이트) (송은당공)	010-4310-7172	1960 (근)	나주 동강 22765
	오경모 吳璟模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23번길 21-1, 101동 901호(화정동, 금호타운) 전 KT 상무 (금양군)	010-2680-5141	1960 (근)	광산 내동 62045
	오말근 吳末根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250번길 60, 110동 1102호(남악센트테빌리버파크) 국립 목포해양대 교수 (장탄)	061-462-1280 010-7358-1280	1960 (근)	목포 58579
	오동원 吳東源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353, 301동 2306호(하기동, 송림마을 3단지) 자영업 (송은당공)	010-4414-3148	1961 (근)	경남 양산 34061
	오형근 吳炯根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353(도덕동) 삼도부동산 (상호군공)	062-943-8920 010-7605-8910	1963 (근)	광산 삼도 62406
	오동원 吳東垣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45, 101동 401호(선암동, 모아엘가) 前 농협중앙회 (송계공)	010-3612-5220	1963 (근)	광산송산동 62401
	오현권 吳賢權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죽산길 48-3(송산동) 前 농어촌공사, 현 대박부동산 (송계공)	010-3601-6341	1963 (근)	광산송산동 62404
	오창근 吳昌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1동 8층 스타트업랩 807호 (주)윈드시너지 대표이사 (석문공)	031-602-5600 010-3002-3989	1965 (근)	광산 도림 13488
	오동하 吳東河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15, 310동 801호(대우마리나 3차) (송은당공)	051-515-8461 010-2486-4626	1965 (근)	경남 양산 48091
	오윤근 吳慄根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2길 3(이동) 라이프종합건설관리 대표 (상호군공)	010-9144-2404	1967 (근)	광산 삼도 15487
	오선교 吳善敎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33번길 4, 8동 1204호(봉선동, 금호타운) 더메이 대표 (사정공)	010-5453-7077	1980 (근)	나주상방리 61684
	오영현 吳榮炫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하로634번길 16(광천동) 전 한전 과장 (석문공)	062-366-9966 010-9474-9968	1941 (열)	광산 봉정 61913
	오기섭 吳基燮	전남 담양군 수북면 용구동1길 37-35 동인한의원 사무장 (정언공)	062-972-3809 010-4907-2666	1944 (열)	나주 57316
	오순열 吳順烈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55, 1401호(성남동, 동부주택 브리앙트) 전 서울시 공무원 (장탄)	031-711-3291 010-6394-3291	1948 (열)	광산 본량 13356
	오송렬 吳松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등로76번길 74, 110동 2403호(중흥에스) 송계공문중 총무 (송계공)	062-526-7229 010-9623-7229	1950 (열)	광산 내동 62322

종무위원	오민열 吳民烈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69길 18, 101동 1010호(염창동, 극동아파트) (장탄)	010-2598-3160	1950 (월)	나주 왕곡 07543
	오재형 吳在炯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220, 707호(쌍촌동, 대건맨션) (장탄)	010-9332-4379	1950 (월)	광산 명도 61973
	오기호 吳奇浩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145, 113동 3503호(더샵센텀파크1차) (송은당공)	051-743-2528 010-7118-1670	1951 (월)	부산 48050
	오권열 吳權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35번길 54, 1301동 806호(신창7차 부영사랑으로) (명곡공)	010-3643-0451	1951 (월)	담양 수북 62296
	오영례 吳榮禮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61바길 10-1(마천동) (장탄)	010-3039-8845	1951 (월)	광산 본량 05759
	오명렬 吳明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예림길 29-2(명도동) (명곡공)	062-943-7501 010-6744-7501	1952 (월)	광산 본량 62404
	오진호 吳鎭浩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110동 2401호(더샵센텀파크) (송은당공)	051-808-2488 010-3867-5545	1953 (월)	부산 48050
	오금렬 吳鎔烈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56번길 7, 103동 1105호(금호동, 한국아파트)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개발과장 (송계공)	010-3648-2484	1954 (월)	나주 다시 62033
	오점석 吳点錫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07, 103동 406호(상도동, 삼호아파트) (명곡공)	010-7343-1510	1954 (월)	담양 남면 07026
	오규열 吳圭烈	경기도 김포시 사우로 51, 113동 602호(사우동, 사우아이파크) (장탄)	010-3307-2617	1956 (월)	광산 명도 10111
	오영란 吳英蘭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8 (농성동) 오영란 법무사 사무소 대표 (석문공)	062-527-3160 010-3610-3160	1957 (월)	광산 도림 61927
	오효열 吳孝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동송동길 13-44 (송계공)	010-9885-7715	1957 (월)	광산 내동 62406
	오기현 吳淇炫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11, 302동 1402호(스위트벨리 3차) (석문공)	010-3643-8899	1958 (월)	광산 도산 62383
	오택렬 吳澤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1100번길 71, 209동 1001호(도산동, 우방아이유셀) (장탄)	010-3620-4940	1958 (월)	나주 왕곡 62393
	오익렬 吳益烈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132번길 22-1, 2동 405호(월산동, 덕림맨션) (주)고려건설 (석문공)	010-7754-2626	1959 (월)	광산 도림 61629
	오재열 吳采烈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8, 104동 1403호(신대방동, 현대A) 전 국민은행 지점장 (장탄)	02-844-9330 010-5341-9830	1959 (월)	광산 명곡 07064
	오금열 吳鎔烈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30번길 60, 104동 2003호(용봉동, 한화 꿈에그린) 前 함평군청 기획감사실장 (장탄)	010-4662-1303	1960 (월)	함평 월야 61182
	오광렬 吳光烈	서울시 중구 을지로27길 17, 2층(주교동 216) 신광실크인쇄 대표 (송은당공)	010-8746-2134	1960 (월)	나주 동강 04546
	오재열 吳在烈	충남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453-30, 105동 110호(순성 중명아파트) 용달업 (칠송공)	041-356-4021 010-5772-8553	1961 (월)	광주 덕산 31757
	오왕렬 吳旺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마길 43 (명도동) (장탄)	062-943-2813 010-8867-8006	1962 (월)	광산 명곡 62404
	오청렬 吳淸烈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82번길 16-3, 202동 408호(도산동, 대주아파트) (주)공간 인테리어 대표 (석문공)	010-3607-0570	1966 (월)	광산 봉정 62445

종무위원	오승철 吳承哲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11번길 10-7, 205동 501호(신봉동, 동일하이빌) (주)가야간장 대표 (내금위공)	010-3603-8999	1966 (월)	광산 임곡 16808
	오승렬 吳承烈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10, 106동 101호(마북동, 교동마을e편한세상) (송은당공)	010-2258-0912	1980 (월)	경남 양산 16911
	오경교 吳敬敎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89번길 9 -7(송정동) (참판공)	062-944-0026 010-9669-0026	1943 (교, 군)	광산 풍속 62422
	오형교 吳亨敎	경기 남양주시 불암산로39번길 43-40(별내동) 전 오성가구 대표 (장탄)	031-527-4784 010-5253-4784	1944 (교, 군)	광산 본량 12100
	오건교 吳健敎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30번길 11, 5동 1501호(자산동, 삼성A) 칠송공 영호공문중(덕흥문중) 회장 (칠송공)	062-233-9311 010-2615-3900	1947 (교, 군)	광주 덕산 61442
	오송균 吳松均	서울시 서초구 바우외로39길 20, 가동 101호(양재동, 장미타운) 국가유공자회 (칠송공)	02-576-8305 010-8637-5454	1947 (교, 군)	신안 압해 06745
	오교범 吳敎範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399, 309동 601호(신림동, 삼성산주공아파트) 오성벤처타운 대표 (장탄)	010-8760-7944	1950 (교, 군)	나주 공산 08847
	오봉균 吳鳳均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46, 115동 1103호(래미안 노블클래스) 전 초등학교 교장 (송계공)	031-217-7412 010-7319-7432	1951 (교, 군)	광산 삼도 16534
	오찬교 吳贊敎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48-15(양산동) 중앙강철 대표 (부사공)	010-3605-1985	1952 (교, 군)	61056
	오상균 吳相均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배천로2길 39-14, 이고집꾸구미(방배동) (장탄)	02-585-5879 010-2915-9585	1952 (교, 군)	광산 명곡 06693
	오봉균 吳鳳均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40, 104동 1201호(응암동, 힐스테이트녹번역) 자영업 (장탄)	010-3607-7265	1952 (교, 군)	광산 송암 03473
	오찬교 吳燦敎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진로 505-8(자산동 89-2) 임해관광 사장 (장탄)	062-959-1014 010-3611-1014	1955 (교, 군)	광산 본량 62204
	오연균 吳涓均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104(통복동) GS25 통복타운점 대표 (명곡공)	010-2112-6464	1955 (교, 군)	담양 고서 17919
	오승기 吳昇基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82번길 19-4(화정동) 前 금호타이어 (부사공)	010-8720-1577	1961 (교, 군)	광산 가삼 62037
	오면기 吳勉基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삼길 83-20 (부사공)	010-6678-2046	1963 (교, 군)	광산 가삼 62406
	오성교 吳晟敎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157동 402호(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장탄)	010-5302-0769	1963 (교, 군)	05501
	오영오 吳英吾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상로 24, 108동 1803호(성원상떼빌) LH공사 부장 (장탄)	010-9538-0505	1964 (교, 군)	광산 명도 16927
	오상철 吳尙哲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16, 2302동 1204호(상동, 라일락마을 경남이너스빌)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부사공)	010-5367-2732	1967 (교, 군)	광산 본량 14508
	오정균 吳定均	경기도 안성시 동안구 관악대로 164, 1동 1110호(비산동, 미릉아파트) (주)나라바이오테크 대표이사 (장탄)	031-347-9701 010-4344-1094	1968 (교, 군)	함평 월야 13953
	오병철 吳秉哲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1로 10, 516동 206호(고잔동, 주공아파트) (송계공)	010-7702-4022	1976 (교, 군)	광산 내동 15348
	오종대 吳鍾大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105, 301동 1901호(중산동, 하늘마을) 포맨해운 (장탄)	010-3711-0411	1962 (중)	광산 본량 10311

총무위원	오종뢰 吳鍾雷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마길 2-21(명도동) 자영업 (장탄)	062-943-9220 010-3610-7802	1965 (중)	광산 가마 62404
	오종대 吳鍾大	서울시 노원구 성발로139, 111동 1203호(공릉동, 풍림아파트) (주)성화기술훈 대표 (장탄)	02-974-1672 010-5359-1678	1965 (중)	광산 삼도 01850
	오상운 吳相雲	전남 신안군 압해읍 원가룡길 83-8 (유)늘샘건설 대표 (칠송공)	010-5540-4886	1970 (중)	신안 압해 58819
	오영일 吳永一	전남 신안군 압해읍 상광립길 8-3 선우렌터가 대표 (칠송공)	010-4606-9480	1977 (중)	신안 압해 58823
	오승준 吳承俊	광주시 북구 첨단연신로 166, 101동104호(신용동,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전 광주광역시청 부이사관, 재광호남향우회총연합회 사무총장 (명곡공)	010-2601-2614	1958 (영)	담양 고서 61085
	오영담 吳泳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 102동 112호 (장자동, 느티마을3단지) (주)다미산업 본부장 (명곡공)	010-3631-3461	1980 (영)	담양 고서 13611

□ 오수산악회 임원 명단

회장	오경근	서울시 성동구 상원길 47, 103동 803호(성수동1가, 중앙하이츠빌) (장탄)	02-462-2780 010-5275-4531	1950 (근)	광산 풍속 04789
부회장	오근태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44길 59(묵동) 건축업 (내금위공)	02-756-8128 010-9010-8128	1948 (근)	장성 남면 02046
부회장	오맹렬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1층(서초동, 양지원빌딩) 보아스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 (장탄)	02-535-8707 010-5229-9319	1958 (열)	광산 명도 06595
감 사	오형근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13가길 38(창신동) 전 국제자산신탁(주) 경영지원본부장 (내금위공)	02-765-5250 010-7759-5250	1954 (근)	광산 임곡 03095
총 무	오종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16(효자동) 아이엠티글로벌(주) 상무이사 (장탄)	02-737-4568 010-8230-7000	1964 (중)	광산 본량 03042

□ 오성산악회 임원 명단

회장	오성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세동길 9-14(송산동)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원 (금양군)	062-943-7305 010-5544-7036	1947 (수)	광산 세동 62406
산행이사	오행근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23, 103동 1406호(무등파크맨션) 전 교육공무원 (석문공)	062-222-8557 010-5622-8551	1939 (근)	광산 봉정 61491
총 무	오안모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180번길 6, 302동 702호(화정동, 금호타운) 전 경찰공무원 (금양군)	062-373-2549 010-4606-2549	1950 (근)	광산 내동 62037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 토공사업 / 아스콘 생산판매



대영개발주식회사
대영아스콘산업(주)

대표이사 오두한(송은당공문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609-1

TEL : 052-211-6006~7

FAX : 052-248-9715

Mobile : 010-3858-8551

E-mail : dyc1997@hanmail.net

건설자재 유통 전문기업

- 철물, 건재, 공구, 안전용품 도·소매 유통 및 인테리어 -



B2C(소매 중심)에서 B2B(기업 거래)로 성장중인 유통회사

화순군청 및 농어촌공사, 녹십자 등 관급거래를 비롯하여 6개월 이상 거래유지 중인 대형건설사 현 기준 130여 개



토목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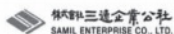


인테리어설비자재 및 안전용품



전통 및 수공구

주요 거래기업



한국농어촌공사



SHINSUNG



삼일건설산업



한국국유재산관리공단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전남대학교병원

건설자재유통기업

중앙철물공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23

전화 061-371-0949

대표 오옥자(도암공문중)



三不孝 | 삼불효

부모를 불의에 빠트리고 벼슬하지 않으며
제사를 지내지 않는 세 가지 불효.



昏定晨省 | 혼정신성

저녁에는 잠자리를 살피고, 아침에는 일찍이 문안을 드린다는 뜻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이르는 말.

산행의 이모저모



오수산악회(서울경기지역)

산행: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시산제: 매년 3월 첫째 주 일요일

2024년 산행일지

산행일	산행지	모임장소	2차 모임장소	참석인원
1.7	수락산	7호선 장암역 1번 출구	명가오리숯불구이	15
2.4	관악산	2.4호선 사당역 6번 출구	황제숯닭	17
3.3	관악산시산제	2.4호선 사당역 6번 출구	시산제장소/소풍가는날	36
4.7	관악산(서울대입구)	신림선 관악산역	토담	15
5.5	부용산	신원역(경의.중앙선)	황금연못	9
6.2	봉화산장미축제	7호선 태릉입구역	풍천장어	28
7.7	서울숲	서울숲역 (수인분당선)	뚝섬숯불갈비	22
8.4	휴가철	혹서기로 산악회 취소		0
9.1	관악산(서울대입구)	신림선 관악산역	토담	17
10.1	상암동 메타스퀘어길 하늘공원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홍반장신의주찐쌀순대	17
11.3	산정호수(경기 포천)	용산역, 양재역	중앙식당(포천)	34
12.1	서울숲	서울숲역 (수인분당선)	뚝섬숯불갈비	12



2025
오수산악회
시산제
(관악산, 3.9)





2024
오수산악회
산행 사진

① 1월, ② 2월, ③ 4월, ④ 6월, ⑤ 7월
⑥ 9월, ⑦ 10월, ⑧ 11월, ⑨ 12월



오성산악회(호남지역)

● 산행: 매월 2회(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 회장: 오성수 총무: 오안모

● 회원(무순): 오인선, 오판수, 오무송, 오행근, 오은열, 오기주, 오길빈, 오희교, 오남근, 오종선
오학경, 오정균, 오주열, 오동근, 오종희, 오일균, 오효열, 오효섭, 오순교, 오도근(총22명)

2024년 산행일지

- 1월 9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암 입구 [식당] 고흥어부네
[참석회원] 무순(성수, 무송, 판수, 학경, 행근, 길빈, 은열, 현교, 정균, 안모, 일균)
- 1월 23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암 입구 [식당] 무등산 전원일기
[참석회원] 무순(성수, 행근, 정균, 은열, 일균, 안모)
- 2월 27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암 입구 [식당] 전원일기
[참석회원] 무순(성수, 판수, 무송, 행근, 길빈, 은열, 기주, 안모, 일균)
- 3월 12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암 입구 [식당] 무등산 전원일기
[참석회원] 무순(성수, 무송, 판수, 길빈, 행근, 정균, 은열, 현교, 일균, 안모)
- 3월 26일 11:0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길 정자 [식당] 돼지머리 외 준비한 음식
[참석회원] 무순(성수, 무송, 판수, 길빈, 행근, 현교, 은열, 정균, 안모)
- 4월 19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무등산 전원일기
[참석회원] 무순(성수, 무송, 판수, 길빈, 행근, 종순, 정균, 은열, 일균, 종선, 안모)
- 5월 14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무등산 전원일기
[참석회원] 무순(성수, 정균, 무송, 길빈, 행근, 은열, 종선, 일균, 안모)
- 5월 28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무등산 전원일기
[참석회원] 무순(성수, 정균, 무송, 길빈, 행근, 은열, 판수, 현교, 일균, 안모)
- 6월 10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무등산 전원일기
[참석회원] 무순(성수, 기주, 길빈, 행근, 무송, 판수, 종선, 일균, 안모, 현교)
- 6월 25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무등산 전원일기
[참석회원] 무순(길빈, 행근, 무송, 판수, 은열, 정균, 일균, 안모)
- 7월 9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말바우시장 구내식당
[참석회원] 무순(길빈, 행근, 무송, 판수, 은열, 정균, 성수, 기주, 현교, 종선, 일균, 안모)
- 7월 23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무등산 전원일기
[참석회원] 무순(길빈, 행근, 무송, 은열, 성수, 정균, 현교, 일균, 안모)
- 8월 13일 10:30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버스 종점 정자 [식당] 호남수산회타운
[참석회원] 무순(성수, 무송, 판수, 길빈, 행근, 기주, 정균, 현교, 종선, 안모)



- 8월 27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편백나무 숲 [식당] 무등산 전원일기
[참석회원] 무순(성수, 무송, 판수, 길빈, 행근, 기주, 정균, 은열, 일균, 안모)
- 9월 10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증심사 전원일기
[참석회원] 무순(성수, 무송, 판수, 길빈, 행근, 정균, 은열, 일균, 안모)
- 9월 24일 10:30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말바우시장 고흥어부네수산
[참석회원] 무순(성수, 무송, 판수, 길빈, 행근, 정균, 은열, 현교, 안모)
- 10월 22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입구 [식당] 전원일기
[참석회원] 무순(성수, 기주, 일균, 종선, 행근, 정균, 은열, 현교, 안모)
- 11월 12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첨단 돌솥감자탕 무등산지점
[참석회원] 무순(성수, 기주, 일균, 판수, 행근, 정균, 은열, 무송, 안모)
- 11월 26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첨단 돌솥감자탕 무등산지점
[참석회원] 무순(성수, 길빈, 일균, 판수, 행근, 정균, 은열, 무송, 현교, 기주, 안모)
- 12월 12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첨단 돌솥감자탕 무등산지점
[참석회원] 무순(길빈, 판수, 행근, 은열, 기주, 일균, 안모)
- 12월 24일 10:30 [장소] 증심사 송년산행 [집합] 약사사 입구 [식당] 말바우시장 고흥어부네 회수산
[참석자] 무순(성수, 길빈, 판수, 은열, 기주, 일균, 무송, 정균, 현교, 안모 동근)
- '25. 1월 14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첨단돌솥 감자탕 무등산점
[참석자] 무순(성수, 길빈, 판수, 행근, 은열, 무송, 일균, 현교, 안모)
- '25. 2월 11일 10:30 [장소] 증심사 산행 [집합] 증심사 약사사 입구 [식당] 첨단돌솥 감자탕 무등산점
[참석자] 무순(성수, 판수, 행근, 무송, 길빈, 정균, 기주, 일균, 효열, 종희, 효섭, 안모)



법무법인 德民

대표변호사 오 종 근

(송은당공문중)



- 서울 성동고(33회), 고려대 법대(84학번) 졸업
- 인도 국립델리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
(Visiting Scholar)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검 논산지청 검사
-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특수·공안) 검사

법무법인 덕민

0664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14층(서초동 1554-4)
TEL : 02-447-4300, FAX : 02-447-4333, H.P. : 010-7155-0544
전자우편 : ochong@hanmail.net



동·서양 모든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을 보유한 가장 든든한 로펌 -
SHIN&KIM | 법무법인 세종의 흔들림 없는 비전이자 의지입니다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오 종 한(칠송공문중)

대중회 공지사항

“임원·고문 및 종무위원님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연회비와 협찬금 등은 대중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주오씨대중회〉는 대중회 임원·고문 및 종무위원님께서 매년 납부하여 주시는 연회비와 협찬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회는 정기총회 연 1회(3월중) 개최, 종무회의 연 1회(2월중) 개최, 임원회의 등 각종 회의(수시) 개최, 종사연구위원회 활동, 대중보 연 1회(3월) 발간, 선행자 표창, 뿌리찾기 사업, 대중회 홈페이지 운영, 전자족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의 대중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회비와 협찬금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중회가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고, 후손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장학사업, 전자족보 웹서비스 제공, 선조 사적 탐방 및 성묘행사 체험, 뿌리교실 운영, 지역별 화수회 개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임원·고문 및 종무위원님께서 대중회에 납부하여 주시는 연회비와 협찬금 등은 이러한 숭조애족(崇祖愛族)의 뜻있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납부하여 주신 금액은 대중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연회비·협찬금 납부 은행 예금계좌

- | | |
|---------------|---|
| ■ 서울·기타 지역 | ◆ 은행계좌 : KB국민은행 637401-01-016182
예금주 : 오양근 (나주오씨대중회) |
| ■ 광주, 전남·북 지역 | ◆ 은행계좌 : NH농협 351-1334-1894-63
예금주 : 나주오씨대중회 |

❖ 연회비 : 집행부 임원 20만 원 이상, 고문·종무위원 10만 원 이상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작은 공사에서 큰 공사까지 책임을 다하여 완벽하게 시공합니다.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작은 소규모 공사부터 큰 대규모 공사까지 보다 완벽한 시공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100% 만족하실 수 있는 역량과 열정, 완벽한 시공으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 ✧ **건설업면허** 토목공사, 포장, 철콘, 상하수도, 기계임대업
- ✧ **영업종목** 도로확포장 및 투스콘포장,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상하수도 관로공사
- ✧ **보유장비** vogel-600, vogel-1800, vogel-1900, BG 2 로울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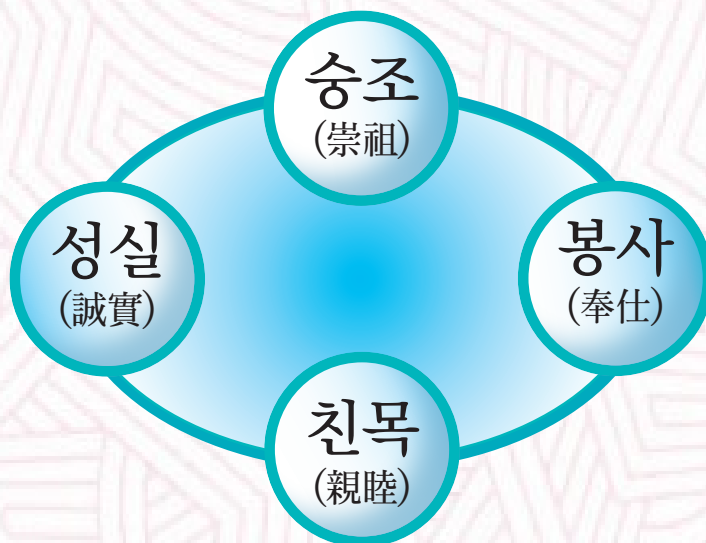


(주)가야건설 · (주)금성건설

대표이사 오 중 순 (대중회 회장 | 사정공문중)

본 사 : 전남 나주시 송월동 667번지
전 화 : (061) 332-8127~8
FAX : (061) 336-8111

종훈(宗訓)



승조(崇祖) : 조상을 높여 소중히 여김

친목(親睦) : 서로 친하여 화목함

성실(誠實) : 정성스럽고 참됨

봉사(奉仕) :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